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40 지구군, 최후의 비밀병기!!

IQ JUMP COMICS

DRAGON BALL



살아있는 만화의 전설 〈드래곤 볼〉!
무삭제 오리지널판 완벽 부활!!

9 788953 220089 47830
ISBN 89-532-2008-4
ISBN 89-532-0133-0(세트)

ⓒ 이 작품은 일본 집영사(集英社)와 독점 계약한 작품이므로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복제와
복사는 저작권 침해로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Korean edition, for distribution and sale in Republic of Korea only.
*한국 내에서만 배본과 판매가 가능한 한국어판.

(주)서울문화사 값3,000원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코믹스 13권에 사진이 실려있는, 10살이 되는 우리집 애견 마토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반년쯤 전부터 신장이 나빠졌던 거죠. 그후 주사를 맞기 위해서 수의사한테 다니기를, 마감날도, 감기에 걸려 힘든 날도 계속하며, 마토도 함께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역시 무리였습니다.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건, 자기 새끼처럼 너무나 열심히 치료를 해주신 근처의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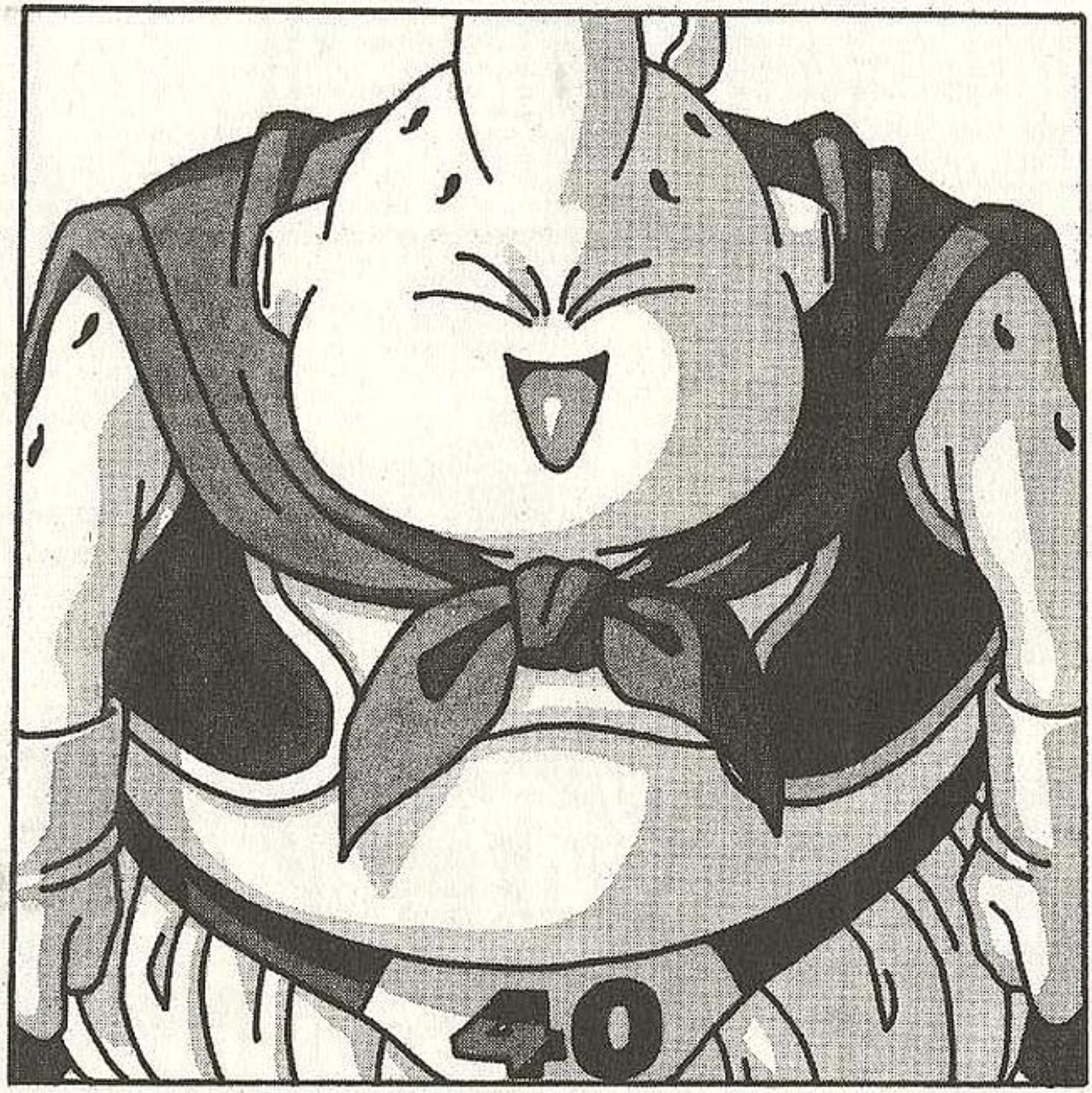
young

오리지널판 <드래곤 볼> 완간기념 특별선물!!

-열혈독자 2,500분께 칠성구 세트를 드립니다!!-

(응모요령은 본책 187쪽과 〈주간 아이큐점프〉에)

<드래곤 볼> 40 칠성구 응모권



DRAGON BALL

드래곤 볼 minv

제40편 지구군, 최후의 비밀병기!!

AKIRA TORIYAMA

등장인물소개







미스터 사탄



게왕신님



키비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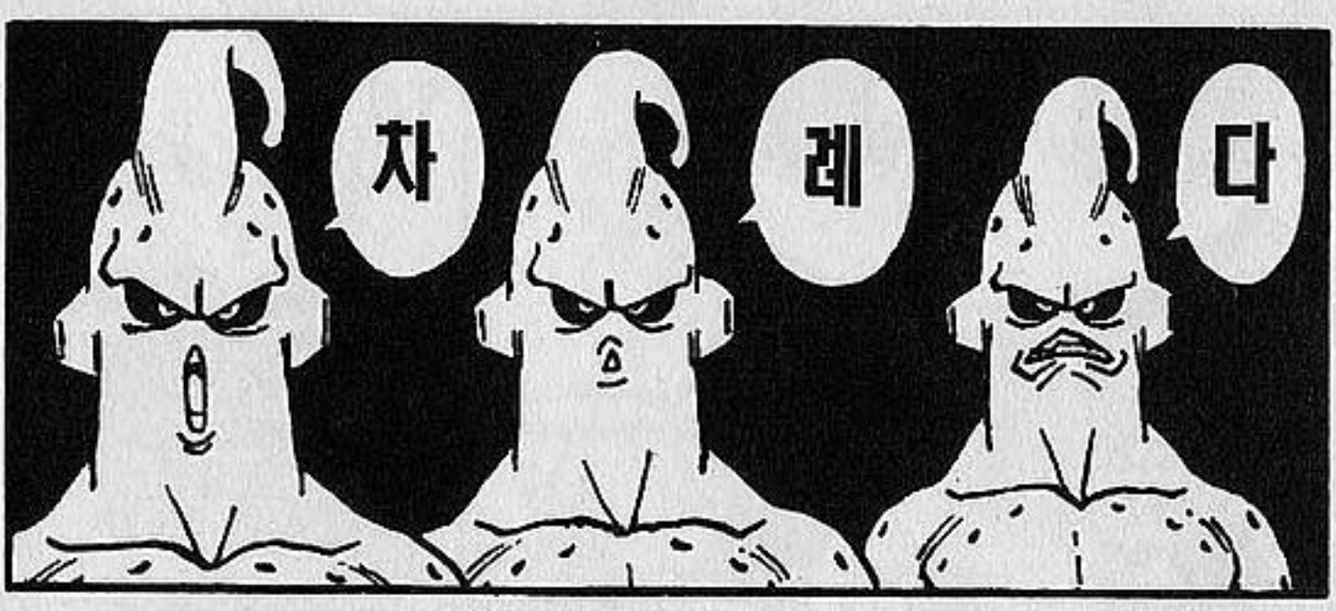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나쁜 곳에 쓰일 뻔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말해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떠났다.

시간이 흐르고…. 마도사 바비디는 더럽혀지지 않은 거대한 에너지를 흡수시켜 마인 부우를 부활하게 만든다. 마인 부우는 베지터를 죽이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말살시키려고 했다. 이제 이 강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오천과 트랭크스가 힘을 합쳐 「퓨전」을 완성시키는 방법밖엔 없었다‥!!

DRAGON BALL 40

지구군, 최후의 비밀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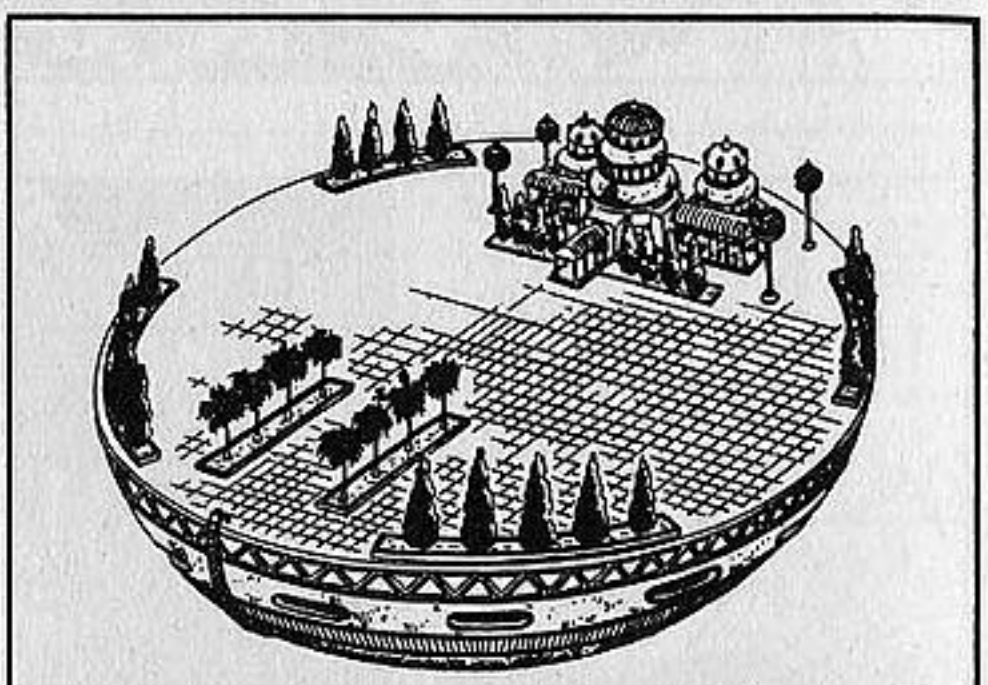


제473화 손오공과 마인 부우의 첫대면! ····· 7
제474화 한계!! 초사이어인3(스리) ····· 21
제475화 드러나는 마인 부우의 진가 ····· 34
제476화 손오공의 남겨진 시간 ····· 47
제477화 손오공의 귀환 ····· 61
제478화 손오반의 행방 ····· 74
제479화 제트 스워드와 또 한 명의 계왕신 ····· 87
제480화 드디어 완성된 퓨전!! ····· 101
제481화 지구군, 최후의 비밀병기!! ····· 115
제482화 드디어 완성! 슈퍼 퓨전!! ····· 128
제483화 마인 부우와 친구들 ····· 143
제484화 분노가 만들어낸 것 ····· 157
제485화 두 명의 마인 부우… 그리고… ····· 170
표지 페이지 대특집 XXXVII ····· 183

DRAGON BALL 드래곤볼

제473화
손오공과 마인 부우의 첫대면!









히히히…!

응….

좀 쫄게 만들어주자, 오천.

헤헤…. 좋아.

좋아! 그럼 기를 최대한 올리는 거야.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큭!!

찌릿찌릿…

하아아 아압…!!

좋아. 그게 최대한이군….

그… 그렇긴 한데….

엥!?


트랭크스,
기를 약간만 줄여서
오천과 똑같게
만들어라.
트랭크스 쪽의 기가
아주 조금 크군….
퓨전을 하려면 두 사람의
기가 완전히 같아야 해.


스톱!
됐다. 거기야.
그 기의 크기를
잘 기억해야 해.
좀 더….
좀 더….
상당히
어렵네….


이… 이
정도인가…?
엥…?
또…,
똑같이?
그건
너무
내렸어.
좀 올려….


왜 내가
오천의 기에
맞춰야 하는
거지?
후우!


원래대로
돌아와.
됐다.


네가 오천보다
한 살 위라서
기가 센 거라구.
불평하지
마.
할 수
없잖아.

지구인 여러분! 방금 괜찮은 정보가 들어왔다.

자, 다음엔 보통 상태에서 힘껏 기를 올린다.

초사이어인 상태에서 갑자기 퓨전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세 놈 중 한 놈인 트랭크스란 놈이 서부 도시에 있는 캡슐 코퍼레이션이란 집에 살고 있다는 정보다.

거기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없다면 빨리 나타나는 게 좋을 거야! 자기가 사는 마을이 사라져버릴 테니까.

이제 슬슬 가볼까…?

!!


저 소리 들었어?
오공!!
누가 고자질한 거야!? 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단 말야!
이… 이런!


아니, 그렇지 않아. 첫 번째 소원으로 많은 사람을 되살렸기 때문에 다음에 빌 수 있는 소원은 한 가지로 줄게 돼. 아주 위협한 일이야.
서부 도시도 파괴 당한다구!
그것도 두 번째 소원으로 되돌리면 돼.
드래곤 볼로 살릴 수 있으니 걱정 마!
우리 엄마랑 아빠가 위험해!


뭐…!?
그 레이더는 특수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만들 수 있어!
그건 안 돼! 연구소가 박살나면 거기 두고 온 드래곤 레이더도 끝장이야!
아 참! 그러고 보니 그랬구나…. 그럼 용신에게 '모든 사람을 원래대로 만들어줘'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즉, 다시 용신을 불러낼 수 없다는 얘기지….
과연…! 아니…, 잠깐….



큰일났네…. 좋아! 트랭크스, 집에 가서 레이더를 가져와라. 서둘러!
마인 부우와 바비디는 내가 잡고 있을 테니!
엥!?
아… 아저씨 혼자 괜찮을까…?
정말 버틸 수 있어…? 금방 당하는 거 아냐…?
걱정 마. 약간의 시간은 벌 수 있어….
너희들이나 빨리 서둘러! 놈들이 서부 도시에 도착하겠다!
푸슈
정말 괜찮을까…?
우다다닥
파밧
야, 임마! 너무 빨리 가지 마!
잘못하면 떨어지겠다. 이 멍청아!


발끈
.....
슈슈
와앗!!
안녕!

그래…,
베지터에게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
살아있었군….

하긴, 네게
감사해야지!
덕분에 이저럼
마인 부우가
부활했으니….

너…,
넌…!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니까
당연하지!

헤헤헤
….

그런데,
뭐 하러
나타났니?

에헴
어헛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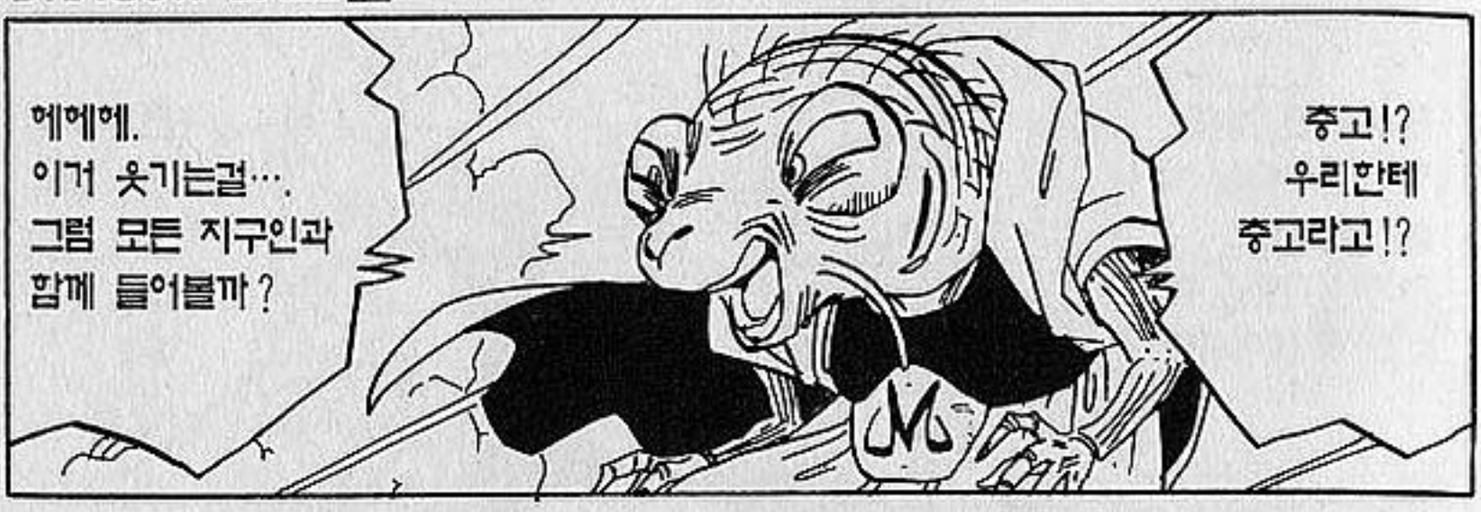
나도,
베지터도
널 너무
허약하게
생각했어….

마인 부우가
이 정도까지
대단한 놈인 줄은
꿈에도
몰랐는걸.

맞다!
그 세 놈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러
온 거지!?

농담도 심하셔.
그 세 명 중
하나는
내 아들이다.

약간의 충고를
해주러 온 것
뿐이야.


헤헤헤.
이거 웃기는걸….
그럼 모든 지구인과
함께 들어볼까?
충고!?
우리한테
충고라고!?


뭔가 꾸미는
일이라도 있나!
왜
기다려야
하지?


너희들을
해치울
특별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


크하하
우하하하…!
우리를
해치운다고!?
수천 년을
해봐라,
그게 가능한가!


네가 찾고 있는
그 세 명은 이제 곧
반드시 나타날 거다!
내가 약속하마!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필요없는
파괴와 죄없는
인간에 대한 살상은
그만두라고!

안 그러면 계속
지구인을 죽일 거야!
물론 우리는
그 파괴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 뿐이지만….

우린 기다릴
시간 따윈 없다.
빨리 여기
나타나기나 해.

그렇다면 나도
내 실력을 좀
보여줄까…?

그래…,
그럴 줄
알았지.

야, 얌마…!
마인 부우!!

♪루ㅅ룰라라ㅅ♪

뭐 하는
거야?
자, 빨리
해치워!

하하하! 미친 녀석!
부우, 너의 무서움을
확실히 보여줘라!!

베지터저럼
죽고 싶은
모양이다!!


부웅 부웅
휴우…
돌리 돌리…
알았어! 알았다고!


……
그렇게 강하면서 바비디 말은 뭐 하러 듣니?
멍청한 녀석…


다시 주문에 걸려 봉인되고 싶은 거냐…?
그, 그 뱁새눈은 뭐야…?
……
시, 시끄러! 쓸데없는 소린 하지 마! 마인 부우는 내 부하니까 내 얘기를 따르는 건 당연한 거지!
날 봉인하면 넌 저놈한테 국물도 없어.

이… 이 자식이…!
어느 틈에 저런
쓸데없는 지능이
생긴 거지…?

으윽…!

쳇….

할 수
없군….

착한 놈 같아서
나도 싫거든!

하지만
저 녀석은
죽여줄게.

호우!

이제부터
우리 말을
거역한 멍청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지구인
놈들아!
잘 보고
있어라!

어떤 식으로
죽여줄까나~?

!!

!!

저… 저 아저씨….

아버지랑 대등한 파워야….

자!

초사이어인을 초월한 초사이어인…. 그 초사이어인을 또 다시 초월한 모습을 보여 주겠다….

케에에에! 쓸데없는 헛수고!!

베지터도 그런 식이었지만 결국 죽었어!



제474화

한계!! 초사이어인3(스리)

그…
그걸 다시
초월
했다고…!?

초…
초사이어인을
초월한
초사이어인….

조사이어인을
넘고 넘어서
어떻게…?

무슨
얘긴지
하나도
모르겠네….

대체
뭔 소리야….

빨리 가란
말아….

트랭크스의
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네….
왜 안 가는
거지?

가능하면
변신하고 싶지
않은데….

예…!

!!

빨리 레이더를 가져와!

들리냐, 트랭크스!?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이런….

신경 꺼라.

아무 것도 아니야.

레이더…!?

무… 무슨 소리야…!?

왜 본 모습으로 돌아왔지? 포기한 거냐…?

느으으!!

글쎄….

할 수 없군…. 시간을 좀 더 벌어야지….

뭔가 쓸데없는 짓을 꾸미고 있군.

흐흥….

우선 이것이 보통 상태다.

가만 좀 있어봐.

그런 하찮은 건 알고 싶지 않다구.

쓰잘데 없는 짓이야.

너희들에게 초사이어인에 대해 알기 쉽게 가르쳐주겠다.

그게 아냐.

바로 초사이어인 2(투)란다!

그리고, 이것이 먼저 보여준 초사이어인을 초월한 초사이어인….

이것이 초사이어인!

휭

그 이상 뭐가 있다는 거야…?

오공이 괜히 사기치는 거 아닐까…?

FIGHT

이것이….

씨익!

그리고….

별로 변한 게 없잖아!

형편없는 변신이군.

또…
또 다시
그것을
초월한….

그…
그걸로
변신해버리면
남아있을
시간이…!

아… 안 돼!
오공… !!

이이…
이이익
… !!

하아앗 !!

이야앗
… !!

.....

점점 기가…, 기가 팽창하고 있다…!

대… 대단해!

피바바바

오공 녀석…! 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지… 지구 전체가 흔들리잖아…!

!!

앗…!!

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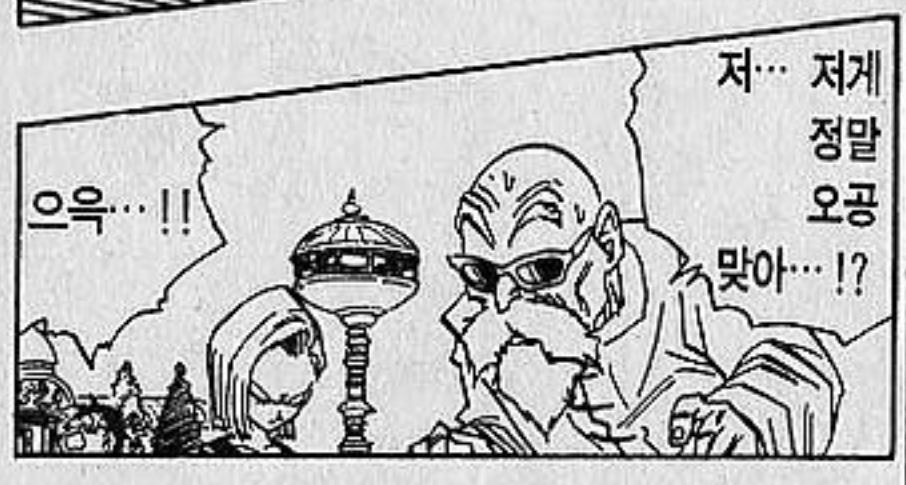
삐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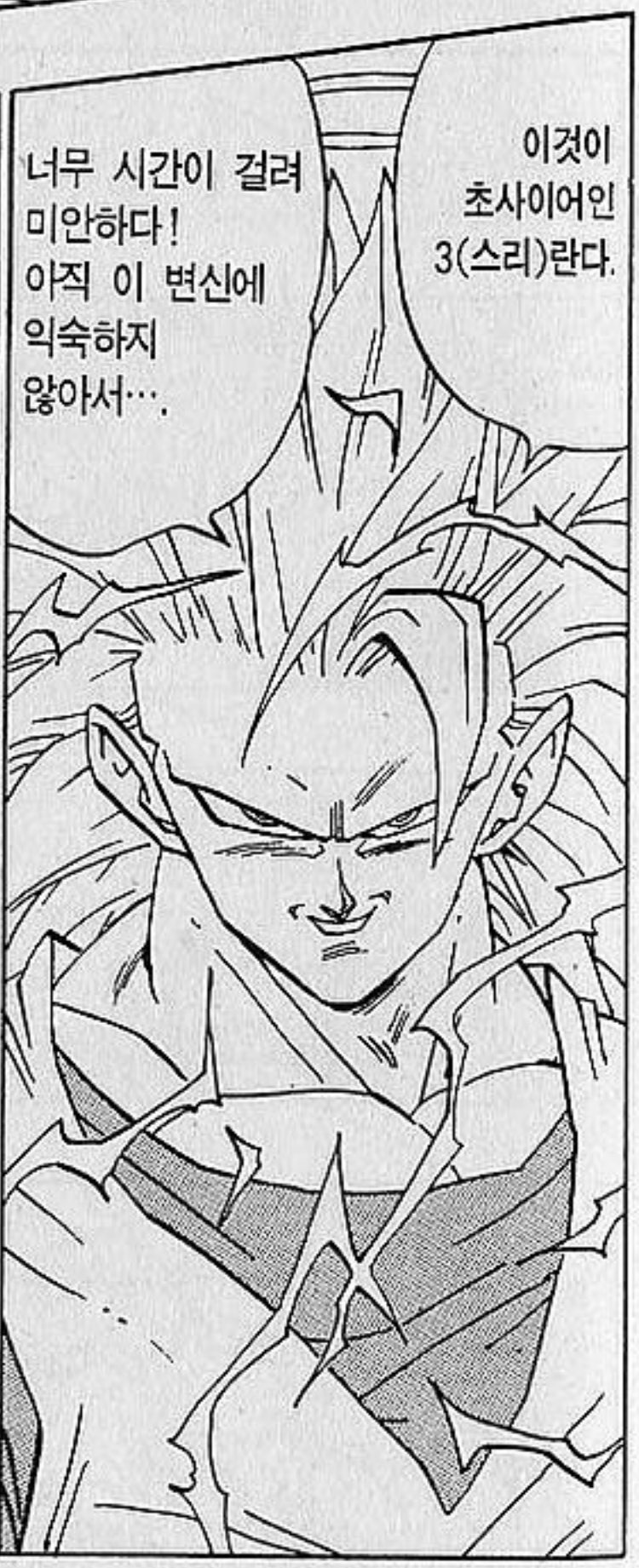
빠자

빠자…

minyoung




저… 저게 정말 오공 맞아…!?
으윽…!!


이것이 초사이어인 3(스리)란다.
너무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 아직 이 변신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 이 기는 설마 아버지의 …!?
아냐…, 그럴 리가 없어…!

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
아버지….

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 이곳 성역까지
파워가 전달
되다니.

어…, 엄청난
에너지이긴
하지만…,
분명히….

마…, 맞아요!
손오공
입니다…!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런
험악한
얼굴
하지 마!

저 자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려라,
마인 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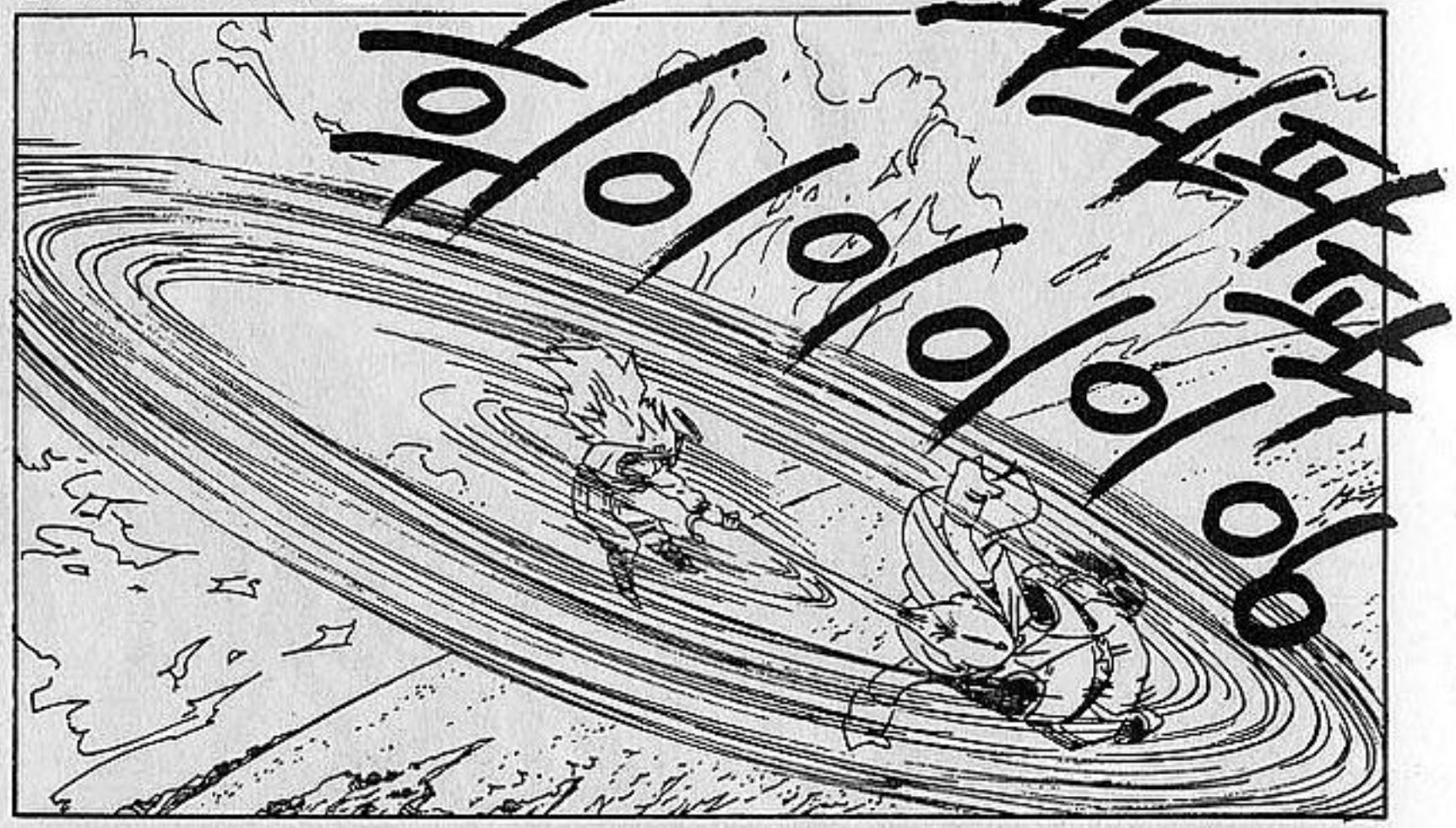
부… 부우 말이
맞다, 임마!
뭐가 초 무슨 3이야?
괜히 똥폼 잡고
있어!

그래….
빨리
붙어보자.


얍!
얍!
헤헤헤…!
나를 통해서
지구 전체의 인간이
이 광경을 보고
있다!
완전 개망신을
시켜버려라~!!


OK
OK


슈슈
꽈악
퍼벅
파악
퍼벅
쿠콩
파악


ゴゴ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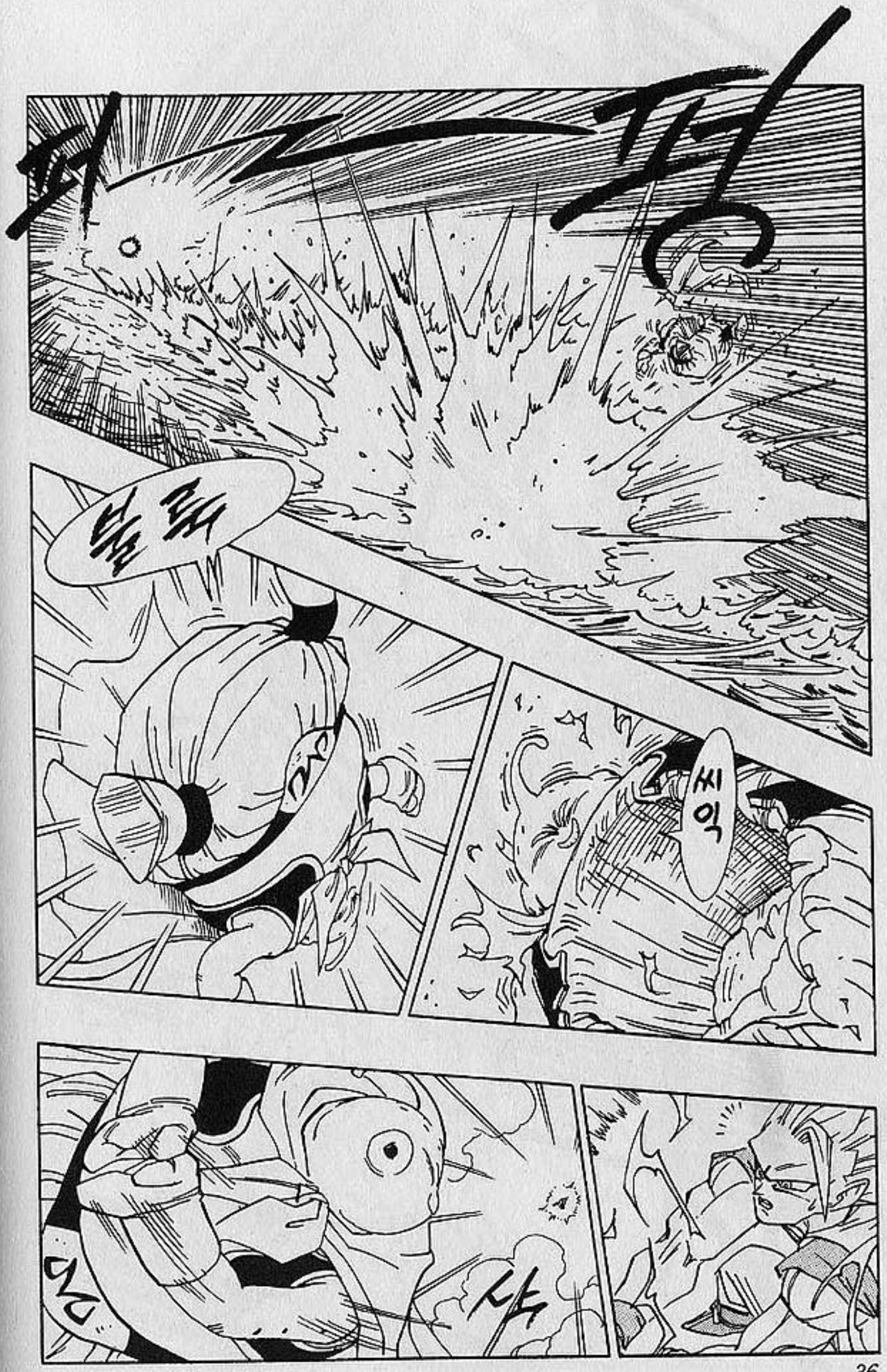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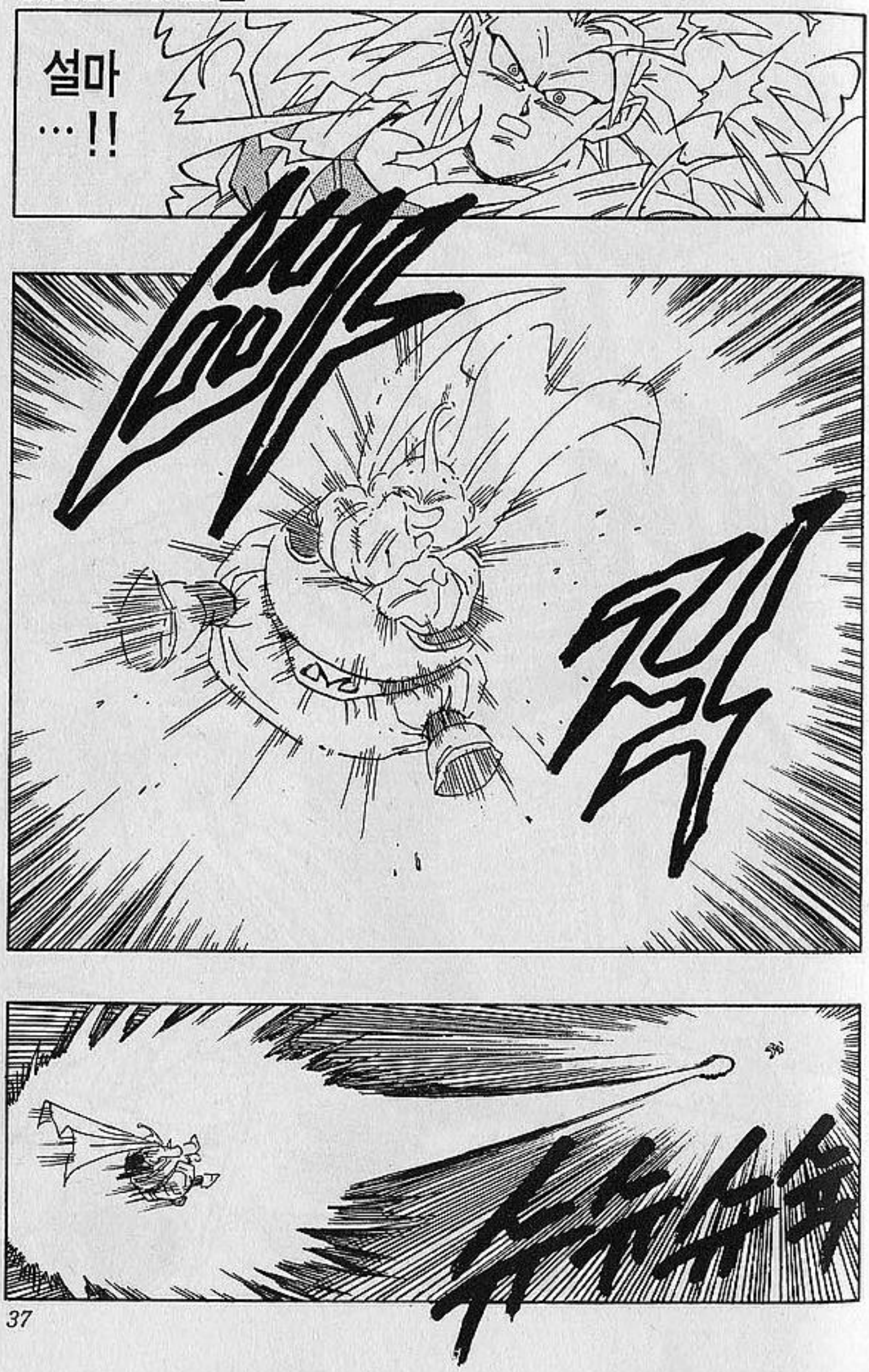


다음은, 제475화 드러나는 마인 부우의 진가






키익


설마
…!!

칫… !!

!!

사삭


앗!!
!!
쿠앙


제길…!!
쿠구구궁…
윽…!!


와아아아아


조, 조심해!! 마인 부우!!
나, 나까지 위험하잖아! 이 멍청아!
……


헤헤! 하지만…
지금의 멋된 공격 때문에 지구의 10분의 1은 파괴됐을걸? 정말 형편없는 정의의 사자로군~!


역시 대단한 놈이야~! 놀랄 노자네. 너, 얼굴은 멍청하게 생겼어도 천재적인 녀석인데.
상대의 기술을 순간적으로 파악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그래! 무사히 드래곤 레이더를 찾아내서 서부 도시를 벗어나기 시작한 거군!

아! 트랭크스의 기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헴

너랑 싸우는 거 엄청 재밌다. 좀 더 붙자구!

어이! 왜 원래대로 돌아오냐?

그거 영광이군.

하지만, 내가 좀 바빠서. 너랑 계속 노닥거릴 시간이 없거든.

미안 하지만, 난 가겠다.

미친 녀석! 무사히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나?

마인 부우! 시범 케이스로 죽여버려!

그놈들 강하니…?

……

그러니까 그때까지 얌전히 좀 있어줘! 무의미한 살상은 그만두라고. 2일…, 단지 2일이다. 알겠어?

잘 들어, 바비디. 네가 찾고 있는 세 명은 3일…. 아니, 2일 후에는 반드시 나타난다.

네놈이 지옥에 떨어지면 끝내주는 승부를 겨룰 수 있도록 부탁해 둘게.

쳇…, 아깐군. 모처럼 마인 부우랑 멋진 승부를 겨룰 뻔 했는데….

더욱 열심히 장난치고 다닐 거야~!

케헤헤! 내가 그런 얘길 들어줄 줄 아냐?

!?

파스슛

대체 뭐 하러 온 거야…?

대… 대체 저…저놈은 뭐지…?

사… 사라졌어!

빨리 찾으란 말야, 빙신아!
이 자식! 내 말이 안 들려?
명청한 놈! 니가 꾸물거리다 놓친 거잖아!
짜샤! 놈이 도망쳤잖아!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거니까 빨리 찾아!
뭐? 좋은 생각?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너 같은 띨띨이도 생각을 하니? 빨리 말해봐.
바비디 님~!
뭐… 뭐야?
씨익
커어
뉴우
그게….
빨리 얘기하고 녀석을 쫓으라구!

목소리 안 나오지?

따라서 나를 봉인할 수 있는 주문도 얘기 못하겠군!

……!!

죽어라, 멍청아!

……!!

파닥 파닥

더 이상 너에게 볼 일은 없으니 나도 이젠 못참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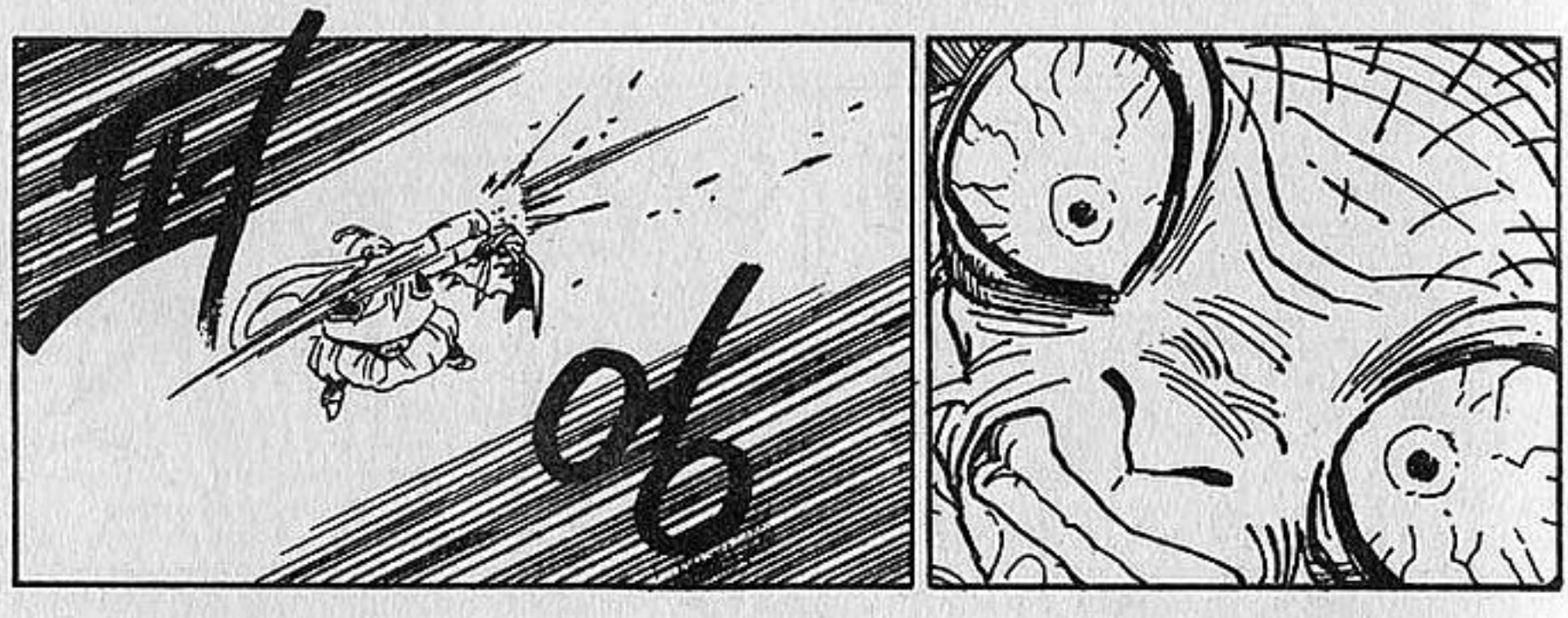
그 동안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서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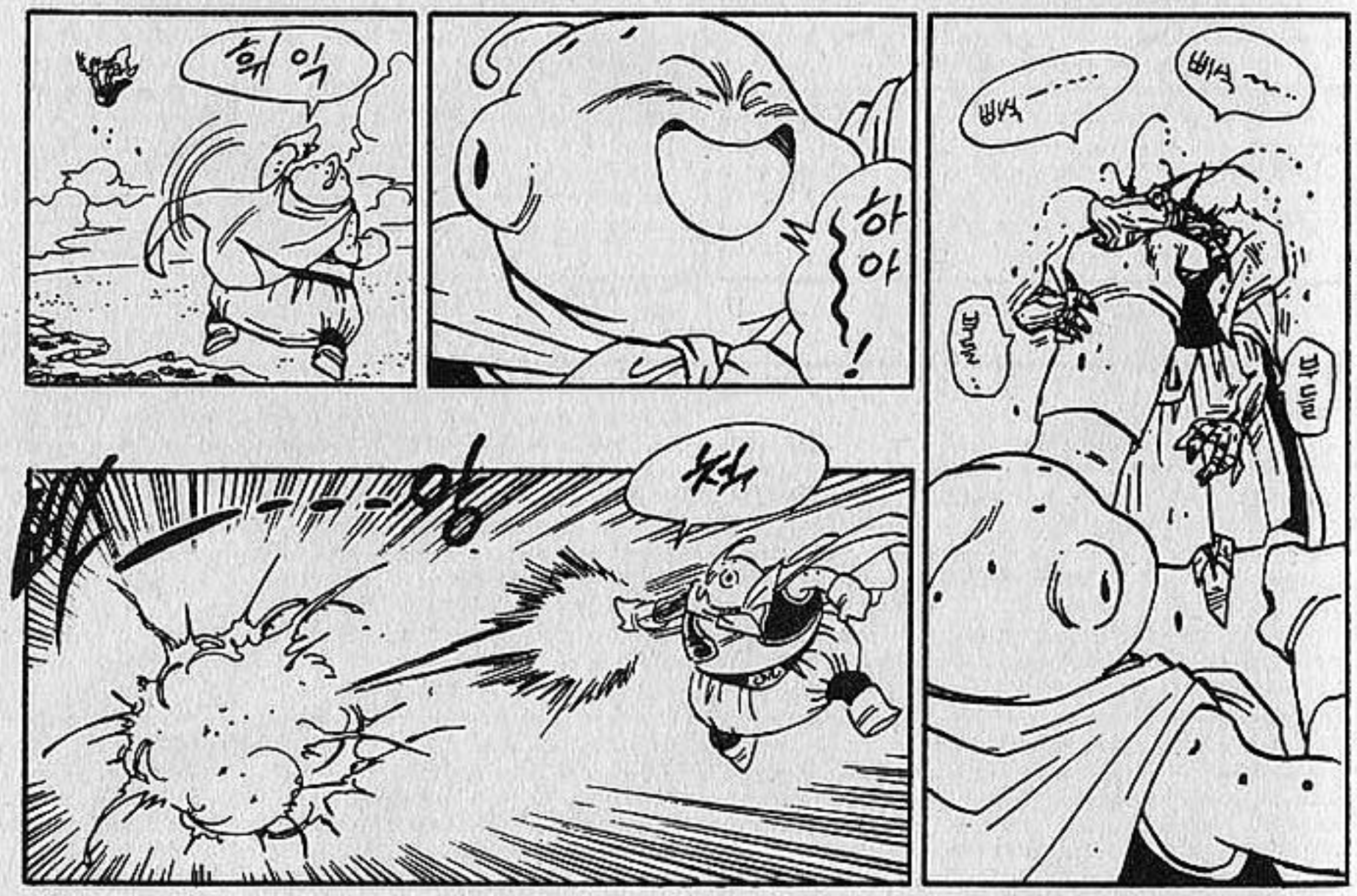
min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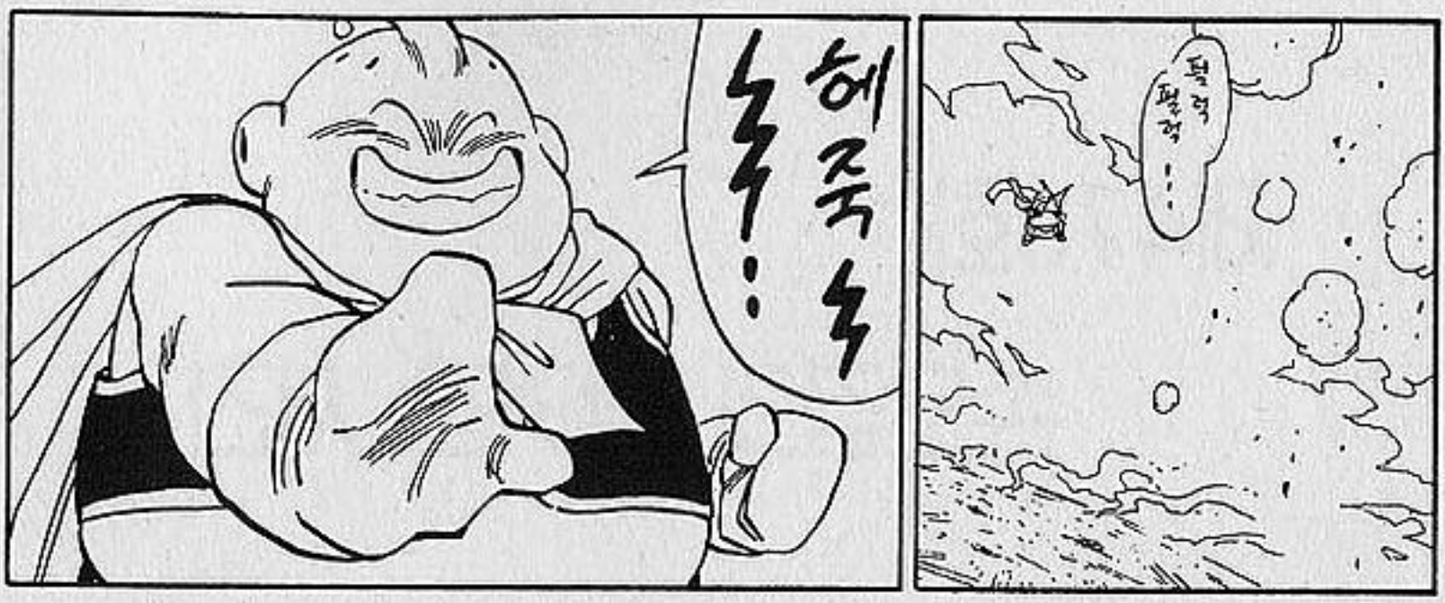


제476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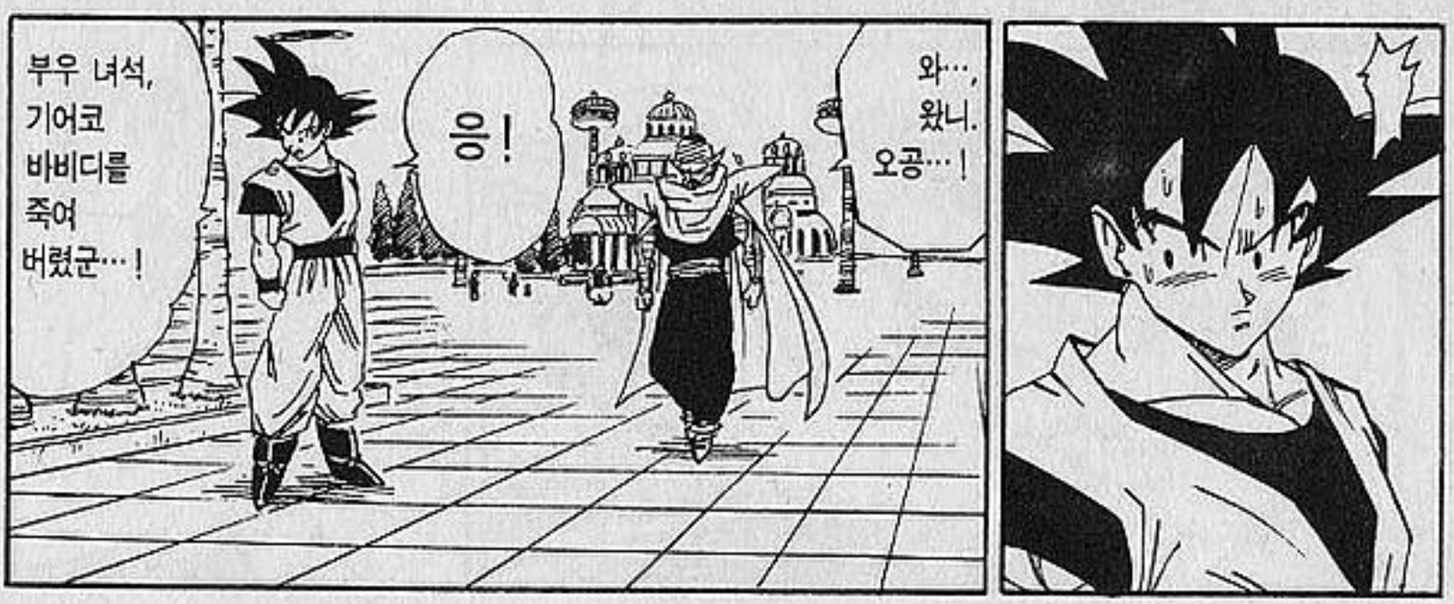
손오공의 남겨진 시간






헤죽ㅋㅋ!


우와!!
우와!!
야호!
야호!
오예!
오예!
아자!!
아자!!
이야호!!


부우 녀석,
기어코
바비디를
죽여
버렸군…!
응!
와…,
왔니.
오공…!

명령을 하는 놈이 없어진 거잖아…. 그렇다면 혹시 이대로 마인 부우는 얌전해질지도….

그… 그럼….

뭐, 뭐야!? 그… 그러고 보니 바비디의 기가 사라졌네….

끼새를 보니 그럴 것 같았는데, 정말 끝내버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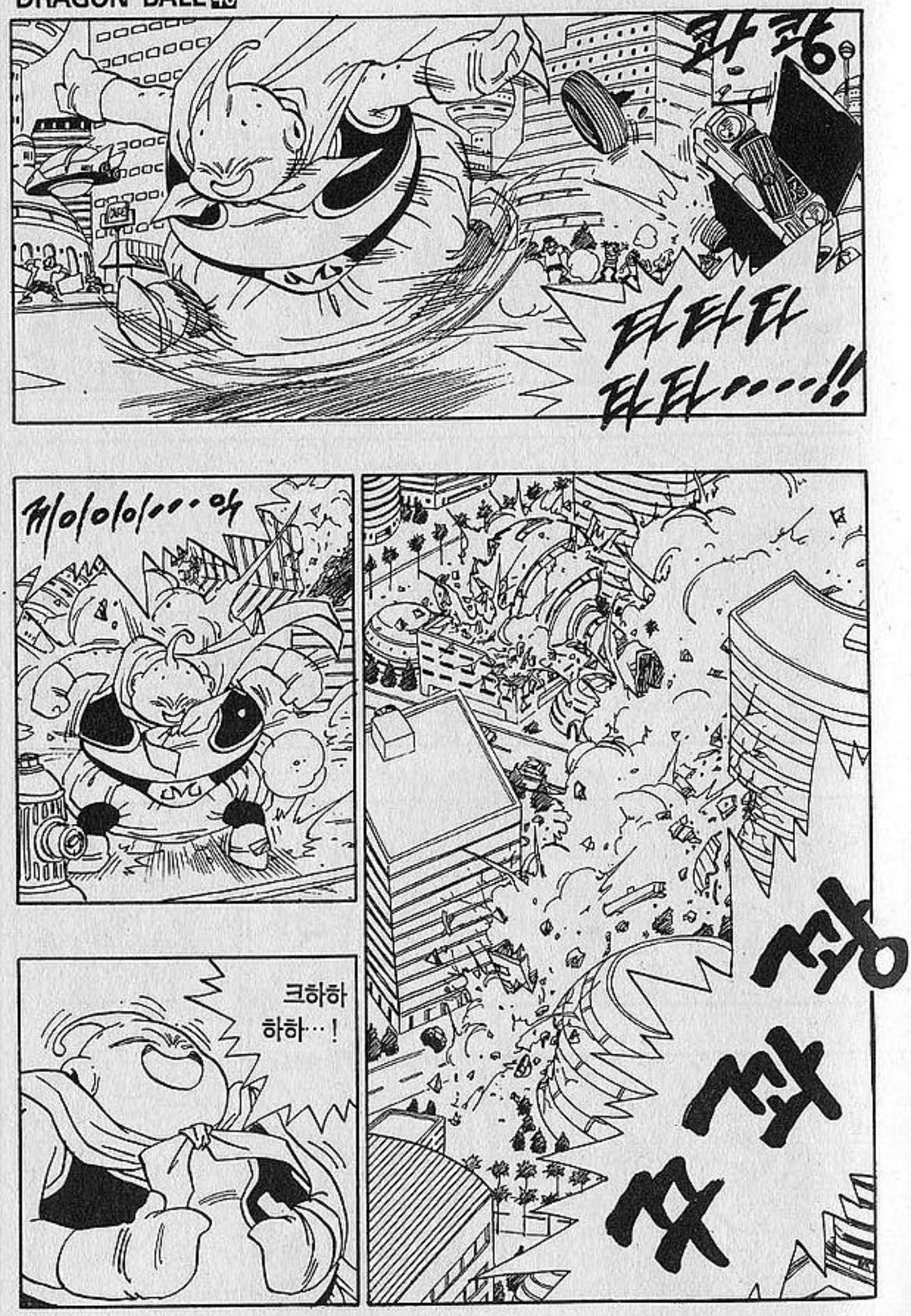
이얏~!!

그럼 좋지만….

글쎄….



쿠쿠쿠쿠쿠
왓—
쨕—
뭐, 뭐야!?
마인 부운가!?
도망쳐라!!
쿠억
준비!
꺄—
악—
꺄—
악
따○!!


콰콰
타타타
타타……!!
끼이이이…악
크하하
하하…!

부,
부탁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

엉?

으아
아아…!!
사… 살려
주세요!!

뽀뽀 한 번
해주면
안
잡아먹지!

그럼!

잘 생겼어요…!
괴, 굉장히
멋져요…!

잘 생겼다고
생각하니?

내가….

으?

뻥쳤구나.

너!

꺄아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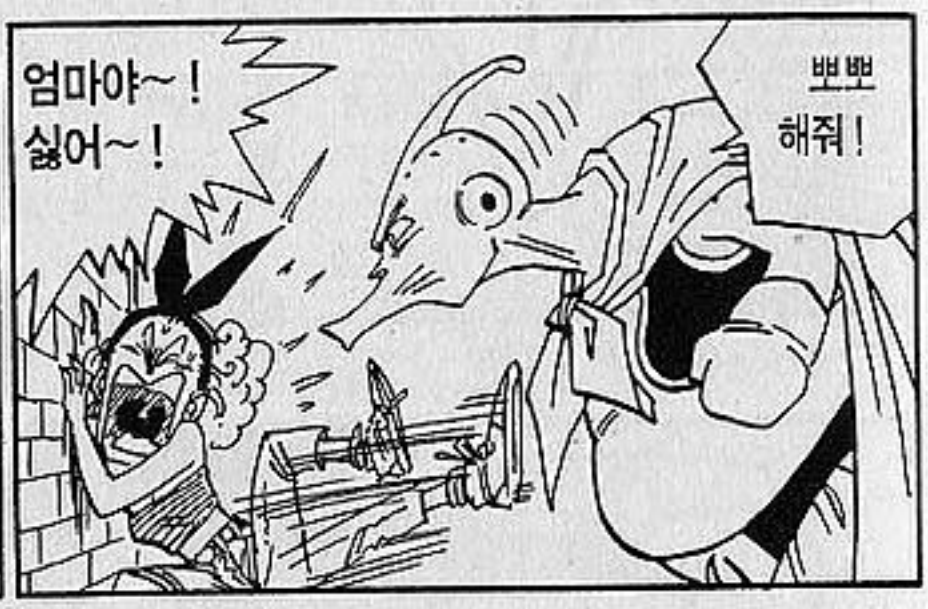
재인기 슈퍼스타!!
베리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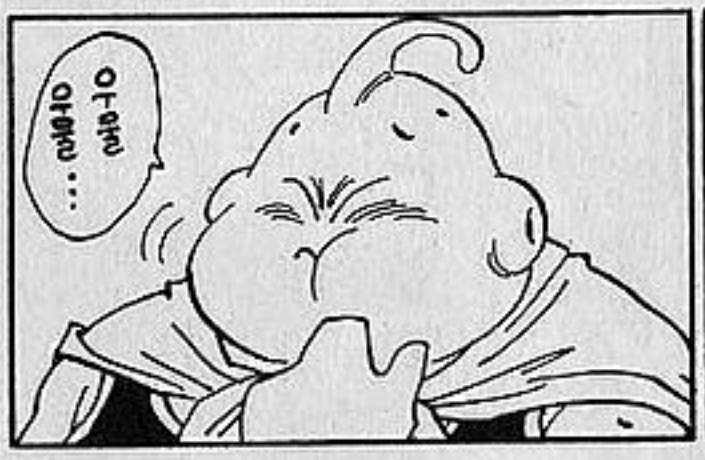

어떠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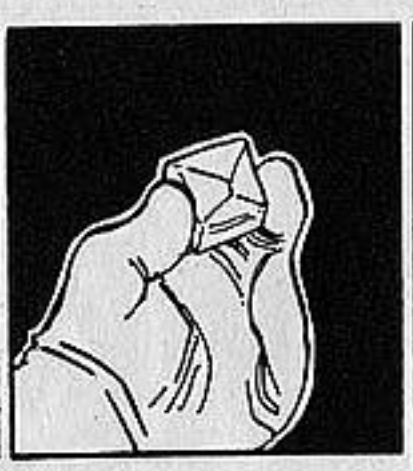

파팟
좋아!!


지구 여자들은 이렇게 생긴 놈을 좋아하는군….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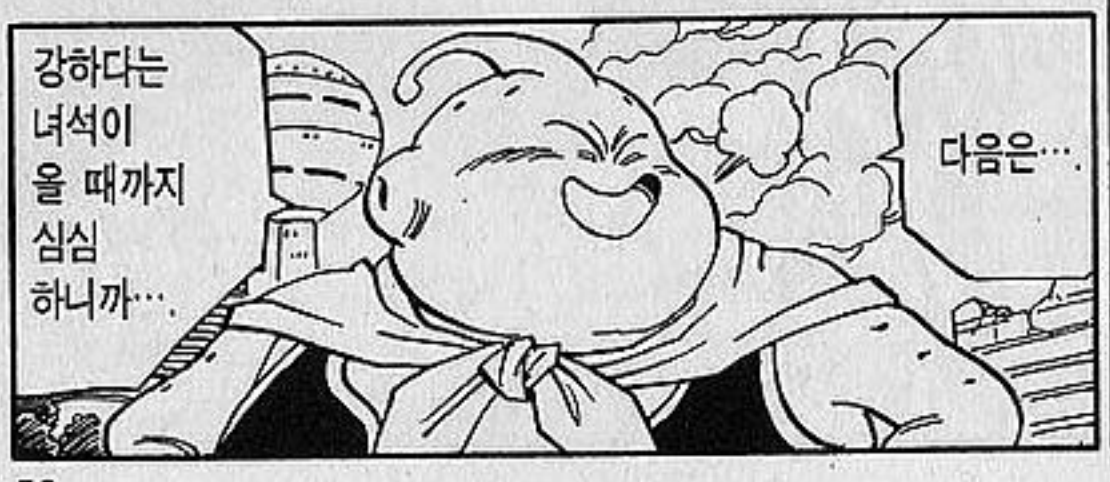

진짜 기분 나쁜 여자네!
이게!


엄마야~! 싫어~!
뽀뽀 해줘!


우울 우울…




캬라멜이 돼라—!!
꺄악—!!


강하다는 녀석이 올 때까지 심심 하니까….
다음은….

지구인을
전멸시키면서
놀아 보자구!

제길….

그래….

이제 마인 부우는 아무 의미 없이 파괴를 즐기는 상황이 됐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익…!

따라서 여긴 적어도 2일 정도는 안전할 거야….

하계의 인간들은 좀 안됐지만….

2일 후에는 나보다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 자기랑 싸울 거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

걱정 마. 지구와 함께 사라지는 사태는 없을 거야.

저놈이 마음만 먹으면 이곳도 지구와 함께 녀석에게 순식간에 박살나겠는걸…!

그럴 리가 없어! 아직 많이 남았잖아!

뭐야!?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이승에서는 사용 에너지의 양이 너무 많아서 금방 파김치가 돼버려….

좀 전의 초사이어인3은…, 저승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기술이었어….

그때까지는 어떡해서든 두 꼬마들이 퓨전을 완성 시켜야만 한다는 얘기네….

맞아…. 빨리 가르쳐야 해.

내게 남겨진 시간은 아마 1시간도 채 못될 거야….

점쟁이 바바!

슬슬 돌아갈 준비를 해라, 오공….

남은 시간은 이제 30분이다.

안 돼…. 이건 저승에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럼 덴데에게 에너지를 부활시켜달라고 하면 되잖아.

오공…,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빨리 돌아와 다오, 트랭크스…!!

빌어먹을!

그래, 아쉽지만….

정말 그것밖에 안 남았어?

30분!?

어때? 내 말이 틀리니…?

네가 좀더 힘껏 싸웠다면 그걸로 마인 부우를 해치울 수 있지 않았을까…?

뭔데?

아마 이길 수는 없었을 거야….

글쎄…, 마인 부우의 힘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니까….

언제, 또 다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니!

난 이미 이승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다….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구. 이승의 젊은 애들이 어떡하든 해결하는 게 좋다….

그 에너지 문제 때문이니…?

아니….

아마라고…? 너처럼 질긴 애가 왜 끝까지 부우와 싸워보지 않은 거지…?

그쪽에 가능성이 많겠지?

……

이건 위험한 도박이긴 하지만….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저 초천재적인 두 꼬마를 보고 녀석들에게 승부를 걸어보기로 했어….

오반은 정말 안 됐어…. 저승에 돌아가서 만나면 잘 지내라고 전해줘.

알았어….

그 녀석…, 죽음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너와 만날 수 없게 된 거라고 생각할 거야!


부우웅
부웅
부웅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이… 이렇게 빨리 제트 스워드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다니!
아버지는 저승에 가서도 그토록 열심히 수행을 계속하고 있었어….
내가…, 내가 조금이라도 실력이 근접해야 돼…!
마… 마인 부우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왔다!!
트랭 크스야!!

됐다!!

이게 드래곤 레이더지?

가… 가져 왔어!

예, 선생님!!

이젠 정말 시간이 없다! 너희들이 젖 먹던 힘까지 내지 않으면 이젠 진짜 끝장이라고!

알았지?

자, 시작!!

네가 초사이어인3로 변한 게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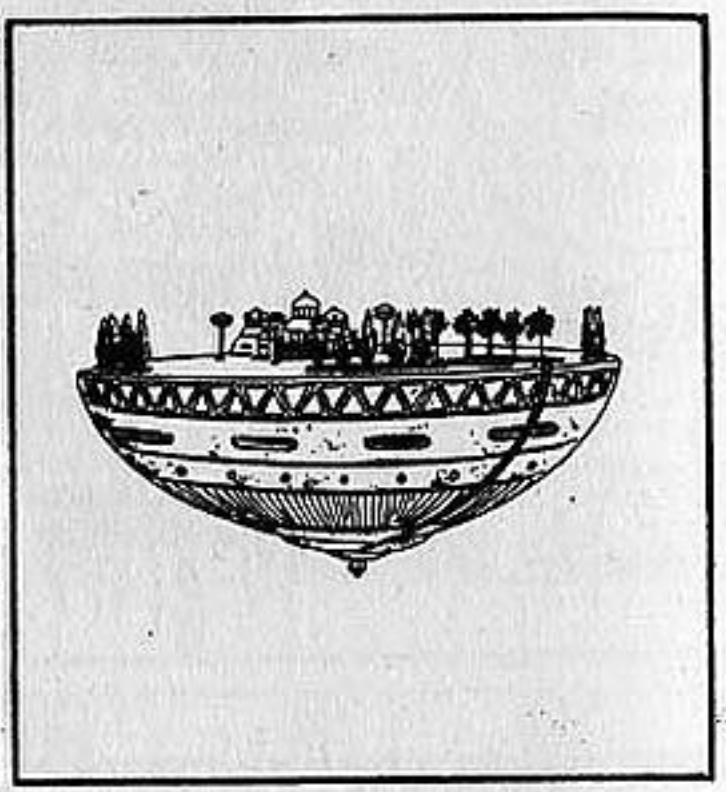
어라…? 갑자기 고분고분 해졌네….

minyoung



제477화 손오공의 귀환













이제부터 내가 그 포즈를 가르쳐줄 테니까 잘 보고 배워…. 알았지?

두 사람의 기를 완전히 같게 만든 후, 퓨전 포즈를 똑같이 취하면 퓨전이 완성된다….

우선 두 사람이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선다….

그리고 요렇게 한다!

팔의 각도에 주의해.

퓨…!

사사삭…

아장 아장 아장

팔을 반대로 돌리면서 서로 접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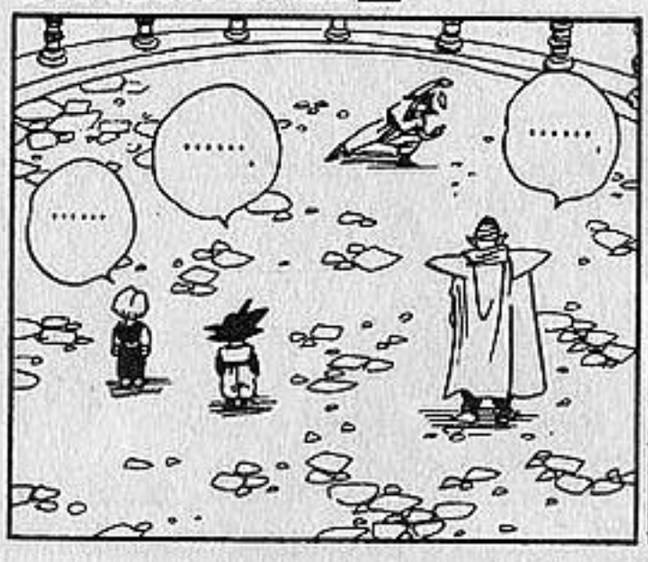
이때 발은 세 발자국 움직인다.

전!!

손은 이렇게 바꾼다!

역시 발의 각도에 주의해라!

얍!!


……
……
……


다시 한 번 발의 각도에 신경써라. 특히 바깥쪽 발을 쭉 펴는 거 잊지 마.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손가락을 맞댄다.


자, 시작해 봐!
지금의 포즈를 둘이서 좌우대칭으로 취하는 거야! 알았지?
허허 어어


맞아….
완전 달밤의 체조네….
어떡하지….


뭐!?
그래. 나랑 피콜로가 하는 걸 잘 보도록 해.
뭐…?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좌우대칭이 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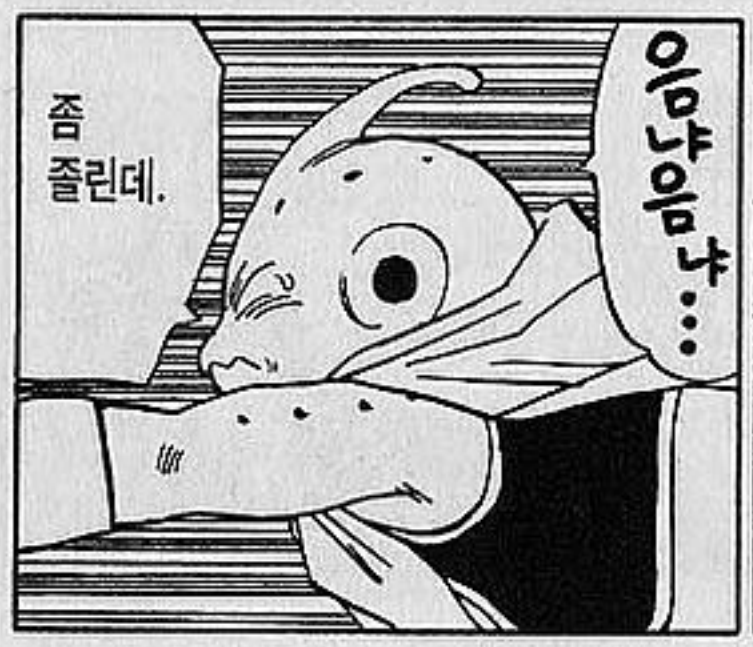

……
거울에 비친 것처럼 둘이서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고….


내가 하라고 …!?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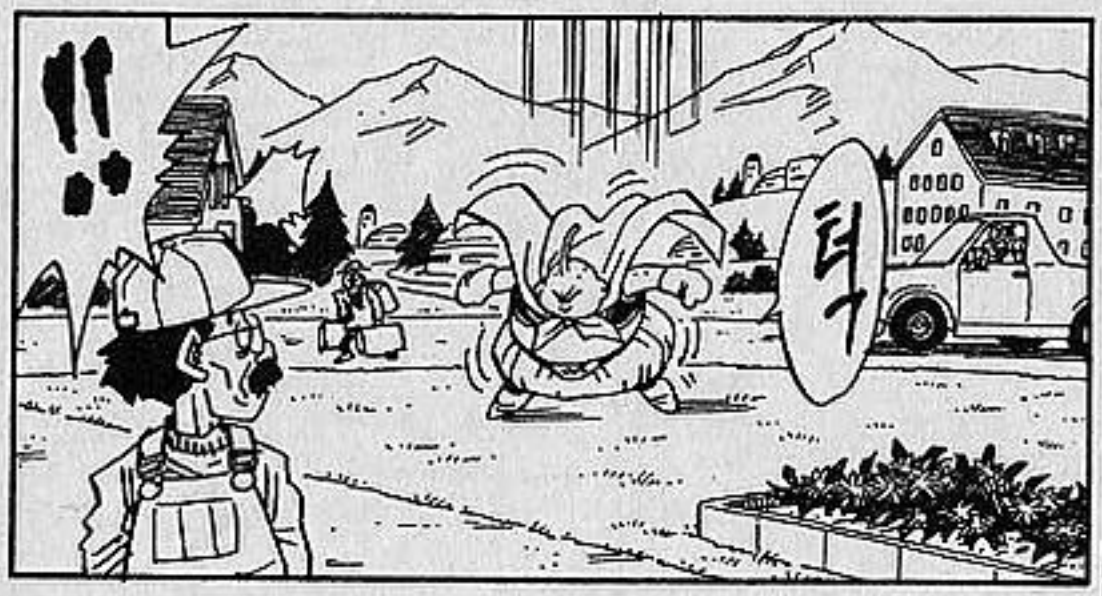

사사 사사사삭----
퓨….
꼴꺽…
파팟
전!!
봤지? 한 번 해봐!
얍!!
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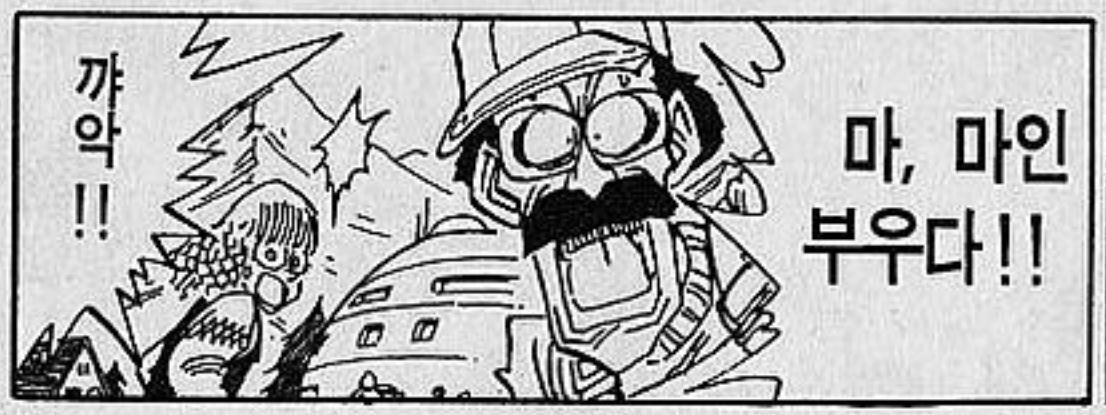

아마…, 베지터가 살아있었다고 해도 이런 짓은 거부했을 거야….
너… 너. 이걸 베지터와 함께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지…?
뭐?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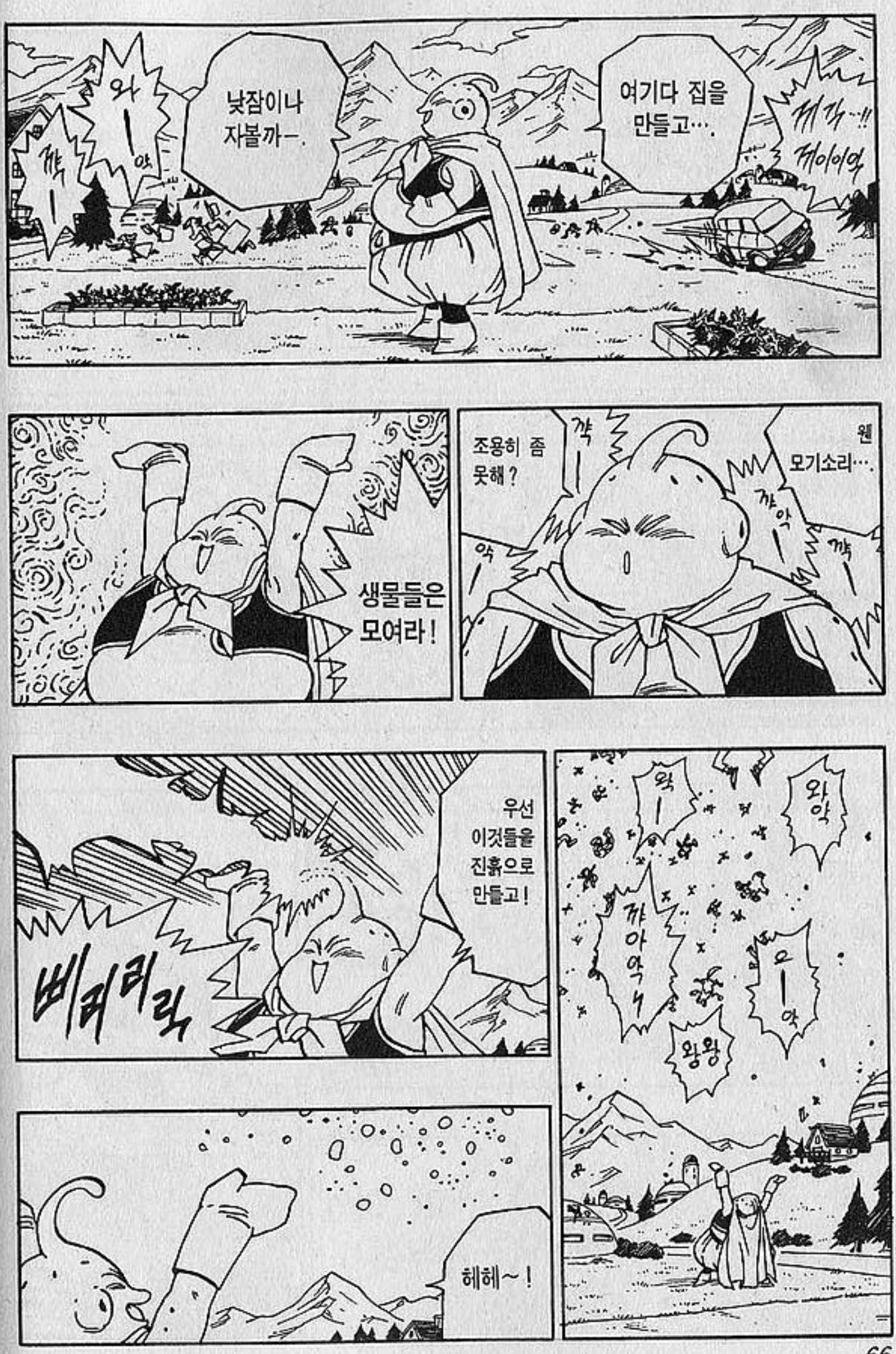

좀 졸린데.
음냐음냐…


후아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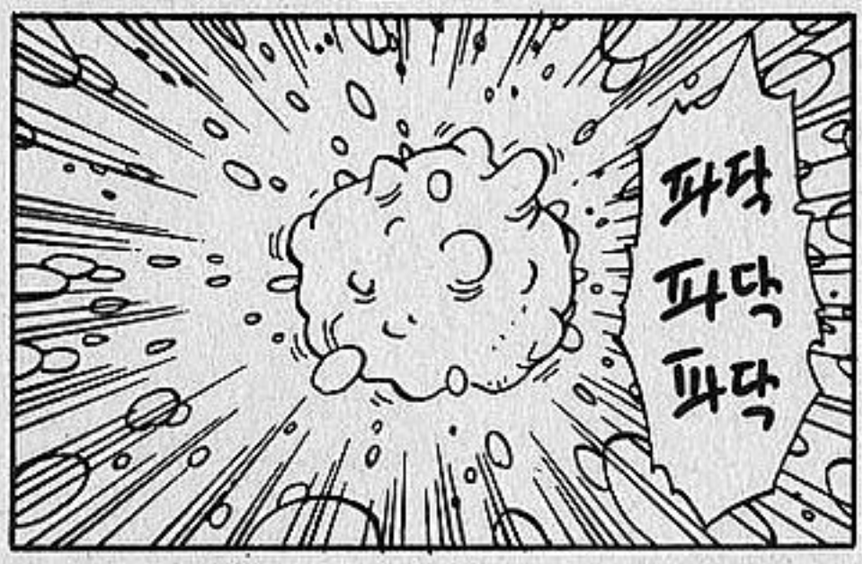

!!
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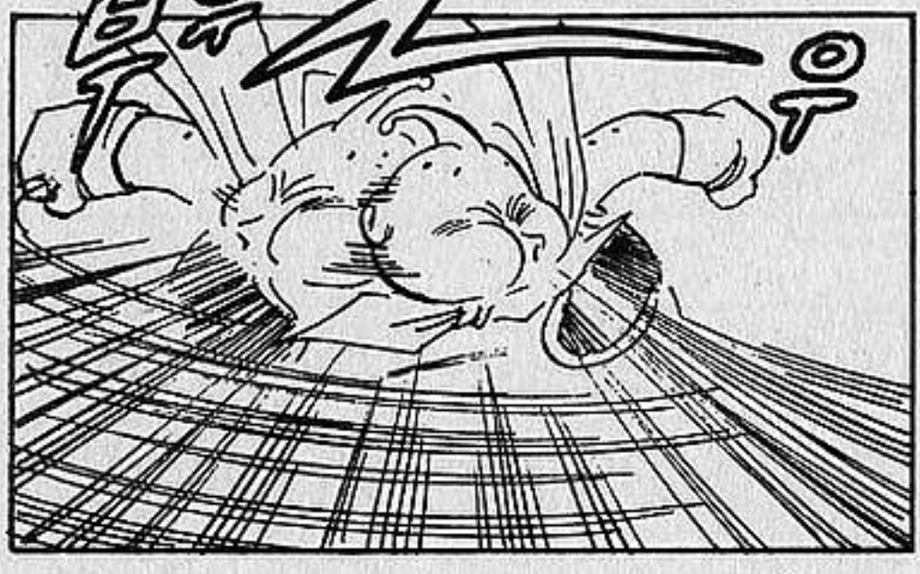

꺄악!!
마, 마인 부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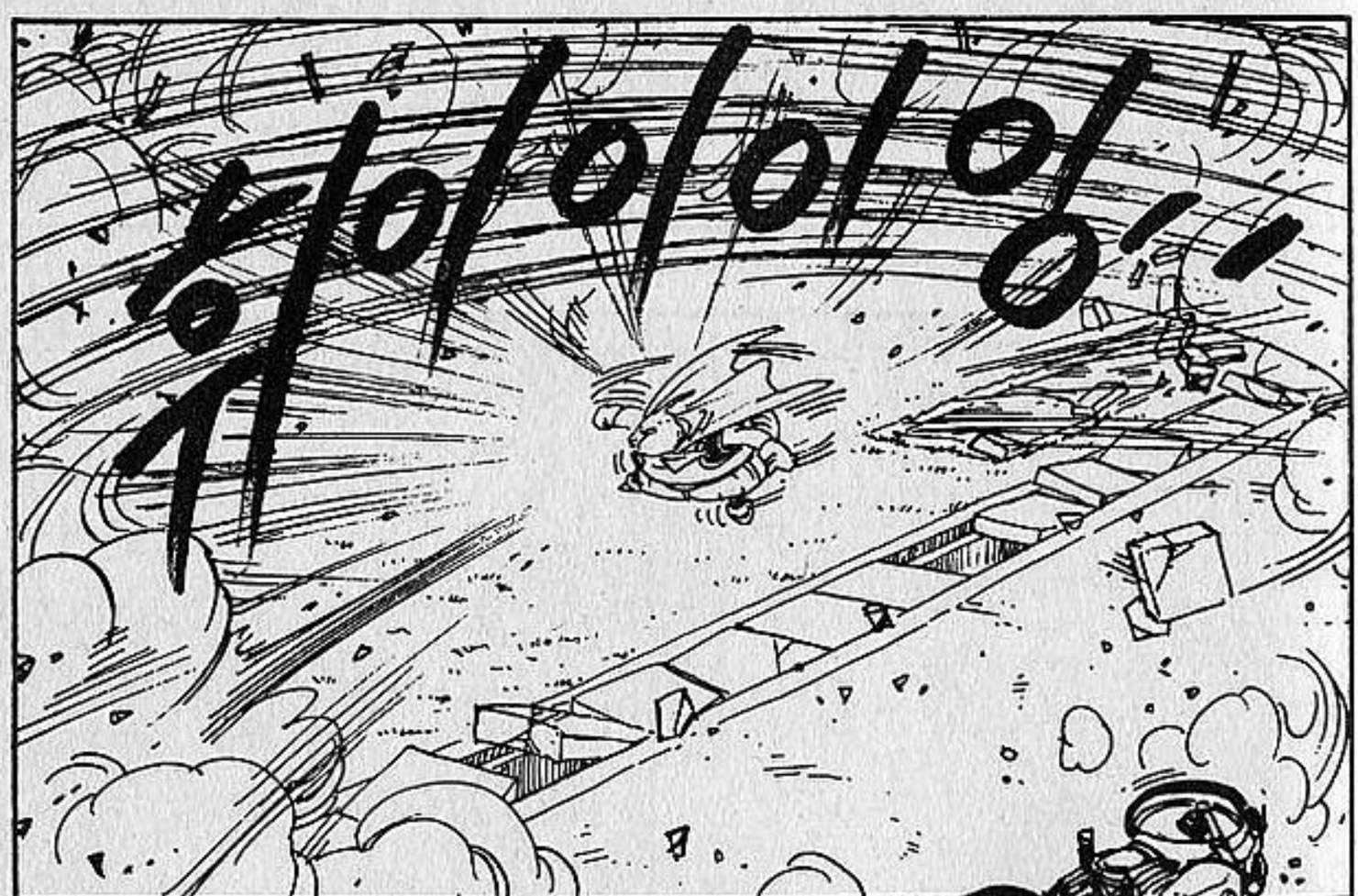
여기다 집을 만들고….
낮잠이나 자볼까—.
와—
약
꺅—
꺼각…!!
꺼이이악
웬 모기소리….
조용히 좀 못해?
꺅—
꺅—
꺅—
꺅악—
생물들은 모여라!
와악
왁—
꺄아악ㄱ
요—악
왕왕
우선 이것들을 진흙으로 만들고!
삐리리릭
헤헤~!


파닥
파닥
파닥


휘익


헙


다음엔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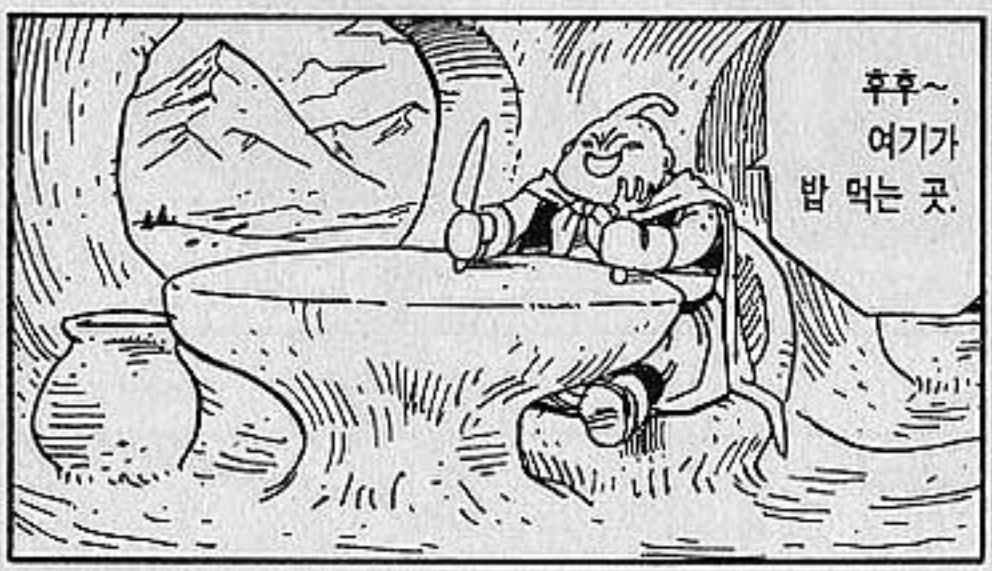

아아아아!!


헤헤헤…
찌익
터억
그럼!
써걱 써걱
써걱 써걱
써걱 써걱
써걱 써걱
써걱 써걱
써걱 써걱

헤헤~!

완성!!













이건 침대!
쿨ㅡ
쿨ㅡ
벌떡
끄~응.
5초 정도 잤나?
이제ㅡ!
사람 찾아 가보자.
휘이이ㅡ…잉
안 돼, 안 돼!
둘 다 더 빨리 움직여!
오천! 손을 좀 더 위로!
트랭크스! 발을 좀 더 안쪽으로!

이제 저승으로 돌아가자.

오공…, 시간 다 됐다.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수행이란 게 양둔근 개다리춤인가?

저… 저거 뭐야?

저 녀석들 실력이라면 내일 중으로 퓨전은 완성될 거야.

피콜로, 미안하지만 뒤를 부탁한다.

알았어.

응, 알았어!

그래…

하… 하지만 만일 오천까지 마인 부우에게 죽으면….

찌찌…, 너무 슬퍼 마. 당신에겐 아직 오천이 있잖아.

오공,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안녕, 손오공!

모처럼 왔는데 쉬지도 못하고 가는구나.

걱정 마. 지금 수행하는 기술만 완성되면 부우 따위는 한주먹 거리도 안 되니까….


난…, 오반이 아직 살아있을 것 같아요….
저….
FIGHT


으….
저승에서 오반을 만나면 안부 전해줄게.


하지만 아직 살아 있다면 좋겠는걸.


우린 기라는 걸 통해 그걸 알지….
네 기분은 알겠지만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뭐? 어떻게?
아니…, 그냥 느낌이 그래요….


저….
저….


가자, 오공.
이제 시간 됐다….


예….




너, 아빠한테 안겨보고 싶은 거지?
알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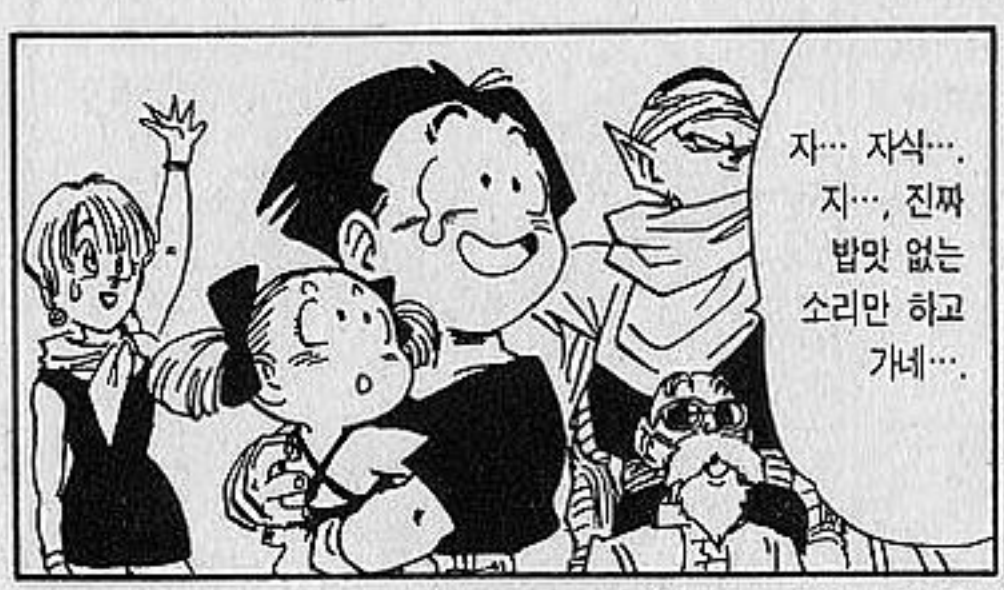

…,
왜, 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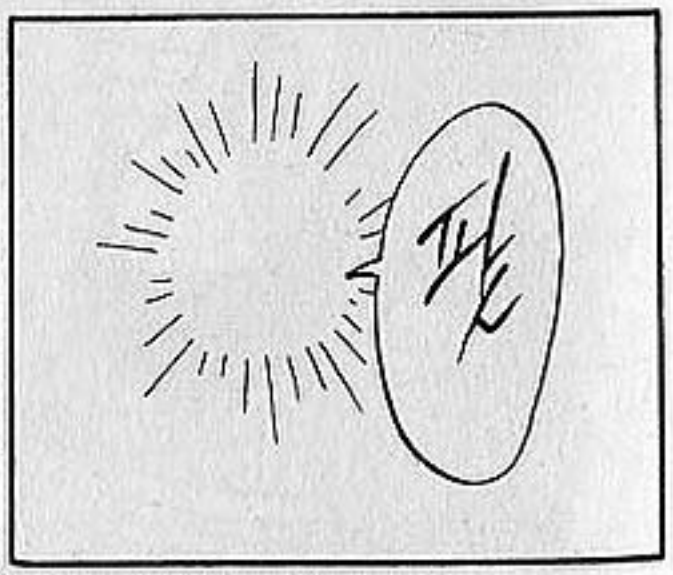












다음은, 제478화 손오반의 행방


그 동안 고마웠어, 할머니!
응!
됐다, 오공! 이젠 혼자 갈 수 있지?
WELCOME


먼저 실례해요!
미안!
아, 당신…!


터억


빌어먹을…. 너무 비싸서 죽겠다구.
대체 지구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저기 죽은 사람의 숫자 좀 봐.


왜 이리 일찍 돌아 왔니…?
어, 손오공 이구나!
저, 염라대왕. 좀 물어볼 게 있는데….

그 녀석이 내 아들인데.

그건 그렇고, 지구인이 이렇게 많이 오기 전에 손오반이란 애가 혹시 먼저 오지 않았니?

뭐!?

응.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 잘못하면 지구인 전체가 여기 올지도 모르겠는걸.

그런데 말야, 좀 전에 엄청난 물건이 하나 들어왔어! 악마계의 왕 데브라란 놈인데, 그놈이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걸…. 지옥으로 보내면 오히려 좋아할 것 같아서 일부러 천국으로 보내버렸지!

그럼 안 죽은 거네!

아니, 없는걸. 네 자식이라면 금방 알아볼 텐데….

손….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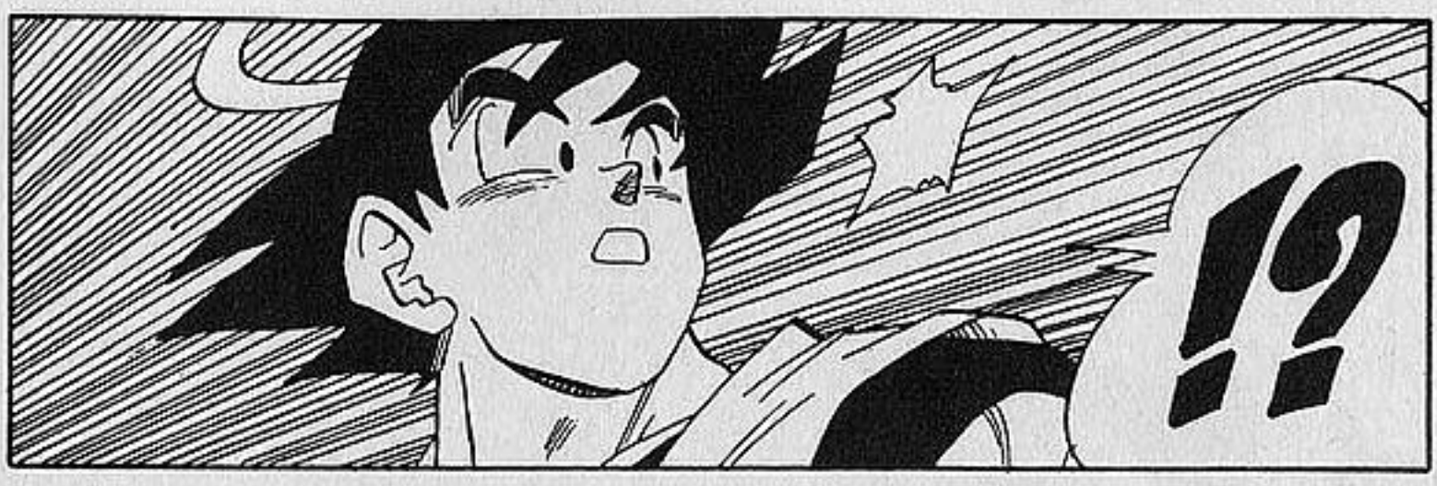
그런데…, 오반의 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오반은 어딘가에 살아있어!

비델이란 여자애의 예감이 맞았네! 정말 캡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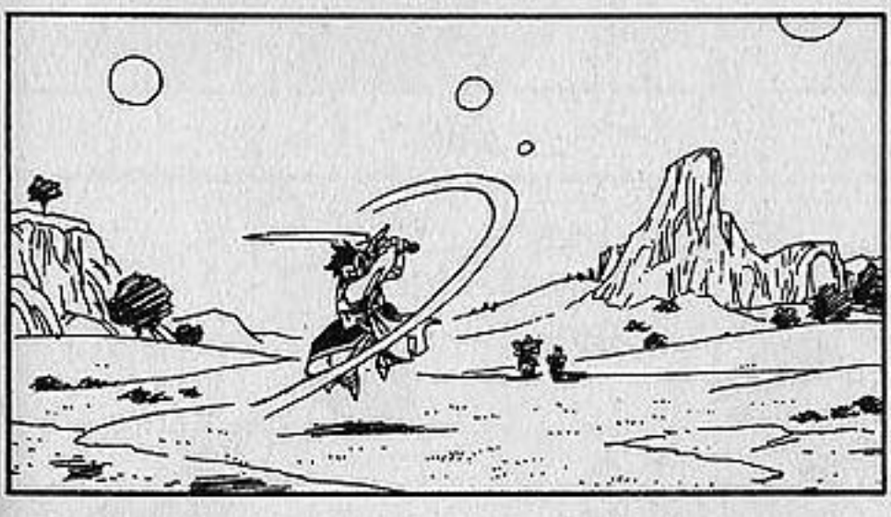
그랬니? 고맙다!

안녕!


!?


어라?
어디지…?
여기도, 계왕계도
아닌데….
대체….
어…
어떻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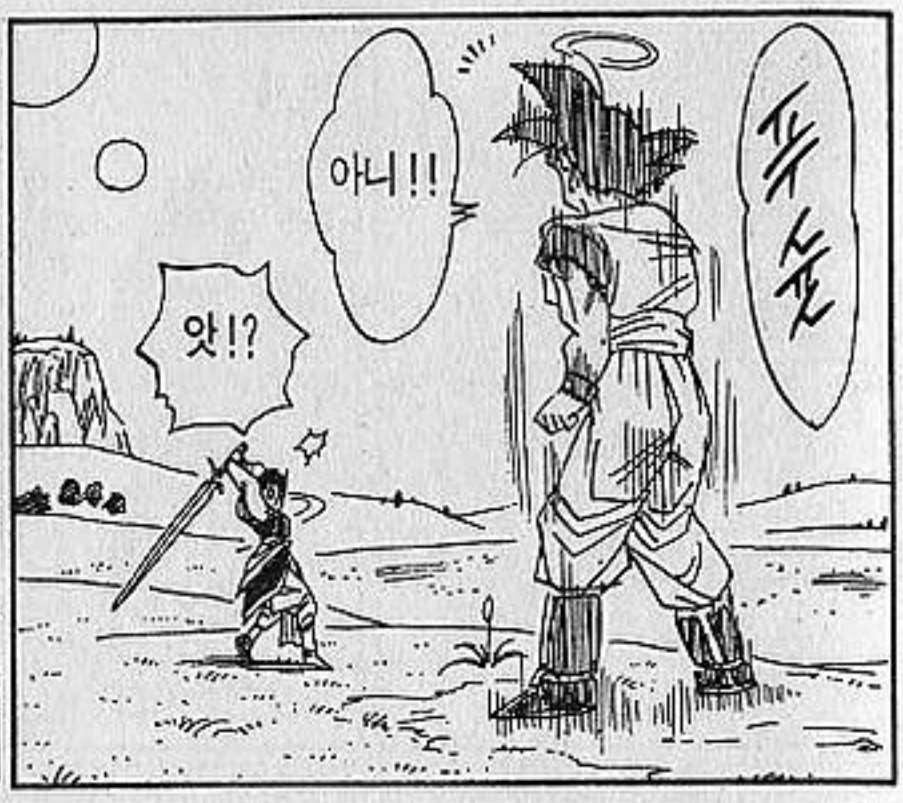

이… 이건
오반…!?
그래,
오반의
기야!!




좋아…!
휘슈슈


하
아아
하
아아


윽!?
앗!


앗!?
아니!!
뭣 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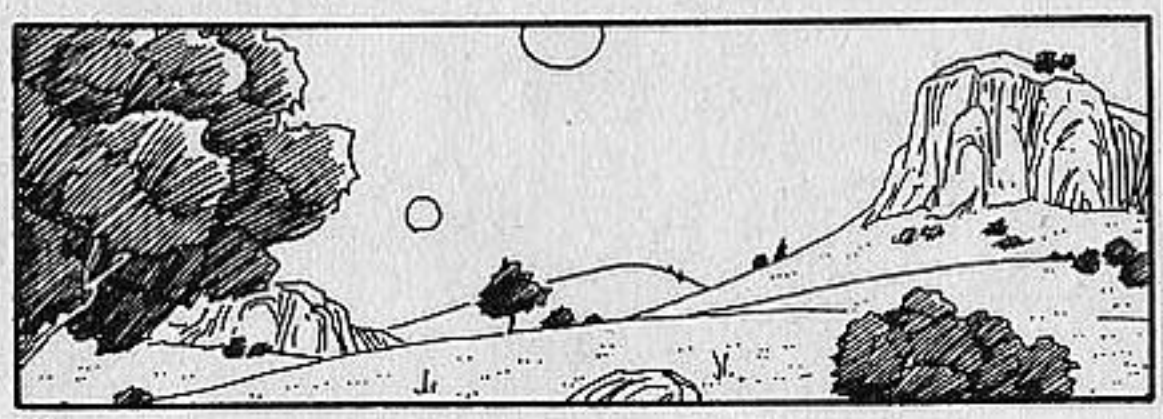

어라!? 계왕신님…!
게, 게다가 죽은 줄 알았던 저 아저씨까지…!


그… 그 꼴은….
대… 대체 너 어찌 된 거니?


아, 아버지!!


그건….
아직 24시간이 안 지났잖아…?
아버지야말로 어떻게 여길….


이… 이 성역에 또 다시 인간이….
럴수 럴수 이럴 수가…!



히야~! 진짜네.
엄청 무거워!

아, 예!
그 검 좀 빌려줘봐.

그랬구나…. 마인 부우가 그렇게 지구를 엉망으로….

저, 계왕신님. 오반이 마인 부우와 싸울 때까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
아… 예… 예…

웅 웅 부 웅
흐음~! 대단한데!
이 검이 굉장한 파워를 준단 말이지?

그럼 미안하지만, 뭐든 먹을 것 좀 빨리 줘!
계왕신님이라면 분명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겠지?

그… 그럼 오반도 잠깐 쉬고 할까요…?
……

근데, 초사이어인 3(스리)란 게 진짜 대단한 거네….
그래.
밥 먹고 나서 보여줄게.

그리고
하루가
지나려하고
있었다….

하아아암…

끄~응!

세수하고
밥 먹은 다음
바로
특별훈련
계속이다!

그만 일어나,
이
잠탱이들아!

퓨~!

전!

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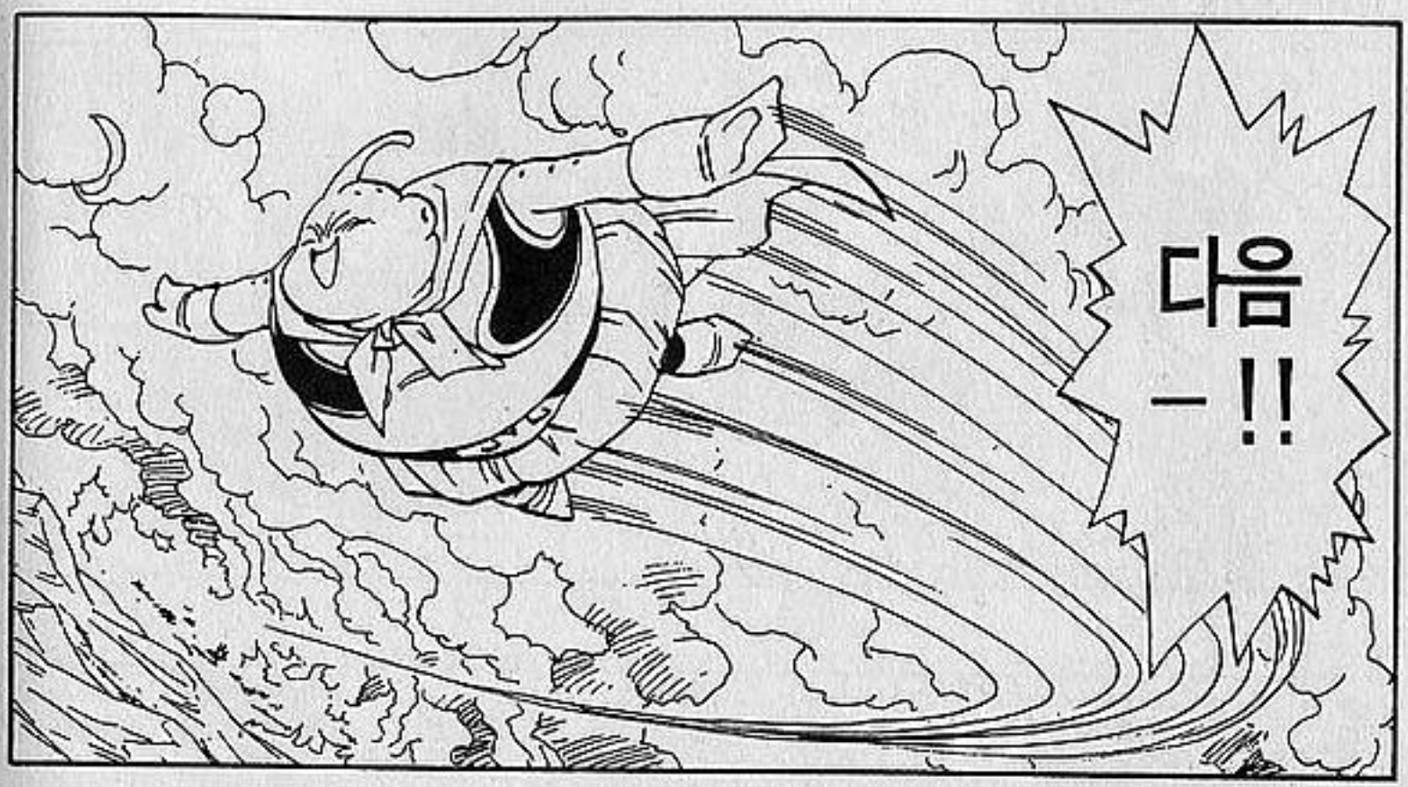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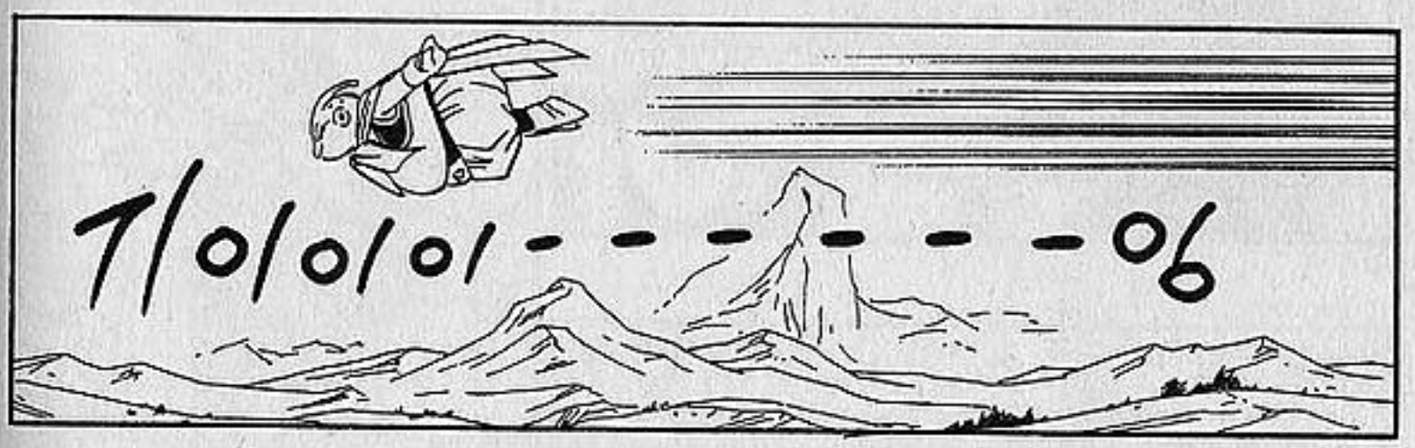
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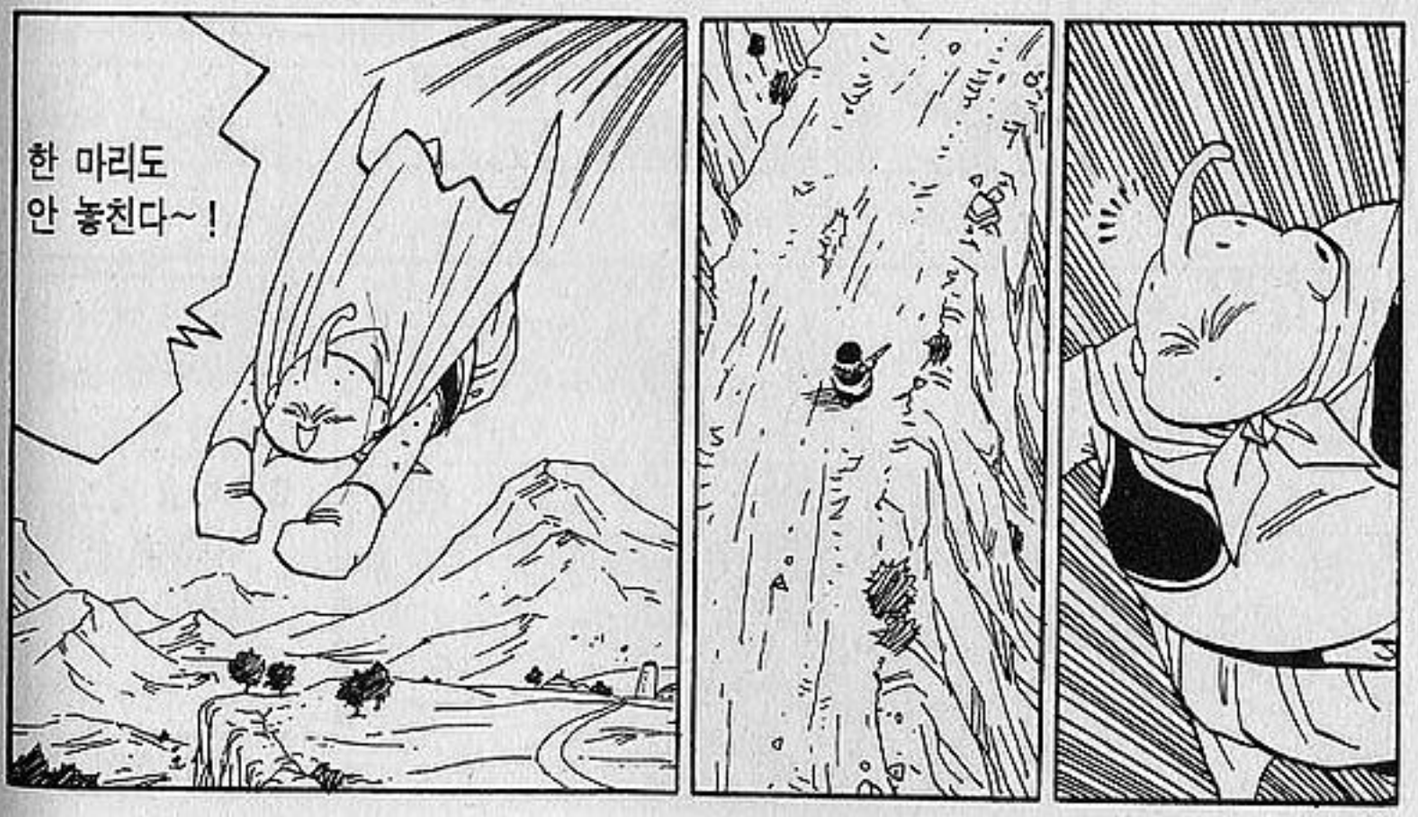
야!
앞으로 하루 안에
퓨전을 완벽하게
익혀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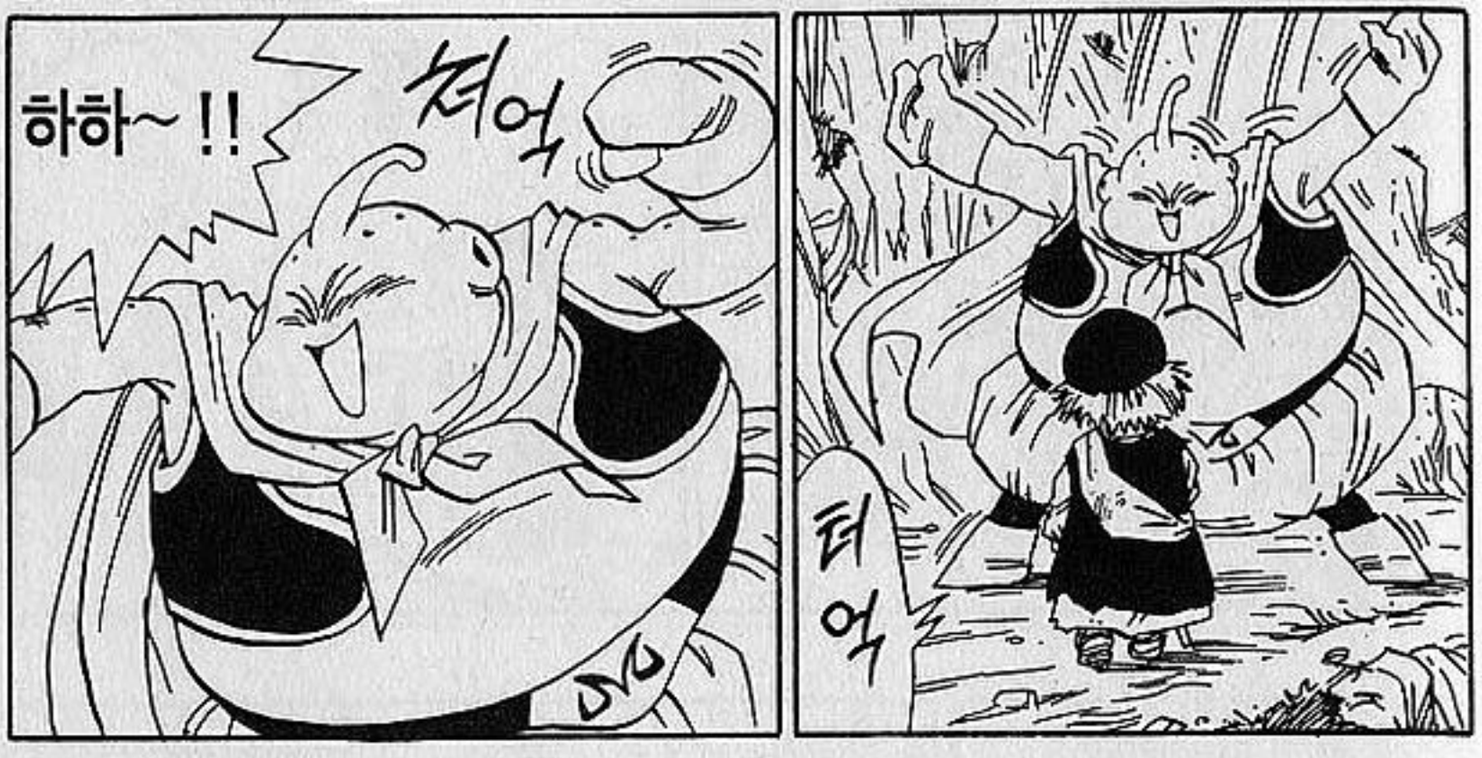
야호
~!!

지상에선 이미
마인 부우에 의해
도시와 인류가
3분의 2 정도
사라져
버렸다….


다음
—!!


끼이이이-----06


한 마리도
안 놓친다~!


하하~!!
쳐억
터억


난….
보고도 모르나?
누구니?
아…, 안녕!


그래서 겁을 상실했군!
그래?
좋아!
눈을 떠도 안 보여.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멍청한 녀석! 눈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지. 좀 떠봐!
태어날 때부터 이랬다구.
누굴까? 혹시 원빈?
나는 눈이 안 보여.

아….
어….
무, 무슨 짓이야!?
바보—! 이제 눈 떠봐!
철썩
어!?
보, 보인다! 보여!!
눈이…, 눈이 보여!!
자, 이제 날 봐!
흐홈!
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저씨!
암마, 내 모습 짱이지 않나?
뭐?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에 그런 거 안 붙어있는데.
아저씬 외국인이지?
왜 안 쪼는 거지?
? ?
멋지다, 멋져!
헤헤~!
내 눈을 마법으로 고쳐줬으니!
글쎄~. 잘 모르겠지만, 꽤 멋져!


맛 없어.
빠득·


돈?
그렇지!
감사의 표시로
돈을 줄게!
우유 살 돈인데,
가게가 전부
닫혀서 못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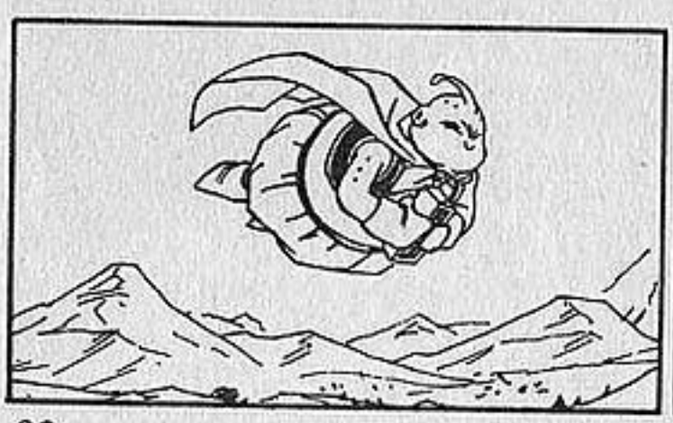

외국사람은
하늘도
나는구나…!
캐…,
캡이다.


팟
앗!


빠지직
우유가
돼라!!


마…
마인
부우…!!


응?
터억



우유가 더 맛있다구!

돈은 맛이 없어.

MILK

이걸 먹어.

어이!

퍼억

어!

아니…, 저….

고마워…!!

워이이이잉

쳐억

스르르르

핫!!

우와~! 죽인다, 죽여! 단 하룻만에 그 정도까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니!

짝짝짝!

정말 훌륭해요!

헤헤…

근데, 그 제트 스워드란 거 엄청 잘 들겠지….

어때, 잠깐 시험해 볼래?

좋지.

우선 이 바위!

……

min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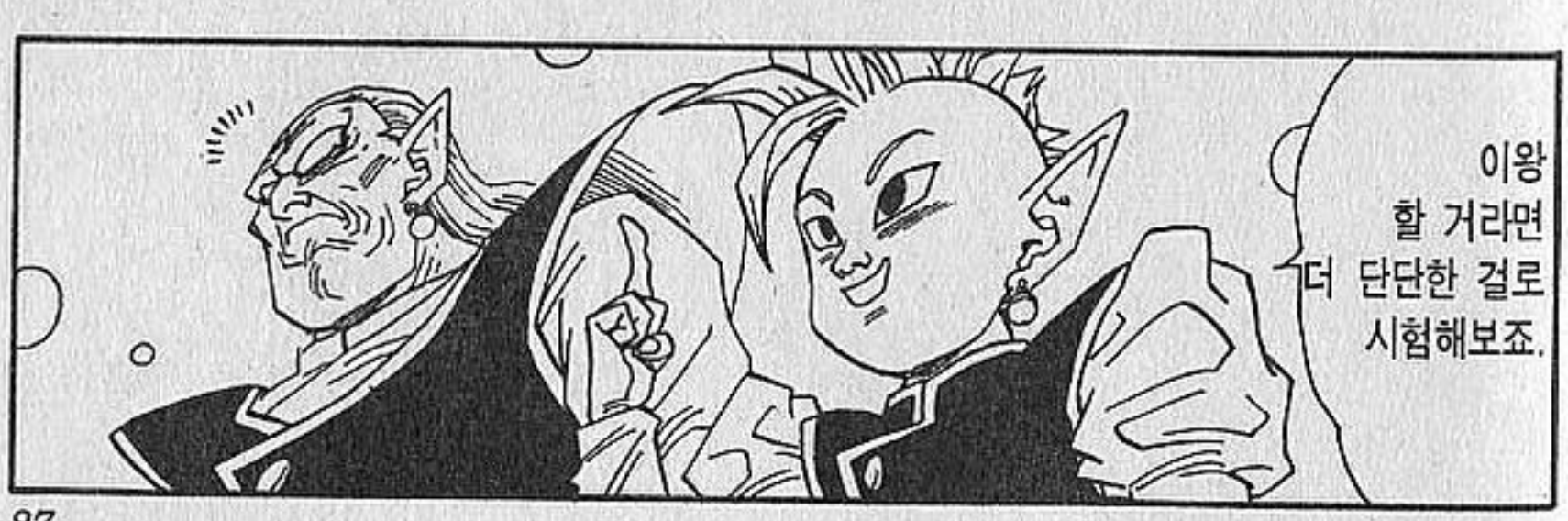
제479화

제트 스워드와 또 한 명의 계왕신









오공, 이걸!

얍!

휘익…

뚝 또뚝

우와~! 단단해네.

우주에서 가장 강하다는 금속인 딴딴철이란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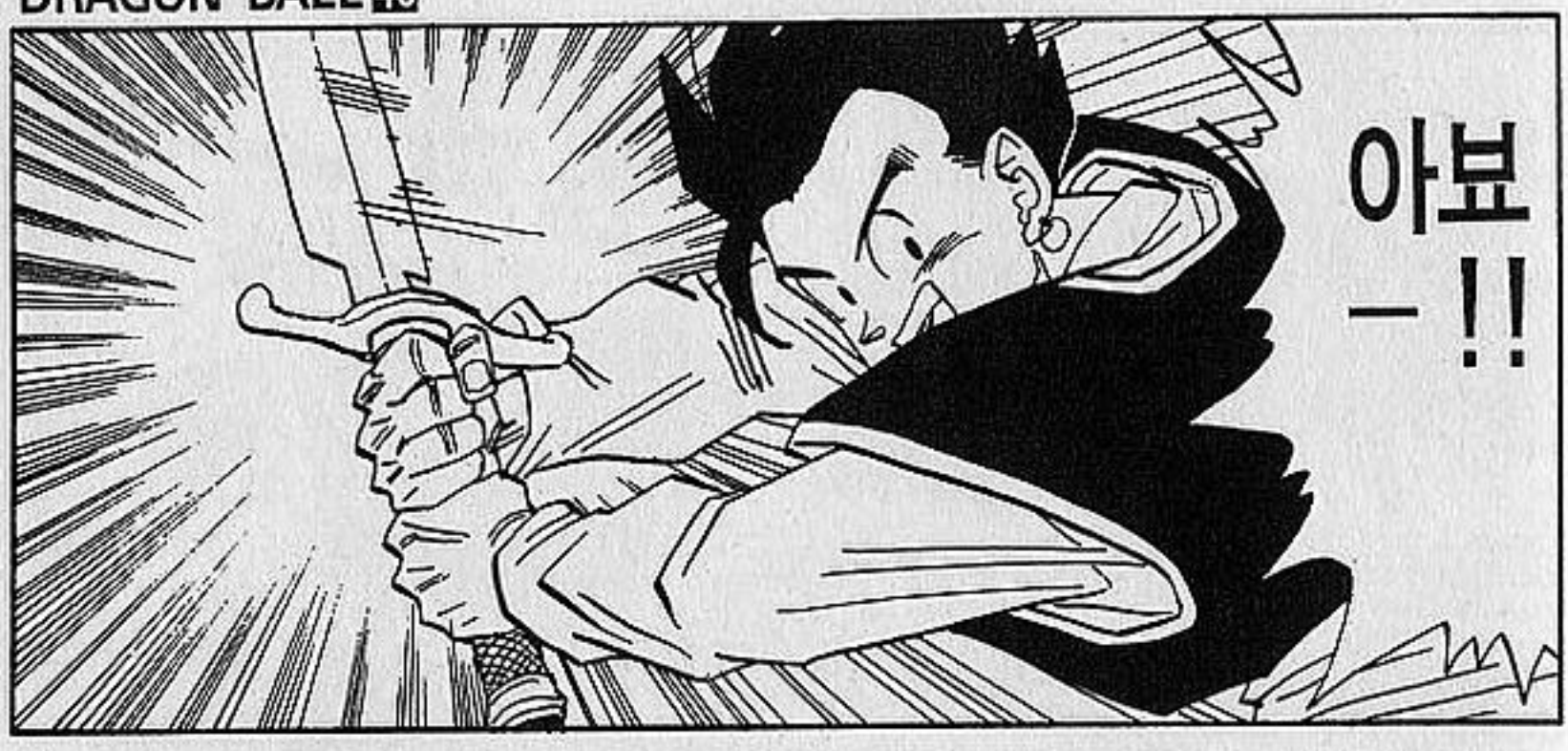
어차피 할 거면 그걸로 한 번 시험해 봐요.

하하! 그거 잘 됐다.

좋다!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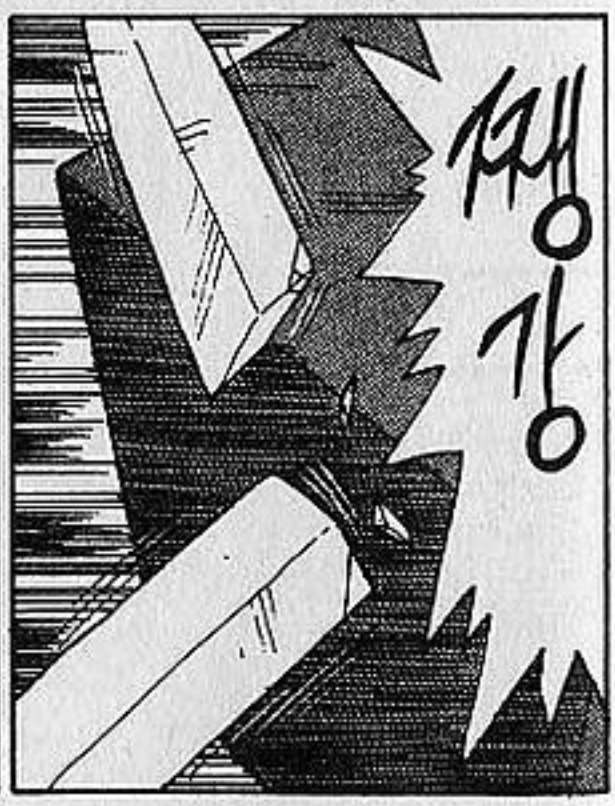
예!

에잇!!


아뵤
— !!






퍼엉
강



꽈다ㅡ…당
털썩
!!
세상에 나….
말도 안 돼….
기냥 두 동강이 났네….
이… 이… 이럴 수가…! 제… 제… 제트 스워드가….
최… 최… 최강의 검이…!
난 몰라~. 계왕신님이 저런 단단한 걸로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하… 하지만 그걸 손에 넣는 자는 세계 최강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이 성역의 전설의 검입니다요….

무거운 제트 스워드를 들고 연습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덕분에 힘은 상당히 세졌어요.

혹시 이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힘을 얻는다는 걸지도 모르죠.

그 전설이란 게 완전 뻥이었군….

제길….

쿠웅

마인 부우를 능가할지는 좀….

하지만….

그래, 맞아요! 분명 그게 세계 최고의 힘….

그… 그렇구나…. 보통 상태에서 그 정도까지 파워가 붙는다면, 초사이어인 상태에선 더욱 커다란 파워업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감짝

착각도 자유셔~다!

헤헤~!

……?

저 할아버진 누구지…?

어라…?

15대…, 이전…!?

억…!?

계왕신 님…!?

계….

난 너의….

15대 이전의 계왕신이라네~!

내가 가진 힘을 두려워한 놈의 짓이었지~.

그렇다네~. 아주 먼 호랑이 담배 피우던 옛날옛날에 엄청나게 강하고 나쁜 놈이 있었지~. 뭐, 지금의 부우 정도는 아니지만~. 그 녀석 때문에 내가 저 검 안에 봉인 당했던 거야~, 이거.

별로 대단한 활배 같진 않은데….

그래, 맞아….

에헴! 에헴!

……

겨우 탈출했네.

예….

샤악

시험해 볼까?

잠깐….

엑…!? 그…, 글쎄….

익!?

앗!

뻐엉

으악!!

!!

서…, 선조 어르신!

괘, 괜찮으셔요…?

노인네 죽는 꼴 보고 싶냐! 오줌쌀 뻔 했잖아!!

이… 이 버릇없는 짜샤!!

내가 가진 가공할 「능력」이라구!

저…, 적이 무서워한 건 나의 힘이 아냐…!

역시…, 그냥 허풍쟁이 할배였어….

너 죽고 나 살자!

저게 감히 제왕신한테!

……

내가 가르쳐줄 줄 알고~!

메롱 메롱!

뽕이다~!

에!? 가… 가공할 능력이라니…?

고딴 책 안 봐도 난 신의 눈이기 때문에 목욕하는 거나 옷 갈아입는 걸 볼 수 있지롱~.

흥!

오, 오공! 무슨 소리들….

나중에 죽이는 여자 사진 보여줄게. 가르쳐줘.

아,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소리를 해?

뭡론 진짜지!

역시 무천도사랑 같은 족속이야.

저…, 정말이야? 진짜지!?

!!

그럼 나중에 진짜 여자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게 해줄게.

그럼 부르마로 하자. 네가 부르마한테 부탁 좀 해봐라.

엑!

으음…. 그냥 섹시하기만 하면 돼.

이거 큰일이네…. 그럼 약간 나이 먹은 여자라도 괜찮아…?

무, 무슨 농담을!

지금 뭔 소리 하는겨!

난 이제 하계에는 못내려 가니까….

네 애인인 비델이란 애 걸 만져보게 해줘라.

장담은 못하지만 먹히기는 할 거야~!

그 「능력」이란 걸로 마인 부우한테 이길 수 있어?

부르마 아줌마보고 그런 걸 부탁 하라고!?

나, 나한테….

계약 끝!

좋아, 하자!

그… 그걸 나보고 부탁 하라고….

그… 그건 성희롱 이잖아….

우주는 살아도 난 부르마 아줌마한테 죽어….

거 봐! 엉덩이랑 가슴만 만지게 해주면 우주를 구할 수 있잖아.

우헤헤…! 이런 능력 들어본 적 있어?

나는 초능력을 이용해서 말이지. 아무리 엄청난 달인이라도,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숨겨진 파워를 계속 그 한계 이상으로 끌어낼 수가 있다네~!

우와—!!

뭔가 했더니…. 아주 흔한 능력이잖아…!!

무, 무슨 헛소리야…! 한계 이상이라구, 한계 이상!

나같이 대단한 사람은 절대 없지롱!

어이, 저 검을 뽑아낸 게 거기 있는 너지?

잠깐 이리 와.

저 검을 뽑아서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는 자라면 내 생각엔 우주의 캡짱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검을 빼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자는 계왕신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구인이었다니~. 말세다, 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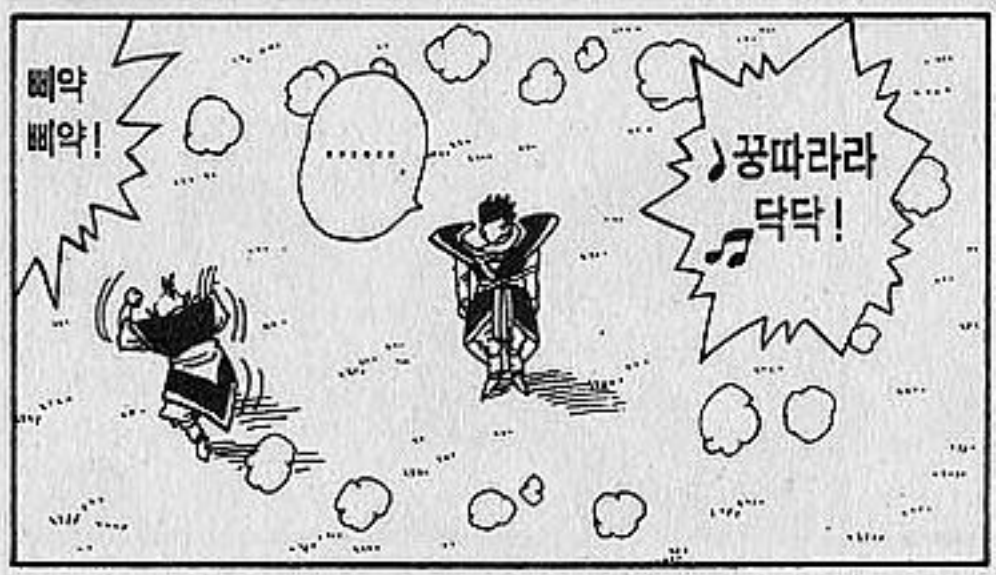
정말….

죄송합니다….


두근
두근
예,
예….
너무
움직이면
안 돼~.
좋아!
거기
서라!


꿀꺽


마인
부우를
해치우고
와라!!
자,
간다!


삐약
삐약!
……
♪꿍따라라
닥닥!


밤바라
밤바!
빠방!
빠방!


뽕짝
뽕짝!
♪아라초!
아라치!



빵빠 라빵!
오예예!
……
입 닥쳐! 이건 중요한 의식이야!
그건….
저… 저….
의식에 5시간, 파워업에 20시간!
엑!?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저… 저기…. 그게….
꿍딱! 꿍딱!
으싹! 으쓱!
우… 우린 역시 저 고참 때문에 깨어있어야겠지?
쿨
쿨
그… 그렇죠….
세상에 …
이런….
열심히 해, 오반!
나…, 난 낮잠 좀 자고 올게.
괴로워….
정말….
오와 오와♪
아쟈! 아쟈! ♬
♪아뵤-!

전!!

퓨….

이앗!!

이제 거의 완벽해!

그래, 좋다!

그럼 슬슬 퓨전이 가능한가를 시험해봐도 되겠지….

자…, 둘의 기를 똑같이 맞춰라.

예, 예!

자…. 진짜 애랑 합체하는 게 가능할까…? 믿을 수 없어…. 이상해….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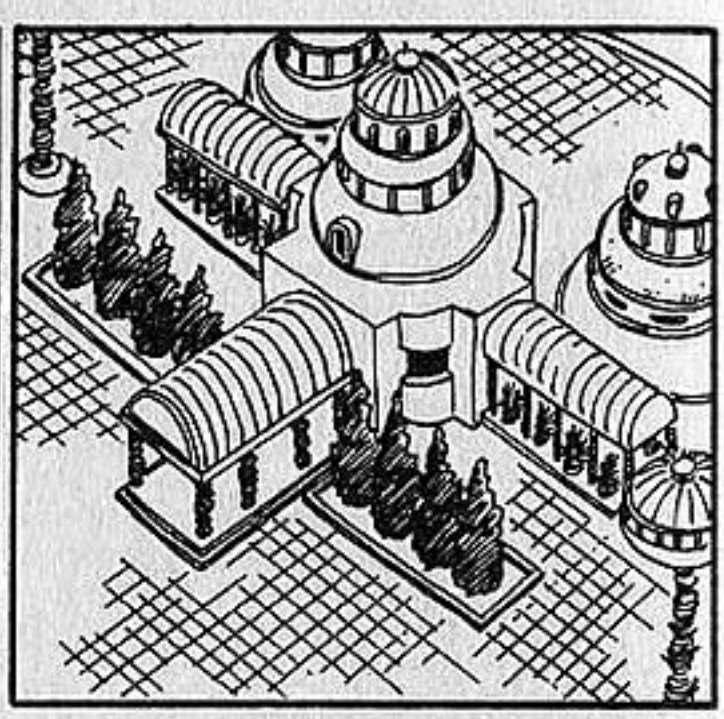
시작!!


빰빠라
빰—빠!
쿵짝
쿵짝
쿵—짜작!

제480화

드디어 완성된 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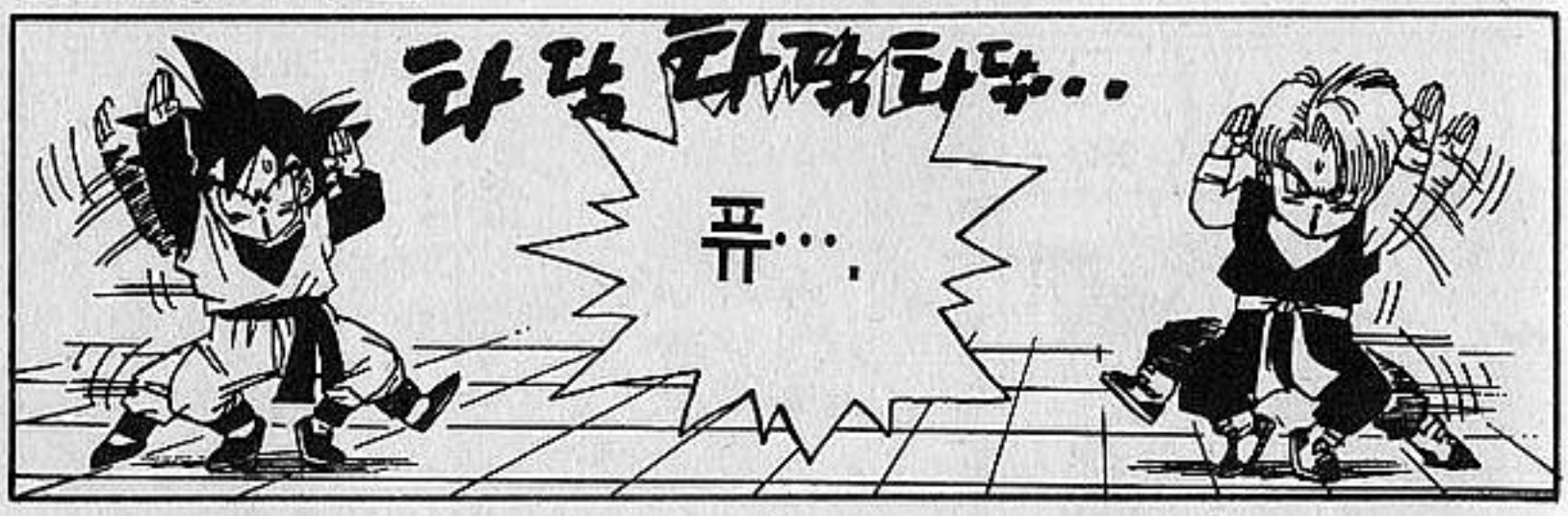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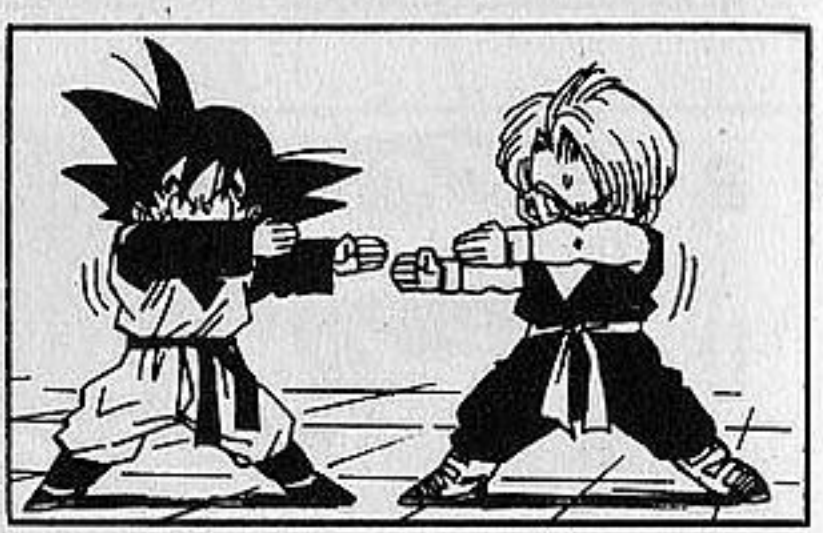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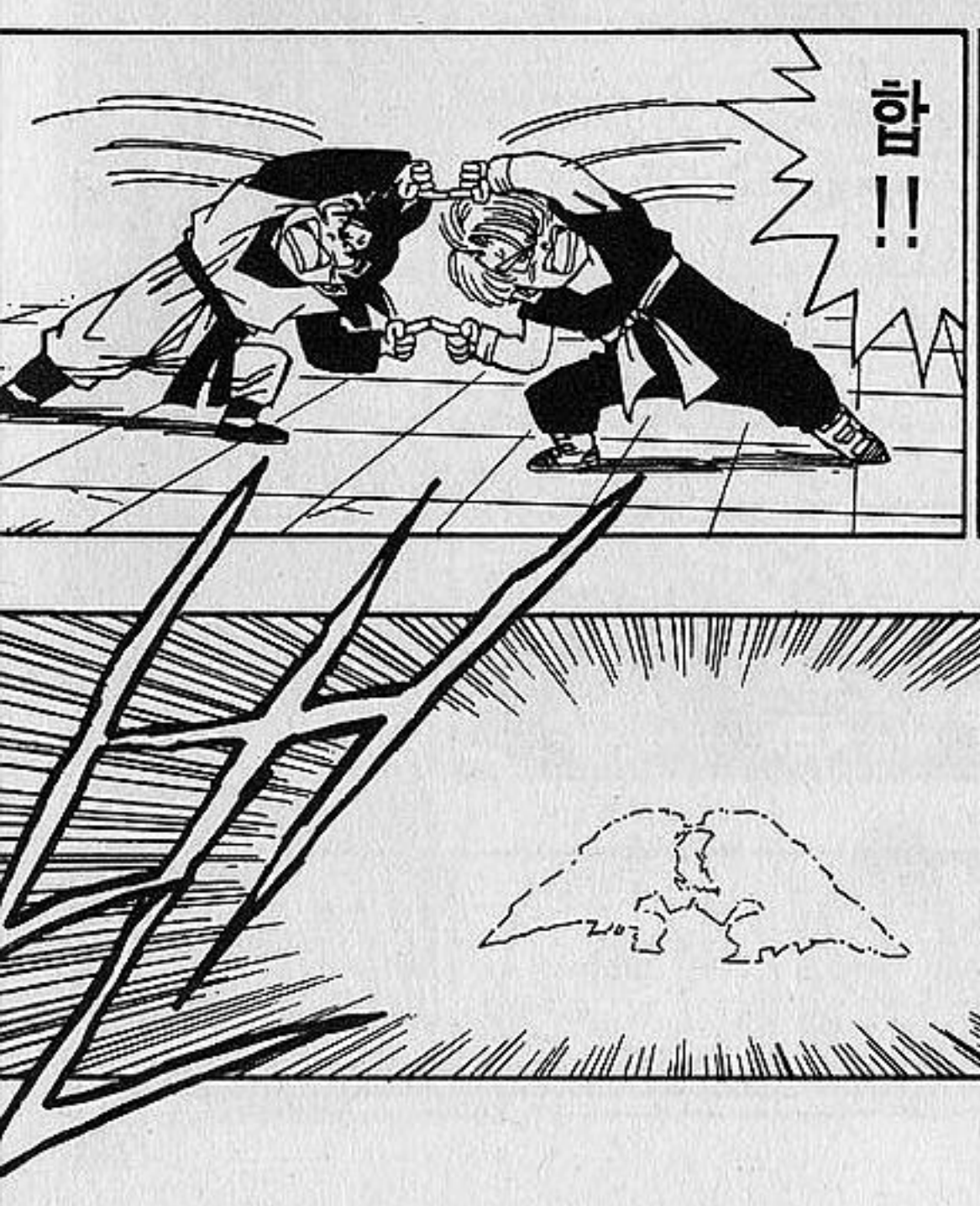



오천과 트랭크스 니까….
오천크스…, 아니면 트랭천…?
싫다~! 어느 쪽도 별로 우아한 이름이 아니잖아….
쓸데없는 걱정 마! 합체한다고 해도 겨우 30분 정도니까 이름 따윈 없어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부를 때 곤란 하잖아!
됐어…! 둘의 기가 완전히 똑같아졌다!
퓨전을 시작해라!
와! 이제 시작이다, 시작!


타닥 타닥타닥..
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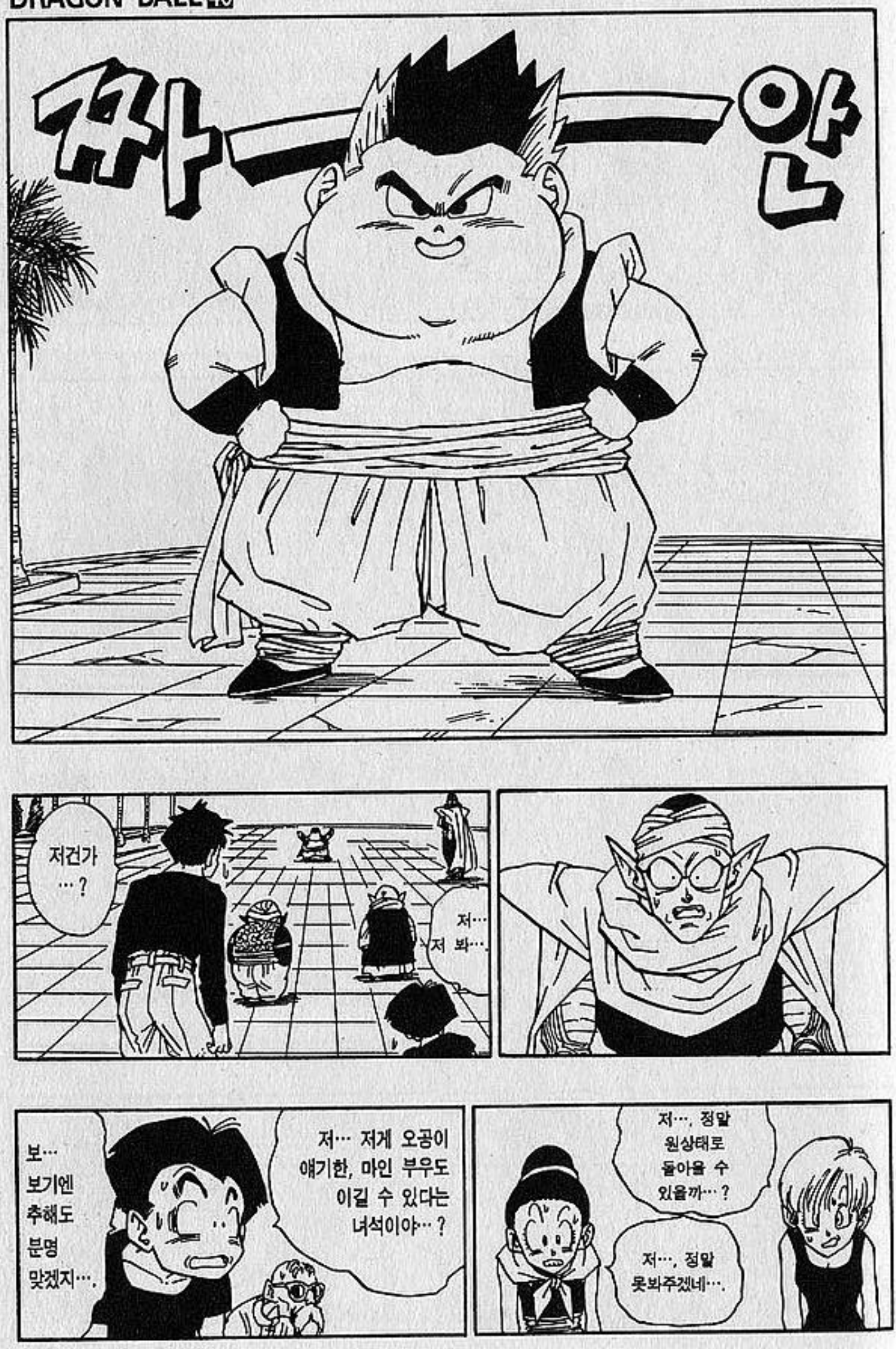

전!




합!!


깜짝!


꿀꺽…
아… 와아….
FIGHT
윽…!!
……
어머…!


짜ㅡㅡㅡ안
저건가 …?
저… 저 봐….
저…, 정말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저…, 정말 못봐주겠네….
저… 저게 오공이 얘기한, 마인 부우도 이길 수 있다는 녀석이야…?
보… 보기엔 추해도 분명 맞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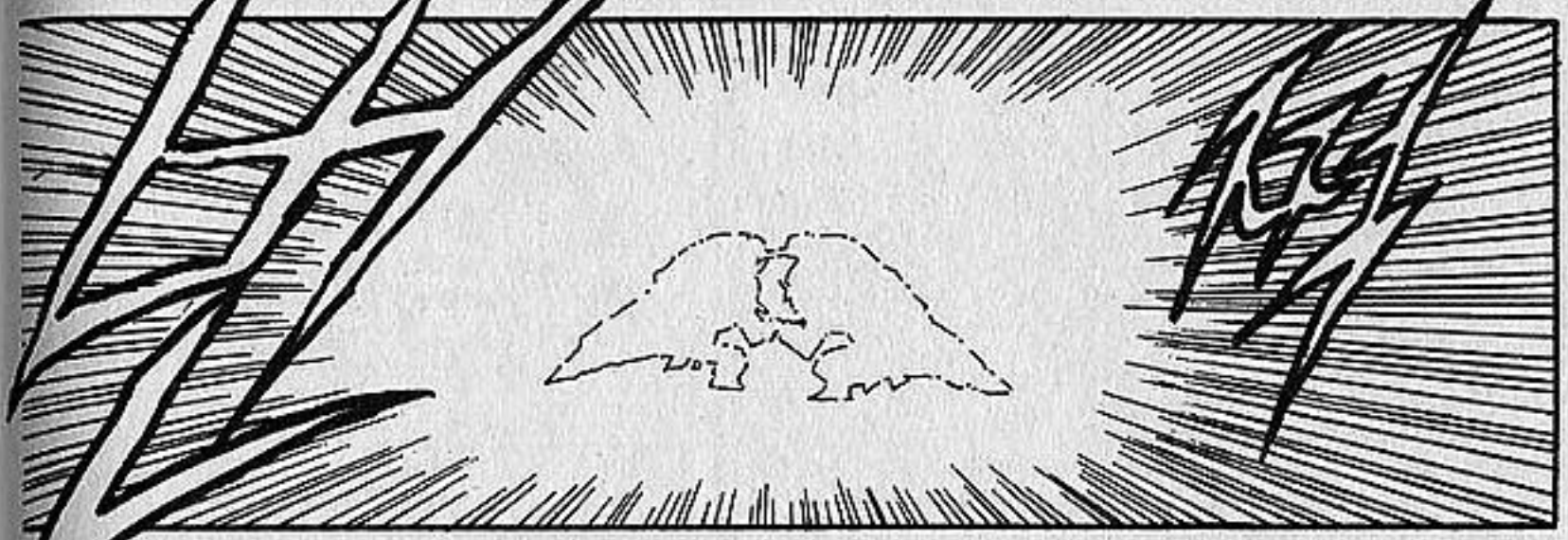
앗!
뛰기 시작했다!
훅!
훅!
뒤뚱
뒤뚱
그,
그렇지!!
눈에는 눈!
뚱띵이는
뚱띵이로
대항하는
거야!
항
앗
학
쿨럭
물럭
저…
저건
실패작
같은데
….
역시
그렇군
….
여….
놈
……
이 경우엔
주먹을 쥐고
있어야 해!
지금은 아까 전 융합 때
트랭크스의 손가락이
이미 펴져있었어.
자, 다시
한 번 해봐!
자, 빨리
원상태로
돌아가란
말야!
……
하…, 할 수
없지…. 30분
지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
뭐…!?
어떻게
되돌아
가지…?



이상한데. 넌 트랭크스도, 오천도 아니지?
이름이 뭐지?
오천 크스!
거 봐, 내 말이 맞지! 역시 오천크스야!
옷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30분 후….
앗!!
파앗
어!?
야, 합체된 느낌은 어땠니?
별로 기억이 없니?
근데, 정말 합체가 가능할 줄이야!
모두들, 수다는 싸움 끝난 다음에 떨어라.
지금은 1초도 아까울 때야.
타박타박 타박…
퓨….
전!!

아니!

합!!



또 분명 실패다….

척 보면 알겠네….

서있기도 힘든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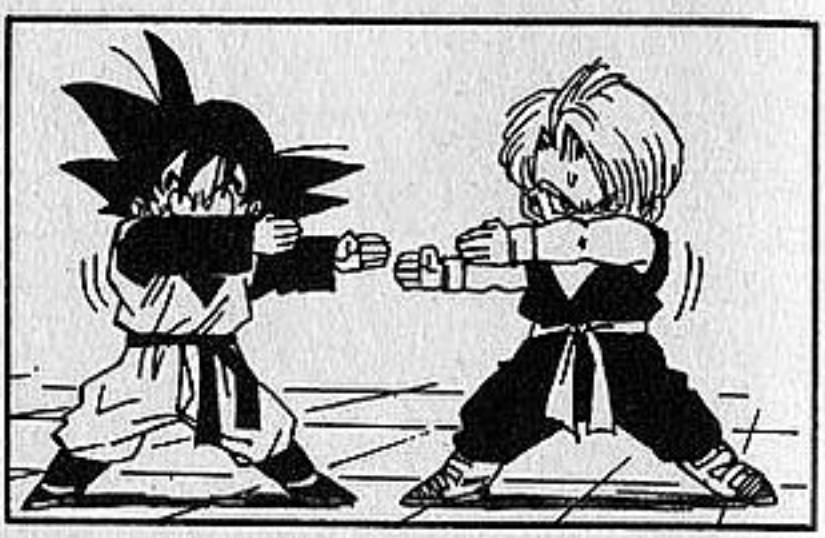
또 30분 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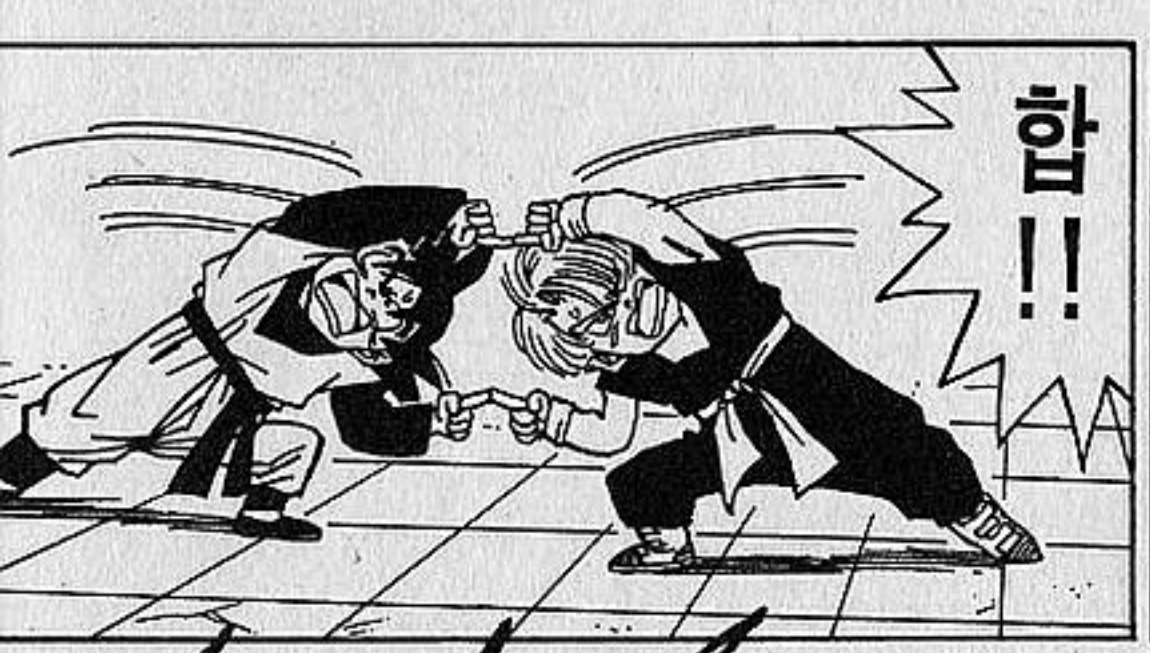
이번엔 「합!!」을 외칠 때 손가락이 약간 어긋나 있었다. 다시 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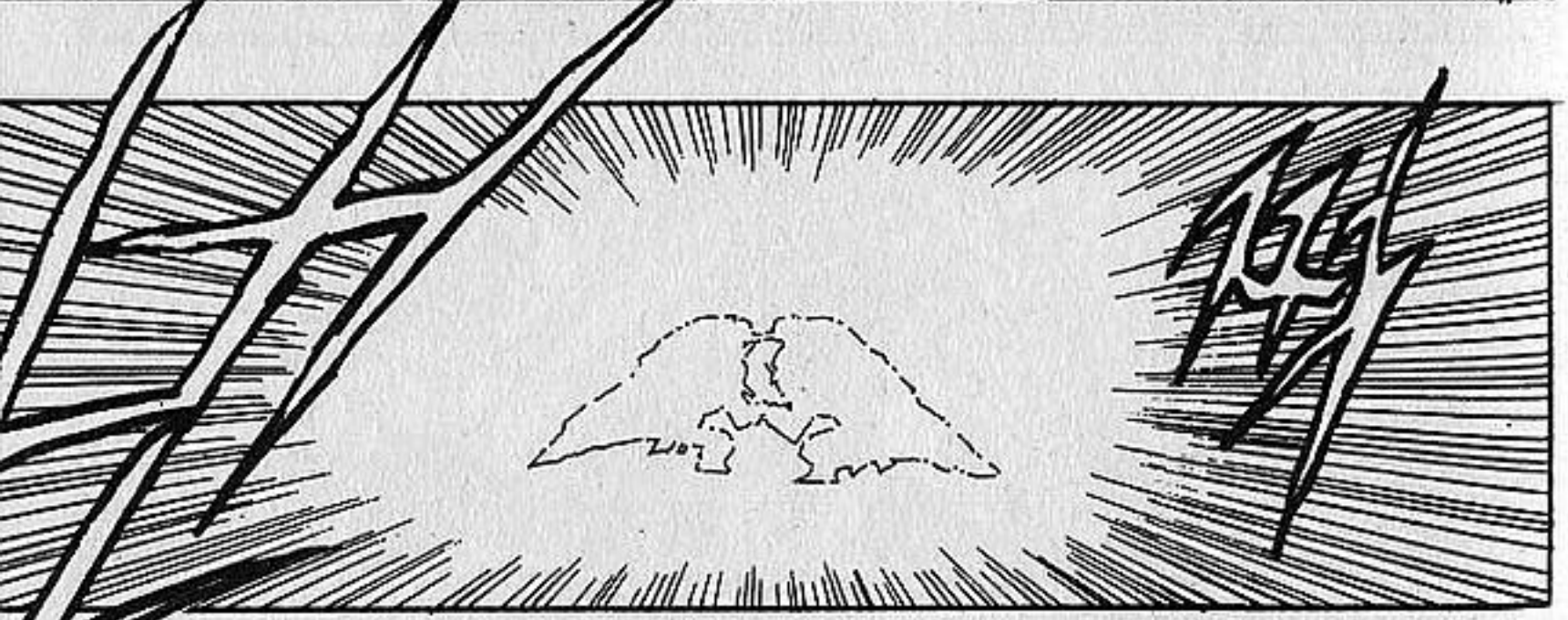

타닥타닥탁탁탁…
퓨…


전
!!




합
!!


아까부터 작가가 놀고 먹는 페이지가 상당히 많아졌잖아…! 이건 아무리 봐도 거의 복사한 장면 같은데…?
아무래도 좋지만….
저…, 편집장님….
이번 페이지 원고료는 안 받을게요 정말입니다…




따닷


우…
우왓!!


으윽!!

무… 무슨 소리예요! 대단해요…! 정말 엄청나다구요!

응. 확실히 겉보기엔 강한 느낌인걸.

흐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굉장하니?

드… 드디어 완성이야!!

어…, 엄청난 기의 태풍이다!

성공!!

헤헤헤! 날 너무 물로 보지 마!

마인 부우 없애는 건 이 상태에서도 한 주먹 거리도 안 돼!

돼…, 됐다! 이제 겨우 성공했구나.

30분 후에는 반드시 초사이어인 상태에서 성공시켜라!

좋아. 이제 곧 보여주마.

웃기지 마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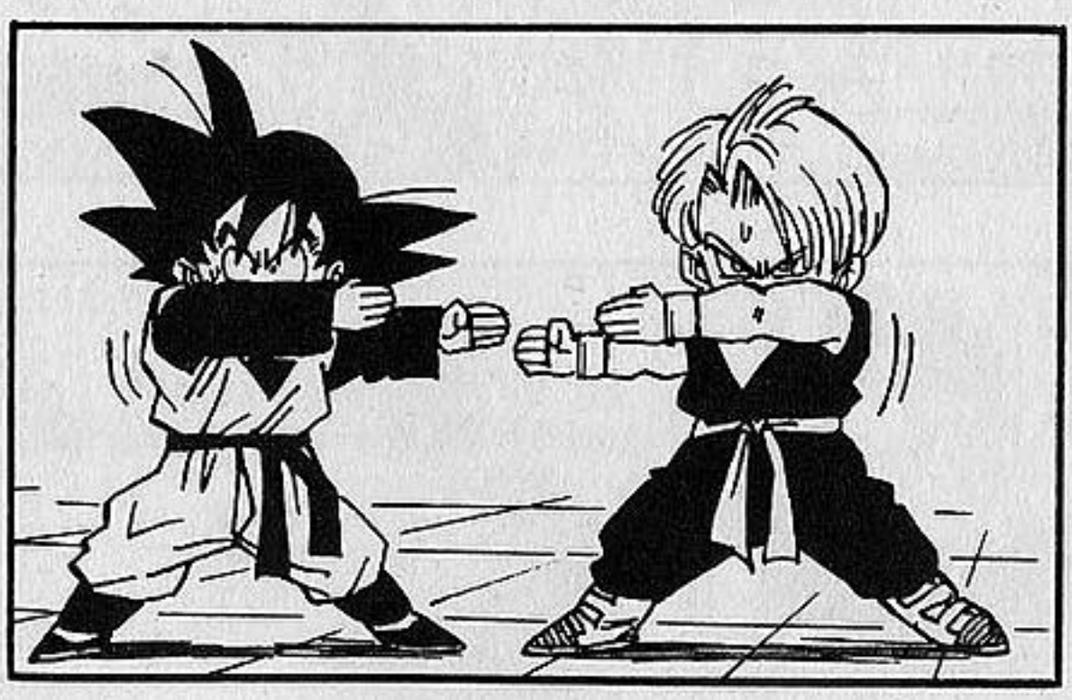
마인 부우의 시체를…!

머…, 멍청한 자식! 무슨 헛소리야? 넌 마인 부우의 위력을 전혀 몰라!!

아무리 네가 대단한 힘을 가졌다 해도, 그 정도론 아직 마인 부우에게 게임도 안 된다구!!


그게 아니라 오천크스 입니다!
이 봐, 기다려! 트랭천!!
저쪽인가….
끊
그… 그래…. 자신감 하나는 대단해 보이니까….
저… 저 녀석…. 허풍은 조금 있지만, 진짜 마인 부우를 해치울지도 모르지…!
지금 죽게 되면 모든 게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리는데….
저… 저 멍청한 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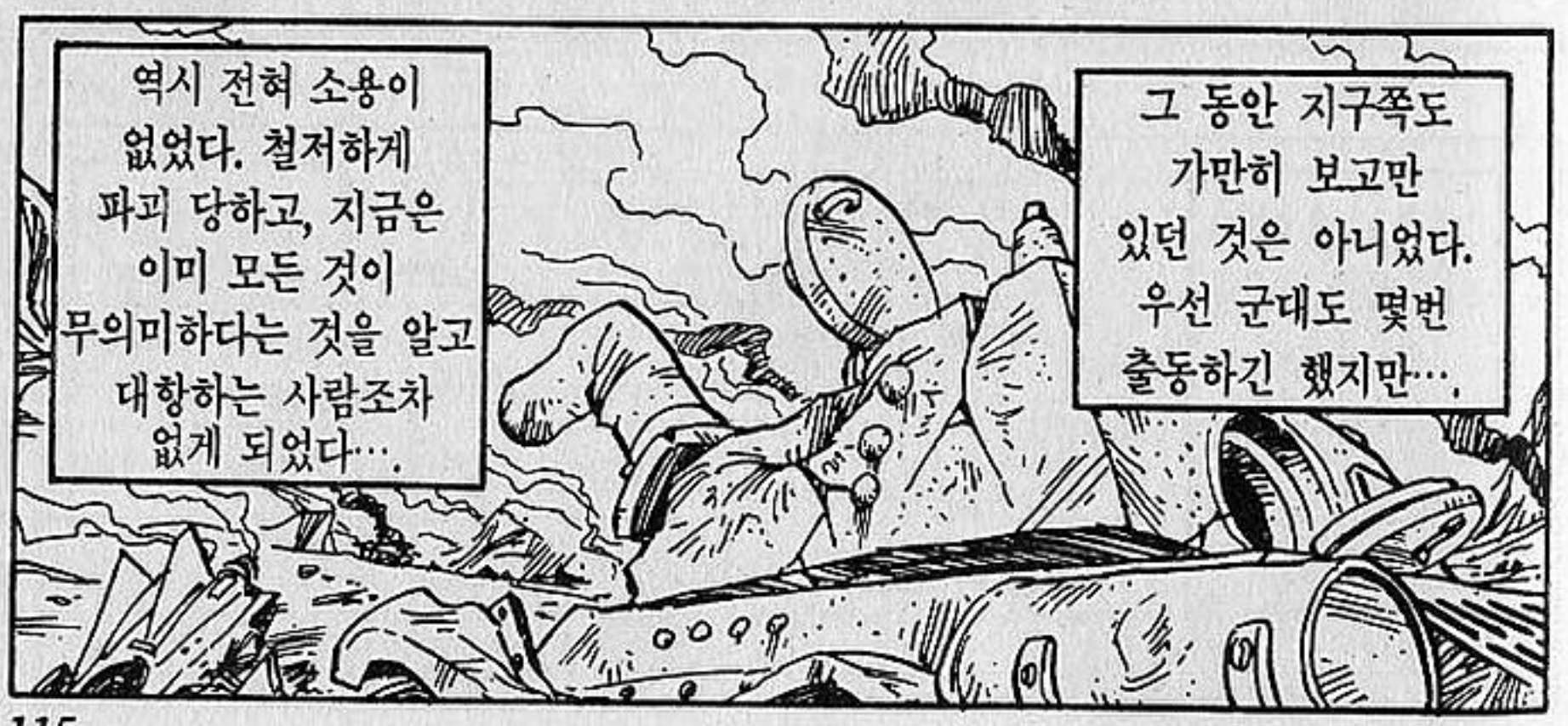

오늘 스타일 완죤히 구기네….
비실비실…
조금이라도 강해진 다음 퓨전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알겠니, 이 빌어먹을 꼬맹이들아!
알겠지! 마인 부우와의 대결은 하루 남았다! 그때까지는 최대한 수행을 해두란 말야!
하합!!
오예!!
우오!!
고! 고! 고!
오와 오와!!
히이익
추욱…



제481화

지구군, 최후의 비밀병기!!






아직 구세주가 살아 남아있다는 것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 구세주가 눈뜨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살아 남은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만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무시무시한 셀까지도 압도했던 세계 제1의…. 아니, 우주 제1의 전사…!
그렇다…! 천하제일 무술대회의 피곤을 풀기 위해 지금까지 방공호 안에서 잠자고 있던 챔피언….
지금…,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전설의 사나이가 눈을 떴다….
트르르…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인의 희망을 양 어깨에 힘껏 짊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마인 부우를 타도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다…!

미스터 사탄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는 최강의 전사….

예… 예…! 그렇습니다, 미스터 사탄!

후후후…. 저게 마인 부우의 집이나…?

휘이이이잉 - - - -

그런데 저…, 그 가방은 뭡니까…?

좋아…! 뒷일은 내게 모두 맡겨라! 너희는 돌아가서 기쁜 소식이나 기다리고 있어.

후후후…. 비밀 병기라고나 할까…!

이거…?

SATAN

예-!!

SATAN

하하하! 두 발 쭉 뻗고 있어!

그렇군요! 그거 정말 든든하겠는 데요!

우와~! 비밀병기!

SATAN

녀석이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지구에 나 미스터 사탄 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걸!

좋아, 좋았어-! 그럼, 빨리 녀석한테 항복이나 받아내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각오하고 있어! 개 패듯 팬 다음 묵사발을 만들어서 작살을 낸 후에 완전 떡을 만들어주마!

왜 못나오니? 엉!? 말리 덤비란 말야, 이 겁쟁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나와라, 마인 부우! 나 미스터 사탄 님이 등장하셨다!

제가 대신 소리쳐 드릴까요?

어디 목이라도 아프세요? 그렇게 작은 목소리론 안 들립니다.


……
이, 이 멍청한 놈아!!
그, 그렇게 큰소리 내면 들리잖아!


야, 이 똥개 같은 마인 부우놈아! 빨리 못나와! 넌 이제 세상 하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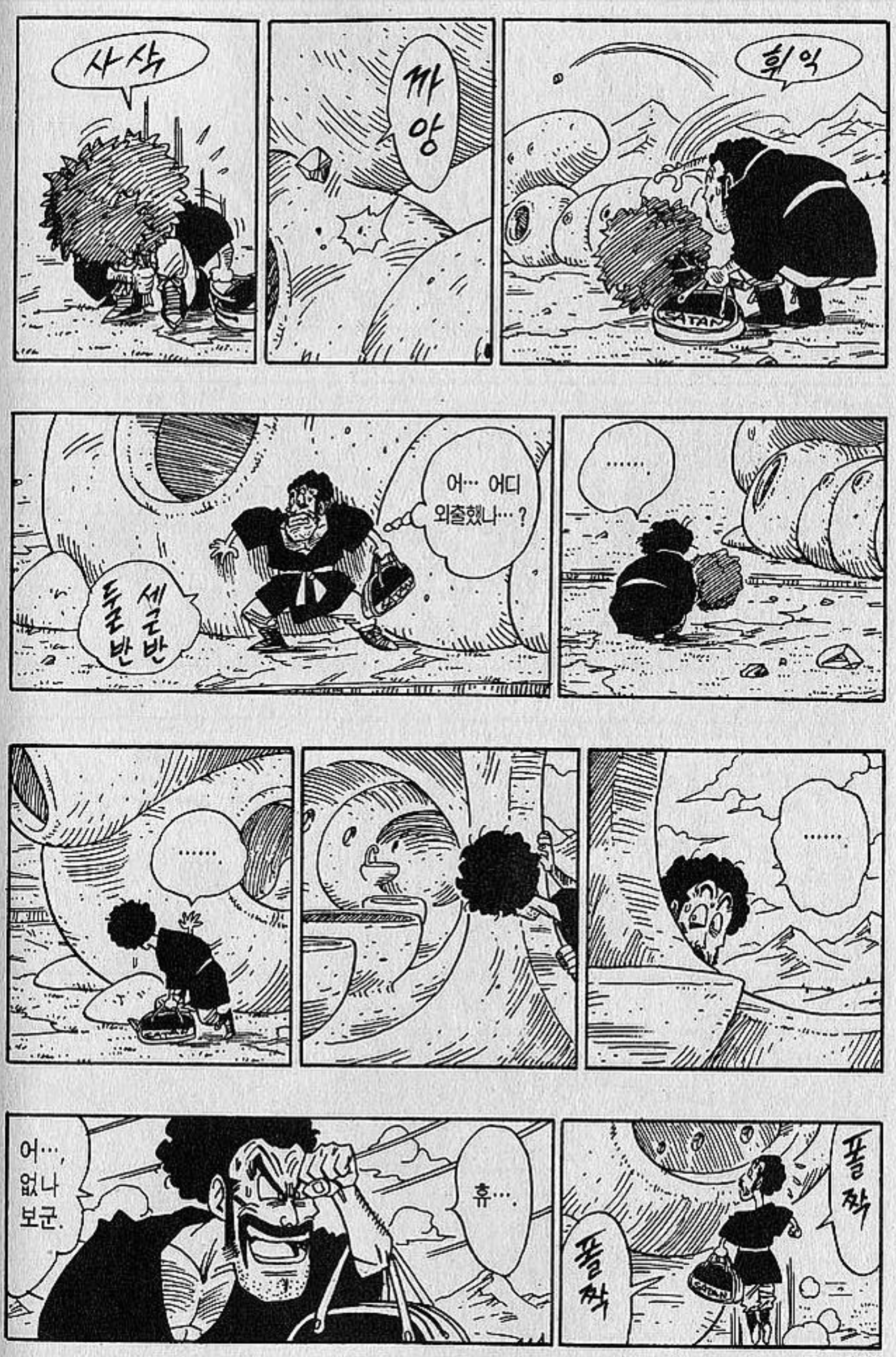

기자들한테 전해!
지구를 잘 부탁합니다!
실례할게요! 몸 조심하세요!
평화는 미스터 사탄이 만들거라고.


휴우…. 안 들킨 것 같네….
두근…
너흰 빨리 돌아가!


두근 두근
마… 마인 부우가 있을까…?
SATAN


끼유——…응


살금살금
살금 살금 ….
SATAN


휘익
까앙
사삭
……
어… 어디 외출했나…?
세군반 두군반
……
……
폴짝
폴짝
휴…
어…, 없나 보군.


에잇!!
쾅
슈슉!!
아뵤—!!
바보—! 돼지—! 똥개—! 내 방귀 맛이나 봐라!
뻥
우하하하!!
할 수 없지~! 어디로 도망친 거야~! 싸우지 않겠다면 돌아갈 수밖에 없겠는데…!
와하하하! 겁먹었니, 마인 부우!
!!
달그락
크하하하 하하하…!!
지금 말한 건 모두 뻥입니다, 뻥! 용서하세요! 전 사실 마인 부우 님을 제일 존경하고 있습니다~!!
으아아악! 사, 살려 주세요! 마인 부우 님!!


위대한 사탄 님이 마인 부우 따위한테 눈곱만치라도 겁낼 줄 아느냐! 이 자식아!!
헉
헉
요놈! 요자식!!
도, 도마뱀! 이 자슥이 누굴 졸로 아나?
파악 팍
슬금슬금
터억
야호ㅣ
꾸벅
꾸벅
아…, 안녕 하세요….
처, 처음 뵙겠습니다!
가문의 영광 입니다!
넌 어떤 과자가 되고 싶니?
콩사탕? 비스킷? 빼빼로?
아… 아뇨! 싫어요!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마, 마인 부우 님께 드릴….
멋진 선물이 있습니다!


보세요! 고급 초콜릿 입니다!
아, 아뇨! 사실 변변치 못한 것이 아닙니다!
드세요!
난 변변치 못한 물건은 필요없어! 죽일 테다!
저…, 이건 변변치 못한 거지만.
……
두근 두근…
킁킁…
흐흠…!
굉장히 값이 비싸고 맛있다는 뜻입니다.
고급이란 게 무슨 뜻이냐?
초콜릿?
이 초콜릿엔 독약이 듬뿍 들어있지!
크후후후…! 잘도 먹는다, 멍청한 자식!
우물 우물…
쪼옥
인간 초콜릿보다 맛있어!
쏘옥 쏘옥
낼금 낼금
우물 우물
음냐 음냐…
그… 그래요…?
…
엥!?
캡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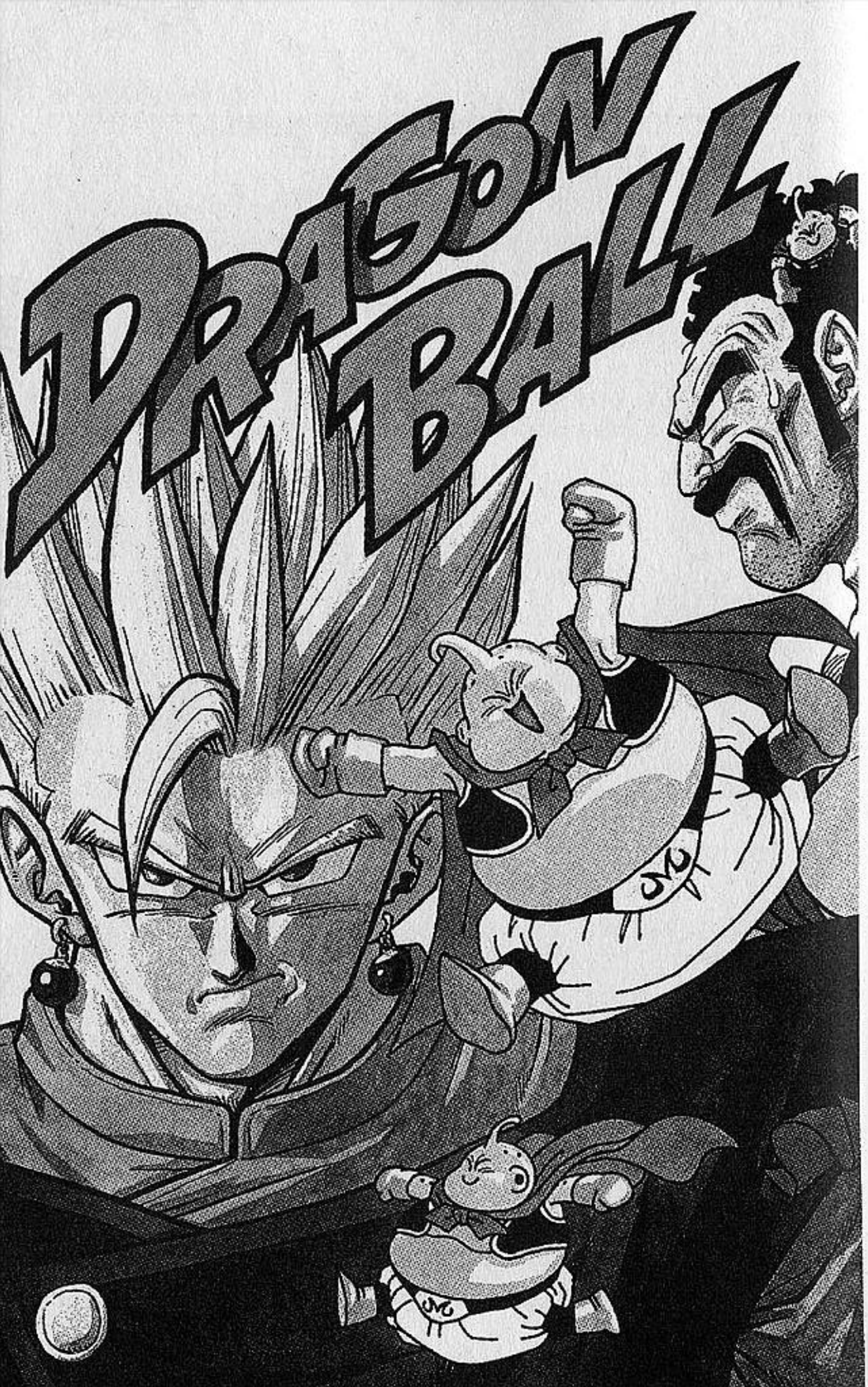

다… 다음 선물은 이겁니다, 이거!
겜보이죠!
뭔데?
자, 이렇게 해서….
요건 요렇게.
빽빽
이런 식으로 적을 해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에잇. 에잇.
아, 그럼 안 돼요!
점프해요, 점프!
넘넘 어려워!
예!? 아…!
조, 좀 더 쉬운 걸로 바꾸죠!
이, 이건 어때요? 봐요, 간단하죠!?
크윽…! 그런가?
빽빽
이것도 어려운데….
빽빽
제길…!
됐어! 기회는 찬스다!
사사사삭
우히히…. 죽어라!
찰칵
꽈—광


오예!!
모든 게 성공-!!
얌마.
지금 건 약간 재밌었네.
……
고… 고맙습니다….
넌 재밌는 놈이니 부하를 시켜주마!
예…!?
저, 정말 고맙습니다…!
퉈퉈
이걸 줄게! 인간이 변한 거야!
엑!?
자, 먹어.
예… 예!
고… 고마워요!
잘 먹을 게요…!
음…. 맛 죽이네….
괘…, 괜찮은 데요…. 꽤 달기도 하고….
앗!!
응?
?
푸푸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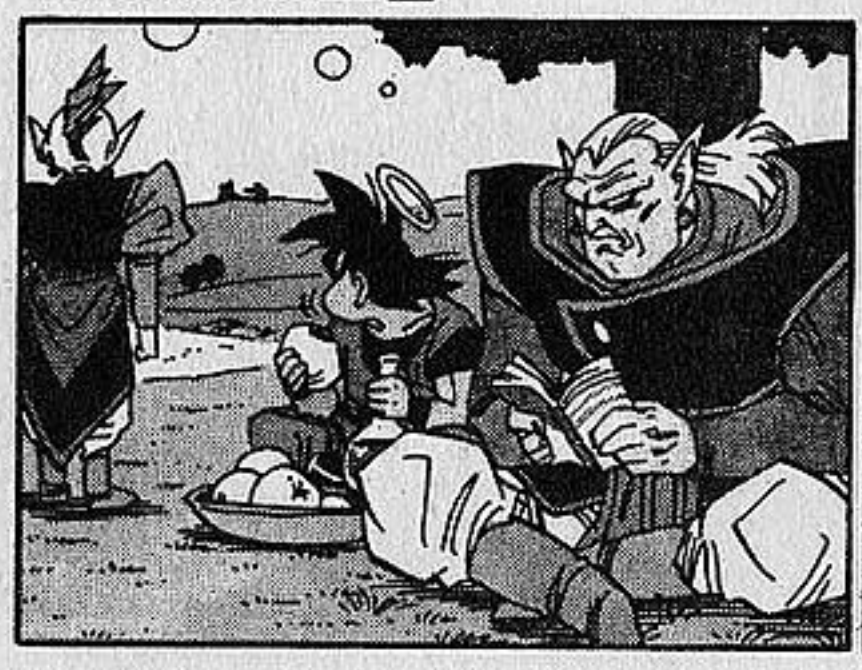

응?
엉-!?
뭐야?
아, 아뇨!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엄
히얍!!
그럼 죽여야지!
뭔 일 있었니?
아니… 저…. 그게…
방금 전에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서….
쿠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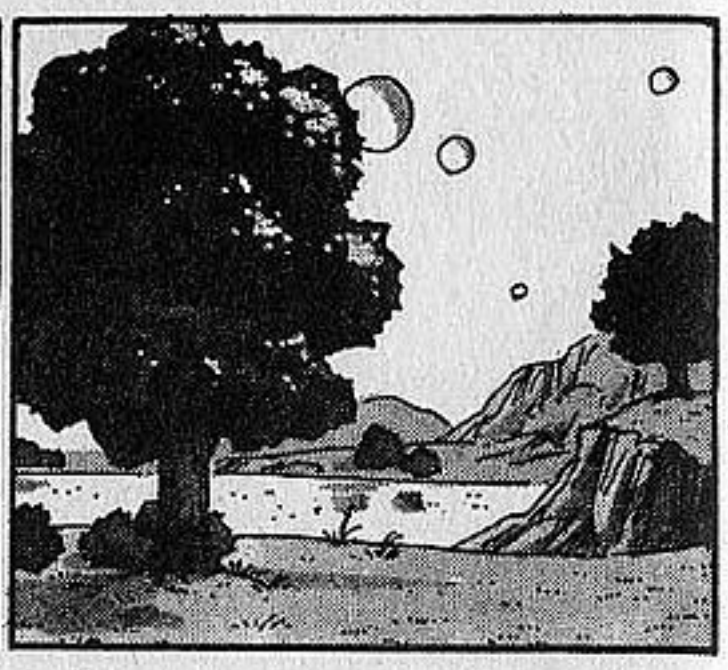

정말 환상이에요!
짝 짝 짝
대, 대단해요! 역시 부우 님이야!
헤헤!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유행이라서.
요렇게?
아참. 잠시만 이렇게 드러누우세요.
꼬, 꼭 기념으로.
저,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사진 한 방 어때요?
드세요!
자! 자! 맛있는 식사가 다 됐어요.
와!
우후후…. 우선 좋은 사진은 한 장 찍었다.
찰칵
짠~~~…
두고 봐! 나중에 아주 작살을 내서 뽕을 빼주마!
쳇-!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 뚱띵아!
날 물로 보면 큰 코 다친다구!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어요!
피곤 하시죠?

제482화
드디어 완성!
슈퍼 퓨전!!


DRAGON
BALL


찰칵
짠~~~....






거…, 걱정 없을 겁니다….
그…, 글쎄….
자신만만한 것 같으니까….


저…, 계왕신님….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오반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줄까…?


……


쿠ー
쿠ー




저… 저기…, 계왕신 님….
꾸벅…
꾸벅…
쿠울…
쿨ㅡ
계왕신 님…!!
엥…!?
왜…?
뭔 일 났어…?
지금 졸았죠…?
우, 웃기지 마! 내가 언제 졸았냐!!
난 분명 깨있었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글쎄…, 초보자들에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계왕신이 뻥까는 거 봤니?
……
자! 쓸데없는 잡담할 시간 없잖아!
빨리 계속!
꾸벅
꾸벅
헛수고일지도 모른다…, 오반은 속으로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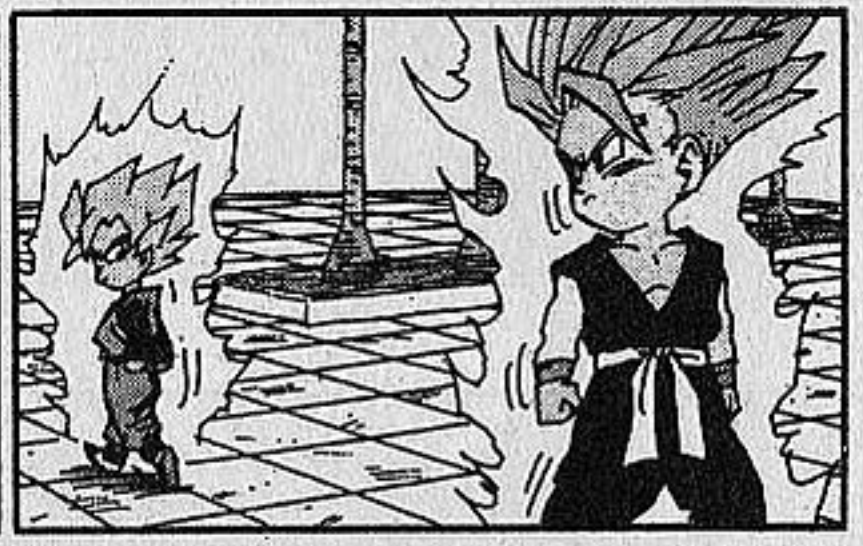

자…! 이제 시작해라.
초사이어인의 퓨전이다!
이번에는 퓨전에 성공해도 절대 잘난 척 하지 마! 알았지?
헤헤 ….
알아요!
예!!
시작!!

퓨전을 시작해라!

좋아! 기는 완전히 똑같다!

꿀꺽...








전!!
합!!
쿡…!!


OKO

완전히 성공했어!!

만세!!

와아…!

엄청나다! 정말 대단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데서 선보여도 괜찮을까?

지상에서 하겠어!

확실히 기는 엄청나지만, 과연 움직임은 어떨까…?

으음….

좀 보여줘.

쳇!!

퍽

시건방진 태도는 여전하군….

저런….


야호!!
룰루 랄라!
HHOHOH


이제 도착이야? 늦었군.
터덕
사사
난 지구를 몇 바퀴 돈 다음에….
잠깐 낮잠도 자고 왔는데.
얘기도 없이 돌아 다니다니….
열심히 찾았잖아…!
허억
헉
후후후…! 지금 스피드만 봐도 알 수 있겠지?
내 엄청난 실력 말야…!
빨리 왕 짜증나는 마인 부우나 없애버려야지…! 그러니 테스트는 이만 끝내자.
앗! 안 돼! 이 멍청아!
크윽…! 저런 머저리 같은 놈….
합체 시간이 1분도 채 안 남았단 말야, 이 띨띨아…!

나랑 만나게 된 걸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이번엔 지난번처럼 당하지 않는다!!

헤헤! 마인 부우 자식!!

오예!!

야, 임마! 마인 부우! 나다!

얼굴 좀 보자!!

헉


어…?
……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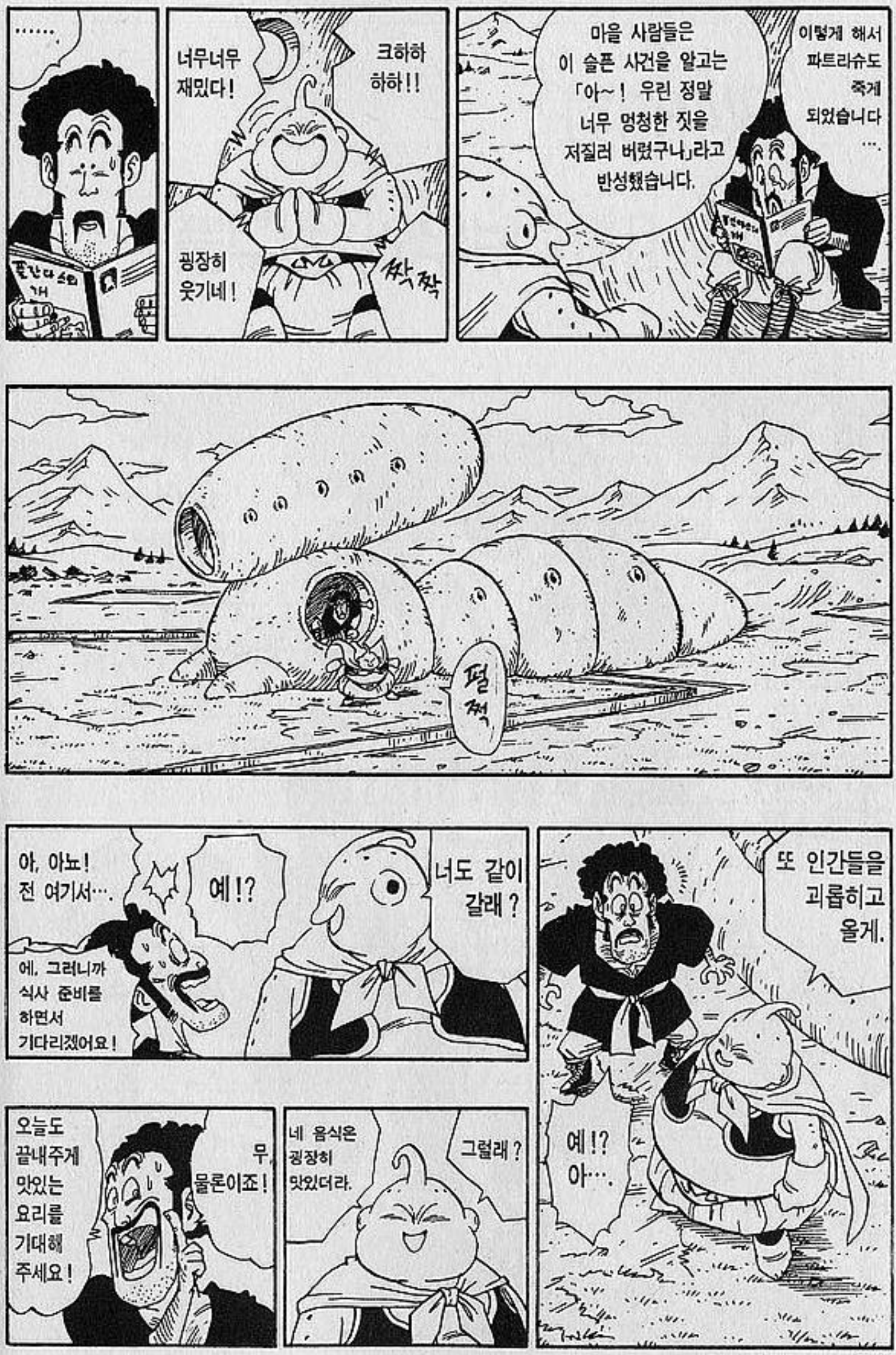

쩌유——…응
꼴깍…
부우 님께 감히 '야, 임마!'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하! 그거 봐요. 괜히 신경과민이 돼서….
툴레
툴레
?

아무것도
아니야..

제483화

마인 부우와 친구들





이렇게 해서 파트라슈도 죽게 되었습니다 ….
마을 사람들은 이 슬픈 사건을 알고는 「아~! 우린 정말 너무 멍청한 짓을 저질러 버렸구나」라고 반성했습니다.
크하하 하하!!
너무너무 재밌다!
굉장히 웃기네!
짝짝
……
펄쩍
또 인간들을 괴롭히고 올게.
예!? 아….
너도 같이 갈래?
예!?
아, 아뇨! 전 여기서….
에,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겠어요!
그럴래?
네 음식은 굉장히 맛있더라.
무, 물론이죠!
오늘도 끝내주게 맛있는 요리를 기대해 주세요!

다녀 오세요!

갔다올게.

열심히 해주세요!

누구 앞에서 잘난 척이야!!

빌어먹을 자식!

지금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어둬라!

우히히 히히….

뒤적뒤적

이 리모콘 스위치만 한 번 누르면 모든 상황 끝이야! 세계는 바로 내가 구하게 되는 거지!

이 정도 양의 다이너마이트를 쓰면 아무리 마인 부우라도 걸레가 될걸! 전차도 한 번에 날려버리는 파괴력을 가졌으니까!

우하하하!!

어서 돌아와라, 마인 부우!!

헤헤…! 여기다 숨기고….

서둘러, 활망구!

빨리 마을을 떠나 산속에라도 숨지 않으면 마인 부우한테 잡혀 죽는다구….

헉 헉

왜 그래!? 이 봐!

하, 할멈!

앙

두… 두목! 역시 떨려요…. 이…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한 발에 명중이다!!

오-예!!

옛날부터 이런 짓을 해보고 싶었어! 나 정말 나쁜 놈이지?

겁쟁이 자식! 상관없어! 전 세계의 인간이 마인 부우에게 목숨을 잃고 있어! 저것도 마인 부우가 한 짓이라고 생각할 거야.

……

예!?

자, 해봐!
이건 명령이다.

할아범은
너한테
양보할게.

예…,
그럼….

탕

앙

우와!
녀석,
굉장한
실력이네.

하하
~!

야호—
!!

마을로 가자!
마을엔 아직 남아있는
놈들이 꽤 있을
거야!!

예…!

어때,
기분이?
다른 곳으로
가보자!

나쁘진
않네요.

익!?

버, 벌써
돌아
오네!

우히히…!
역시
내 머린
캡이라
니까!


아, 아직 식사를 만드는 중인데요!!
부우님! 죄, 죄송 합니다!!
퍼억
꼬……응
깨애애…앵
응!?
그…
그, 그건 웬 개죠?
이 녀석이 겁을 상실했어!
날 보고도 도망을 안 치잖아! 무슨 소린지 말도 모르겠고…
넌 알겠니?
저…, 얘기는 못알아 듣겠지만….
그 녀석, 다리를 다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망을 못치나 봐요.
뭐?
그랬구나!


자, 도망가!
죽여줄 테니까.
앗!
!!
그럼 고쳐 줘야지!
어디, 겁먹고 도망쳐 보셔!


이 녀석 봐라!
고쳐줬는데도 안 도망치네!
하하!
부우 님이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요.
그 녀석, 낮게 해줘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끄응..
끄..응
부비적 부비적...


왕
왕
타타탁...
.....
왕
왕
.....
왈
왈

예!?
흐음… 너랑 똑같네. 너도 내가 좋지?
아, 예! 우, 물론이죠!
봐요! 기뻐서 꼬리까지 치잖아요.
그래요! 굉장히!
이놈이 날 좋아한다고?
그건…
난 몰라, 그게 뭔데?
그렇지! 제가 개밥을 사올게요.
어머! 그걸 먹이면 안 돼요.
초콜릿 먹어.
개밥을 줘야죠.
나 좀 기쁘다.
헤헤…
피 ——…
그, 그럼 빨리 가서 사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오 케이 —!
사 삭
찬스다!!



이…
이젠
끝이다!
이걸로
넌 세상
하직이야,
마인
부우…!!
……
저놈….
너무
즐거워
하네….
……
하긴….
좀 더 기다렸다
해도 되겠지.
가…,
강아지도
있으니까….
야호!!
피…
제길….

타타타탕….!!
38…!!
39…!!
타탕
신나게 파괴하자!!
하하! 어떠냐-!?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목! 이러다 마인 부우가 나타나면 큰일나요!!
그 녀석, 이상한 집을 짓고 산다고….

우리에겐 강력한 바주카포가 있잖아!
멍청한 자식! 그 놈이 나타난다 해도 걱정 없어!

이거 봐요. 맛있게 먹잡아요!
우물 우물
맛 없어!

음냐 냠
쩝쩝

인간을 괴롭히고…, 집을 부수고 하는 겁니까…?
두근 두근
무슨 이유로….

뭔데?
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마인 부우 님….
튀튀
두근 두근

비비디도, 바비디도!
나한테 그런 식으로 놀라고 그랬어.

그것 뿐예요!?
그….

재미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뭐든 파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그런 나쁜 놈들이 하는 얘길 따르면 안 돼요…!

날 만든 나쁜 놈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넌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예…, 사실….
예!?

괜, 괜찮습니다! 부우 님만 즐겁다면 …!
아…!!

응!
이… 이젠 누구도 안 죽일 건가요?
아무 것도 안 부수고 …?
응!

예!?
그럼 그만둘래!

과,
과연 나답다!
역시 세계챔피언
미스터 사탄이야!!

서…, 성공이다!
내가 해냈어!!
역시 난
영웅이라니까…!!

재밌겠다!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서
끝장내버리자!!

뭐야,
아직도
쫄고 있냐?
별 거
아니라고
했잖아,
임마!

이 근처예요!
마인 부우의
집이….

두… 두목!
여…
여긴…!

타타타타…

덥석

파앙

덱데굴굴

왕왕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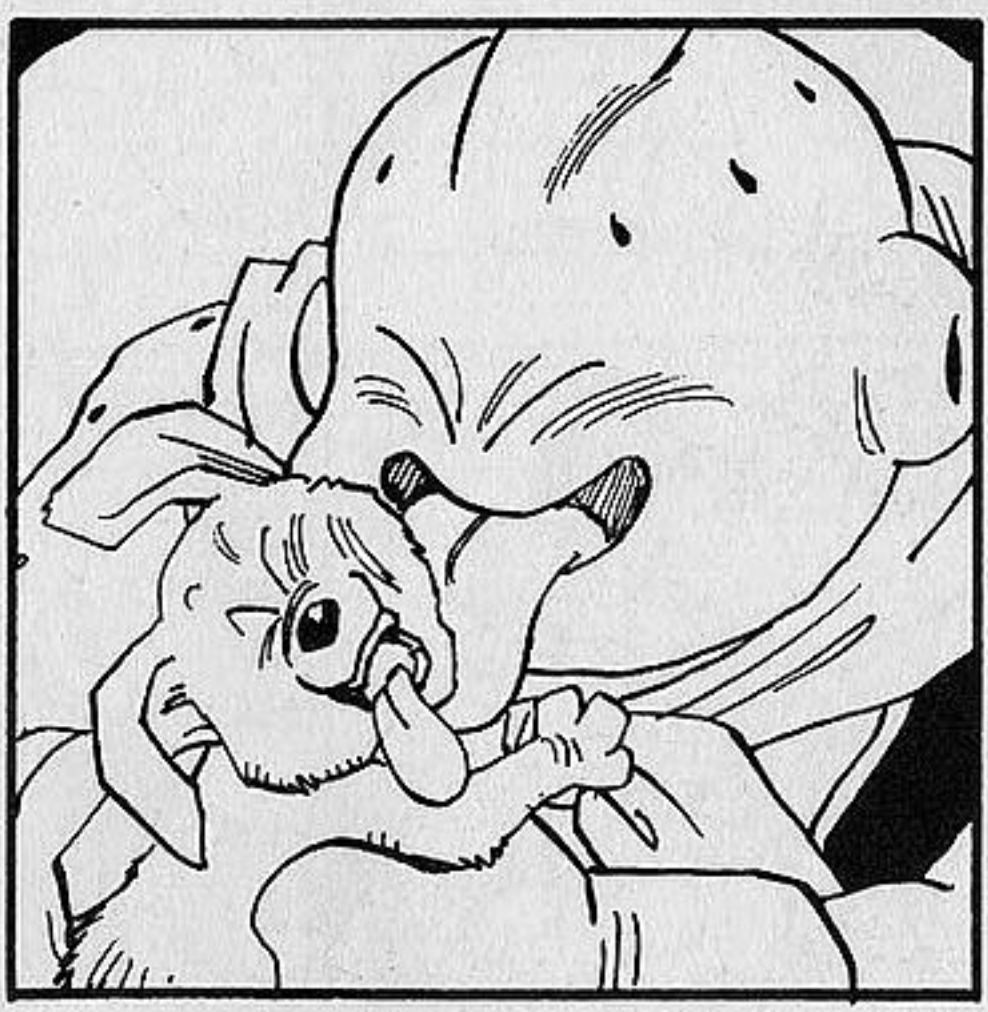
자,
한 번 더!

어때요?
확실히
물어오죠!

오우!
자! 자!
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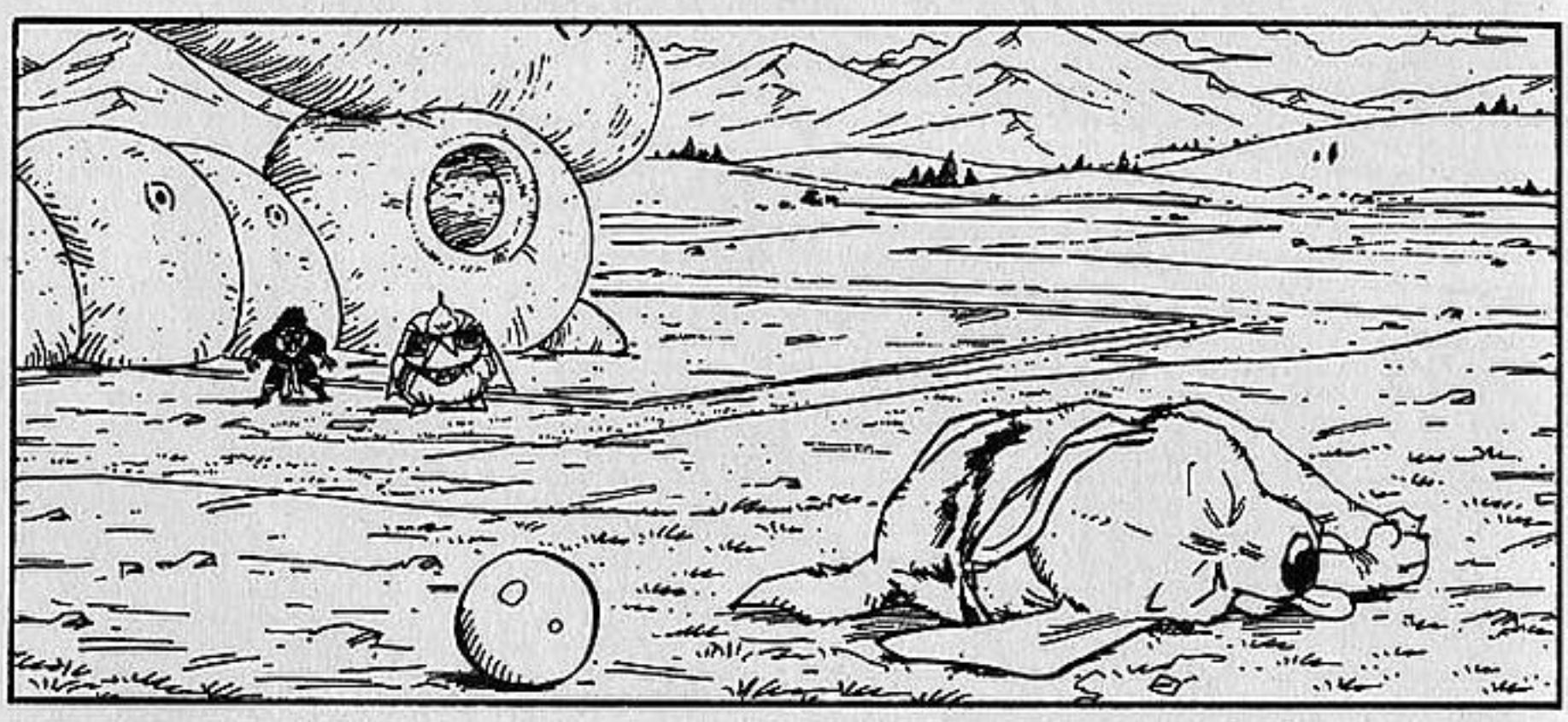
짝 짝 짝
짝 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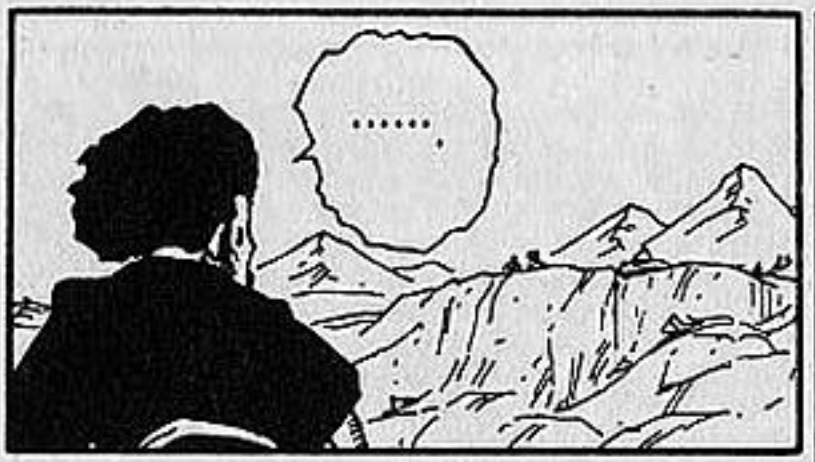

깨갱
!!
하하-!
자, 한 마리
격퇴!!
앗!!
두목!
마인 부우와
함께 있는
사람은
미스터
사탄
인데요!



제484화

분노가 만들어낸 것










먹어라!!
쨔앙
윽!?
파닥


콱아
아아앙
슈우우우
쐬우우우
쐬우우우
쾌쾌쾌쾌

완전히 걸레가 됐네-!!

하하하! 꼴좋다-!!

털썩…

어…?

그냥 서 있네…? 상처 하나 없이…

저… 저런…

냐아아앙…


으…
으…!
우…, 움직여!!
아직 살아 있다…!!
이런 제길…!!
!!
꽈당
너…!
이놈!
!?

박살을 내주마!!

용서 못해…!

절대….

뭐… 뭐야!?

이얏!!


파박 퍼벅
이런 띨빵한 벌레 같은 자식들!!
감히 누구 앞에서 지랄을 떠는 거야!!
당장 꺼져 버려!
.....
팡
털썩
허억!
허억!



쾅
앗!?
제길…!
불쌍하게 강아지가….
지구의 쓰레기들…!
아, 아직 살아 있어!!
마, 마인 부우님!
!!
타닷
빨리! 빨리!
성공!!
!
벌떡
어, 어때요? 살릴 수 있어요!?
죽지만 않았으면 살아나!

……

저봐….

성공!

성공!

성공!

?

싸우지 않고 끝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호…, 혹시….

어떻게 저런 뻥쟁이랑 마인 부우가….

이,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지…?

녀석이 위험한 건 변함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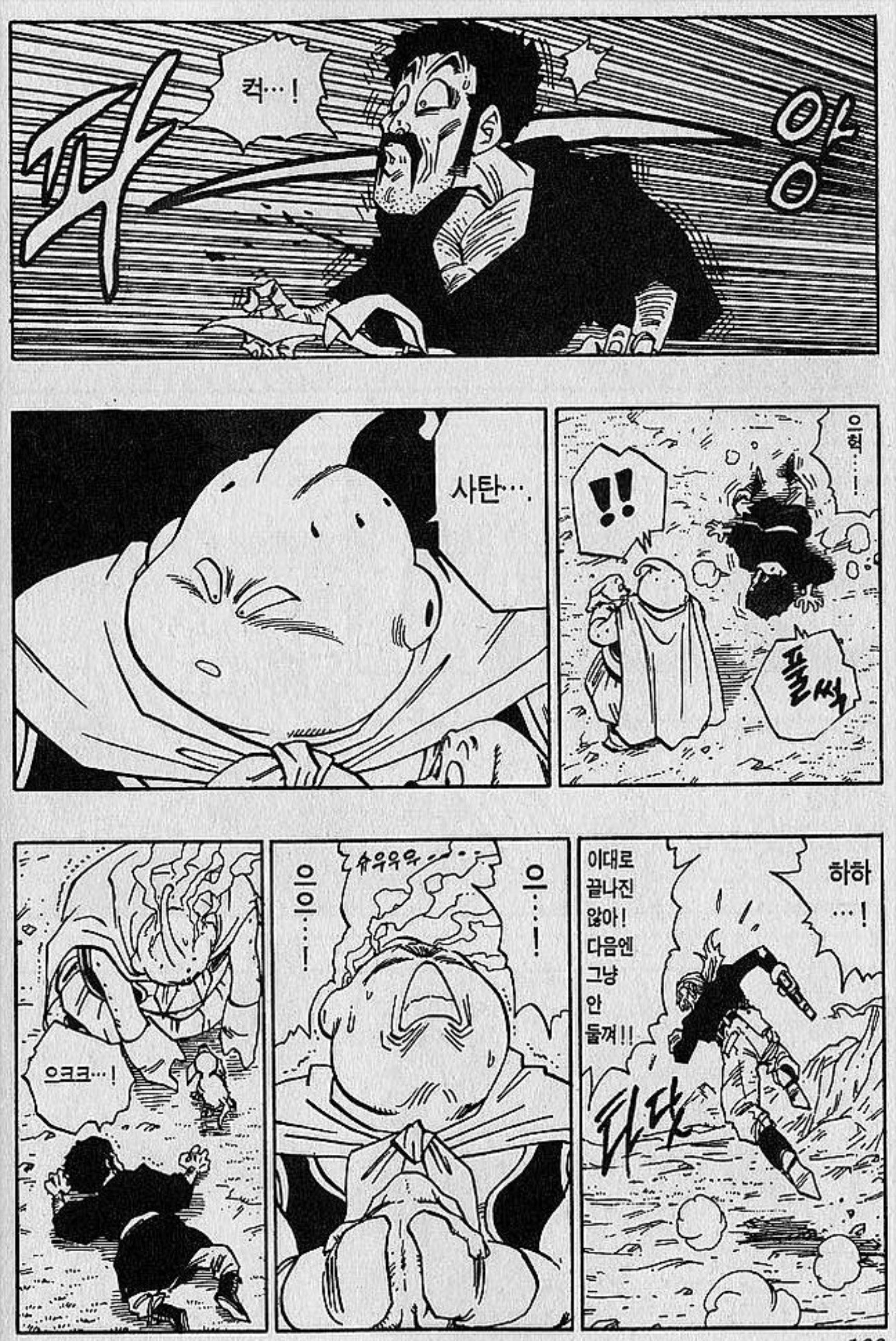
하… 하지만….

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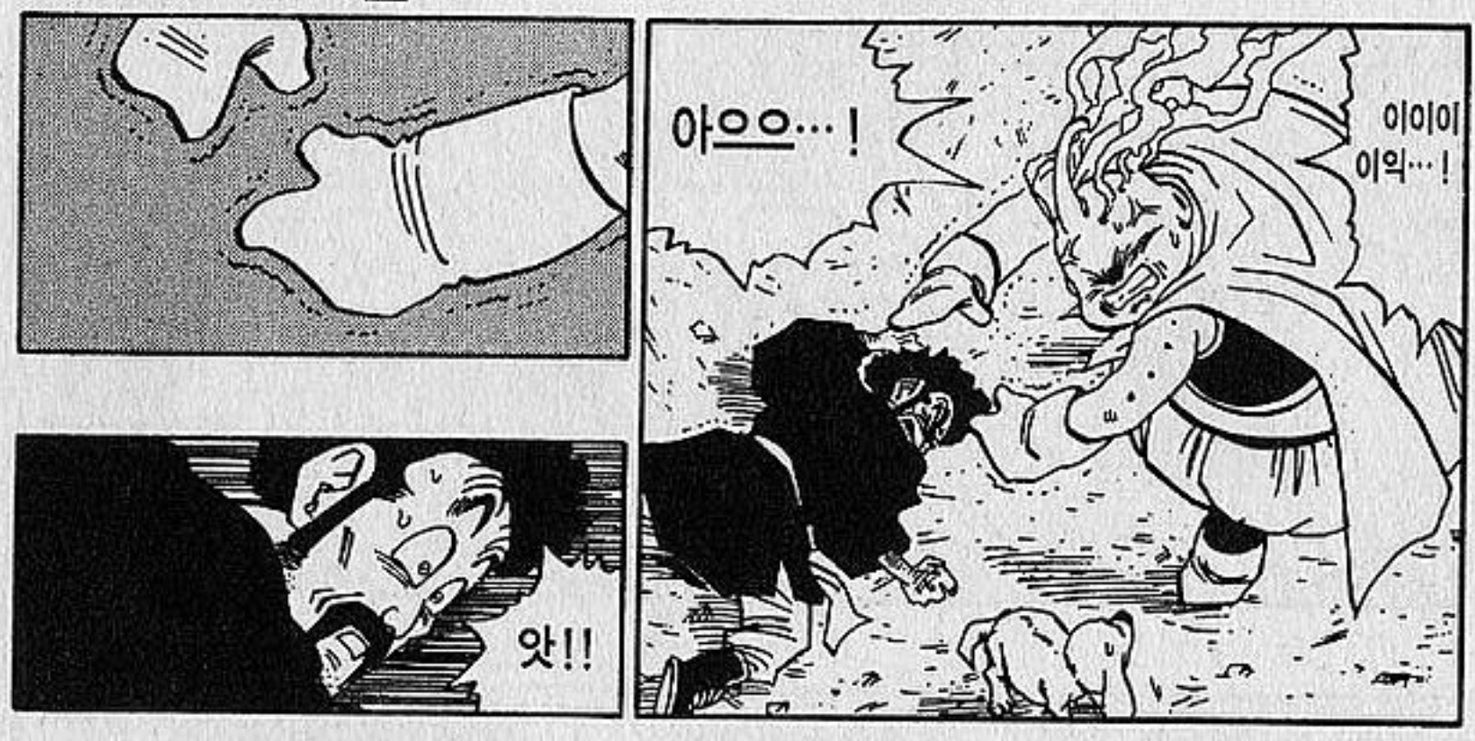
윽…!

이야아~!! 정말 다행이다!

와하하!!



컥…!
아앙
사탄….
으헉…!
!!
풀썩
으크크…!
으…!
으으…!
슈우우우
하하…!
이대로 끝나진 않아! 다음엔 그냥 안 둘껴!!


아으으…!
이이이
이익…!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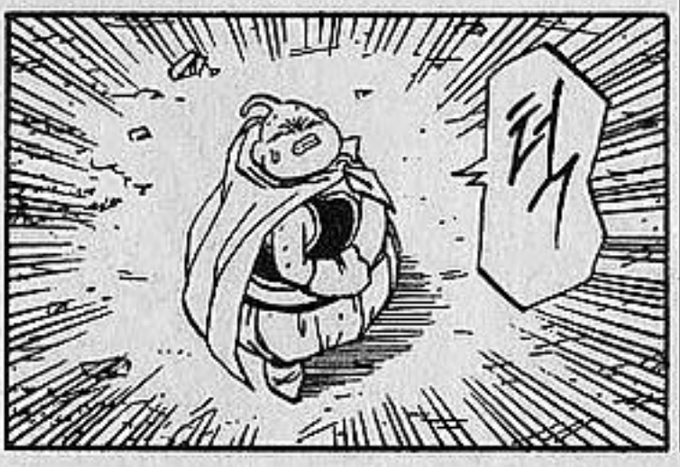

크으으
…!
우…
우와아아!
미, 믿을 수
없어!
……
사,
살았다!
고마워요!


머…,
멀리!!
도…
도망쳐…!
강아지랑!
주…
죽는다….
왜, 왜
그러세요?
어…!?
마인
부우 님…?
우우우!


예…!? 죽어요!?
무… 무슨 소리예요!?
빨리 가아—!!
예!?
예!!
이이이 이익…!!
피유—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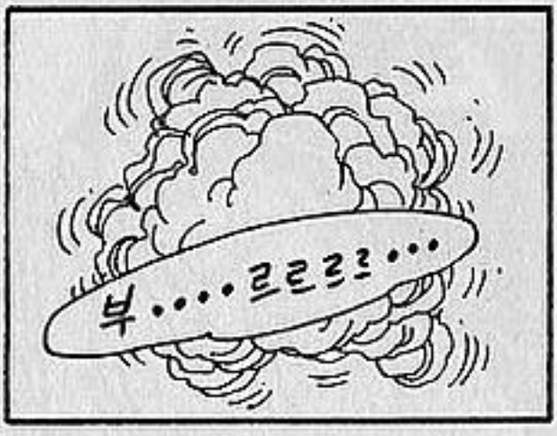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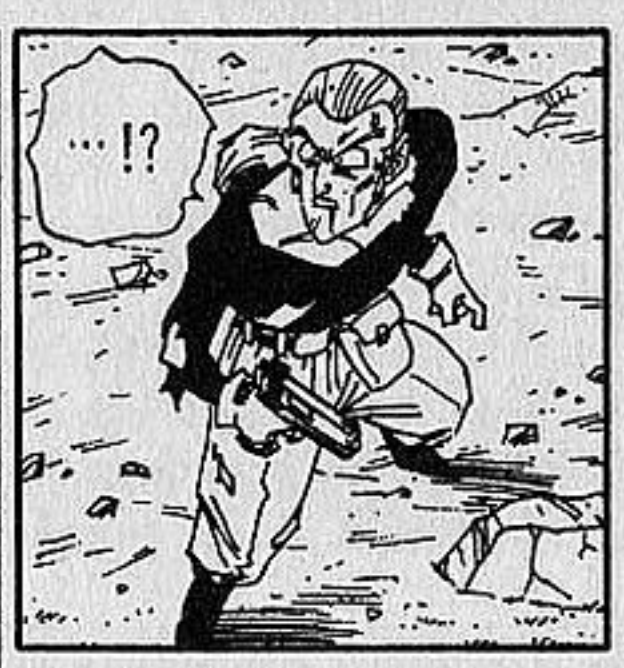
다음은, 제485화 두 명의 마인 부우…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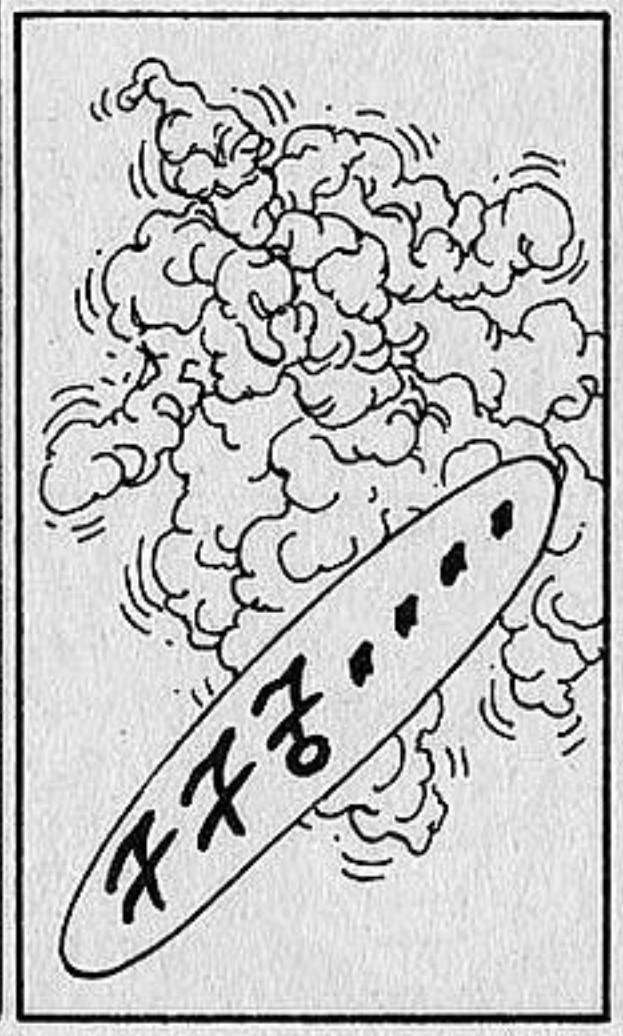

대… 대체
뭐야…!?
구구구…




……
ㅈㅈㅈㅈ…


퍼억


…!?


ㅈㅈㅈ…






마인 부우의
강한 분노에 의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사악한 부분이 크게
팽창해서 또 하나의 마인
부우가 되어 튀어나왔다.
즉, 완전한 악의 마인
부우와 착한 마인 부우로
분리돼버린 것이었다….


꾸욱!!


히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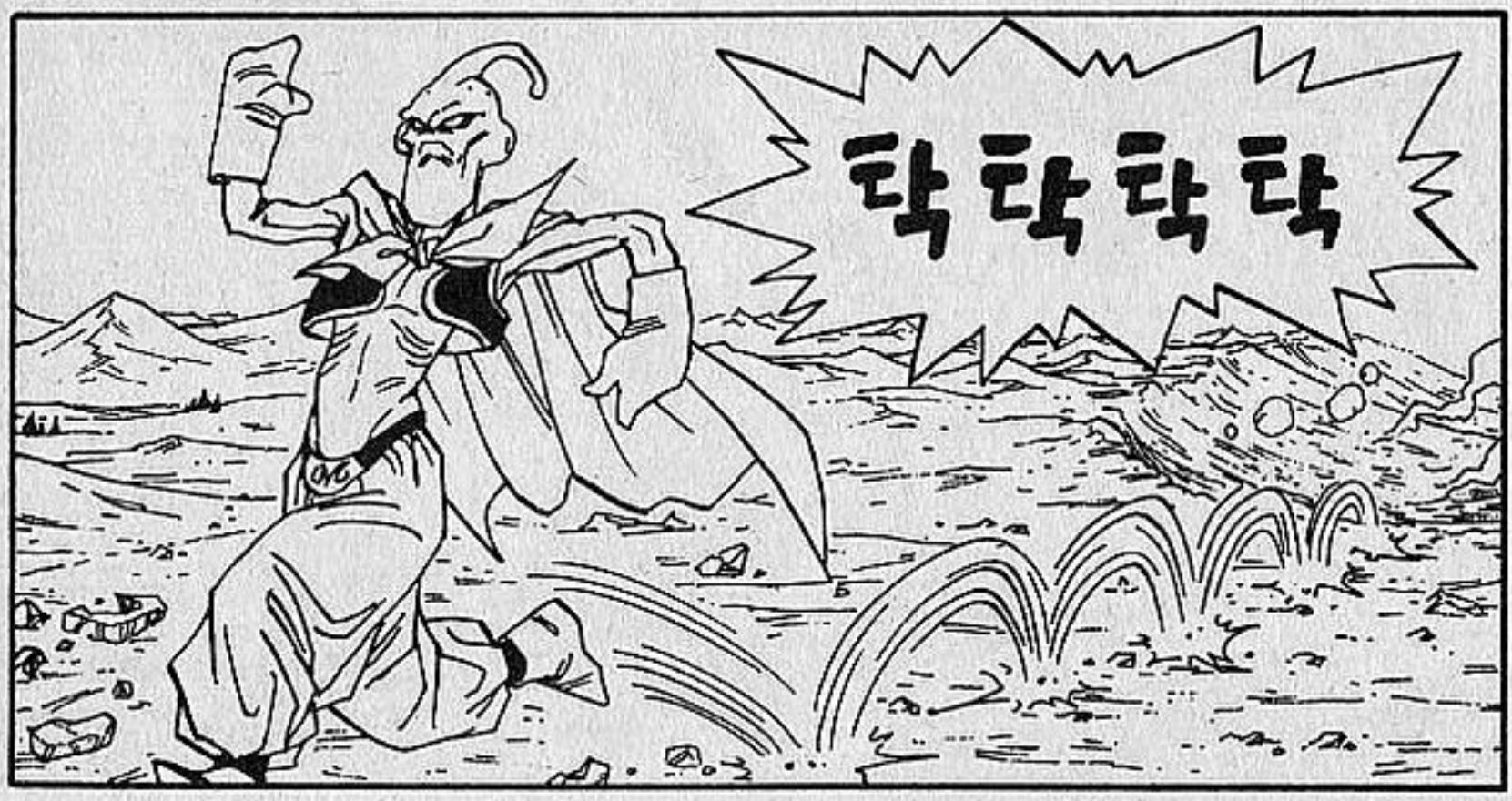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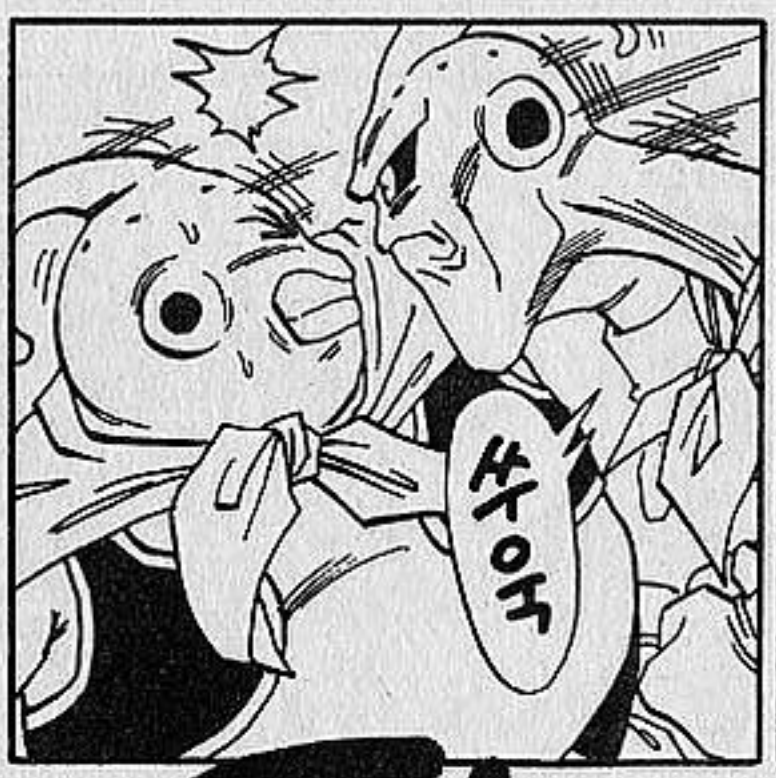
쾌웅
퍼억
!!
악!!
으아악!!
이, 이놈!!
팡팡팡팡팡팡
ㅎ……
……!!



으아아
아악!!

으악!


탁탁탁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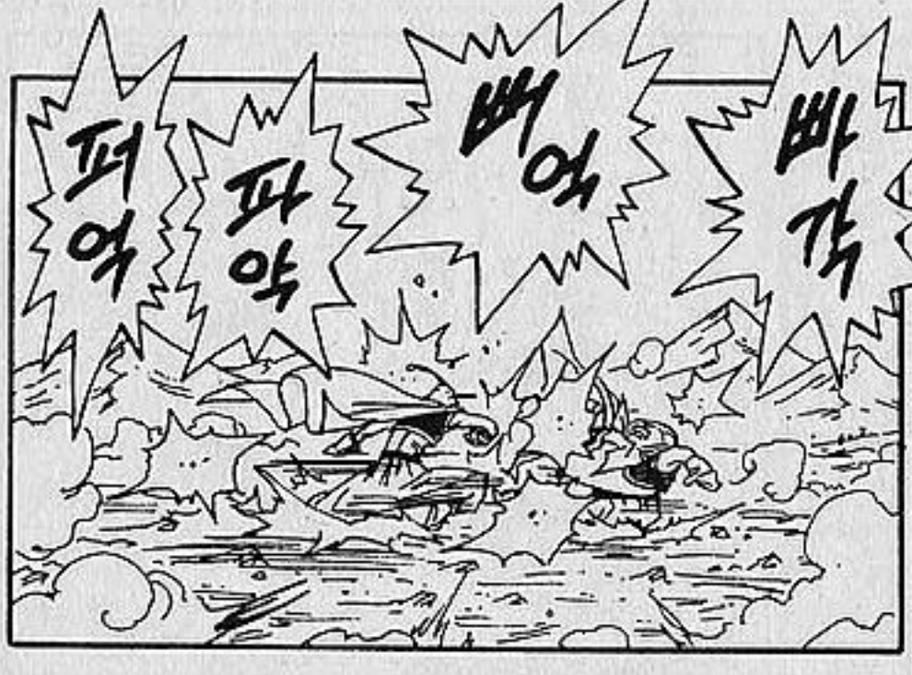

쑤앗


……!!
멈칫


퍼억


쑤우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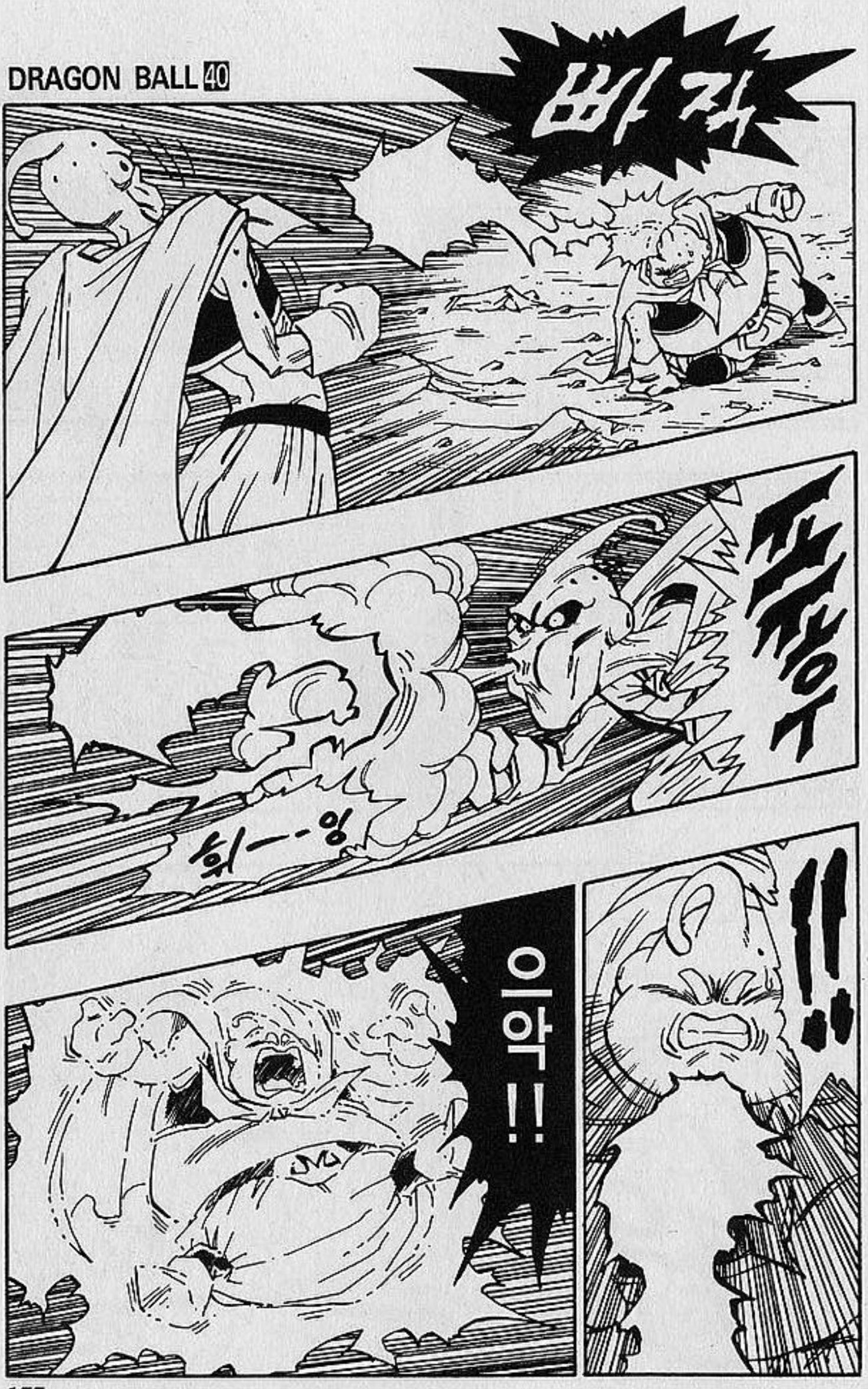

몸통박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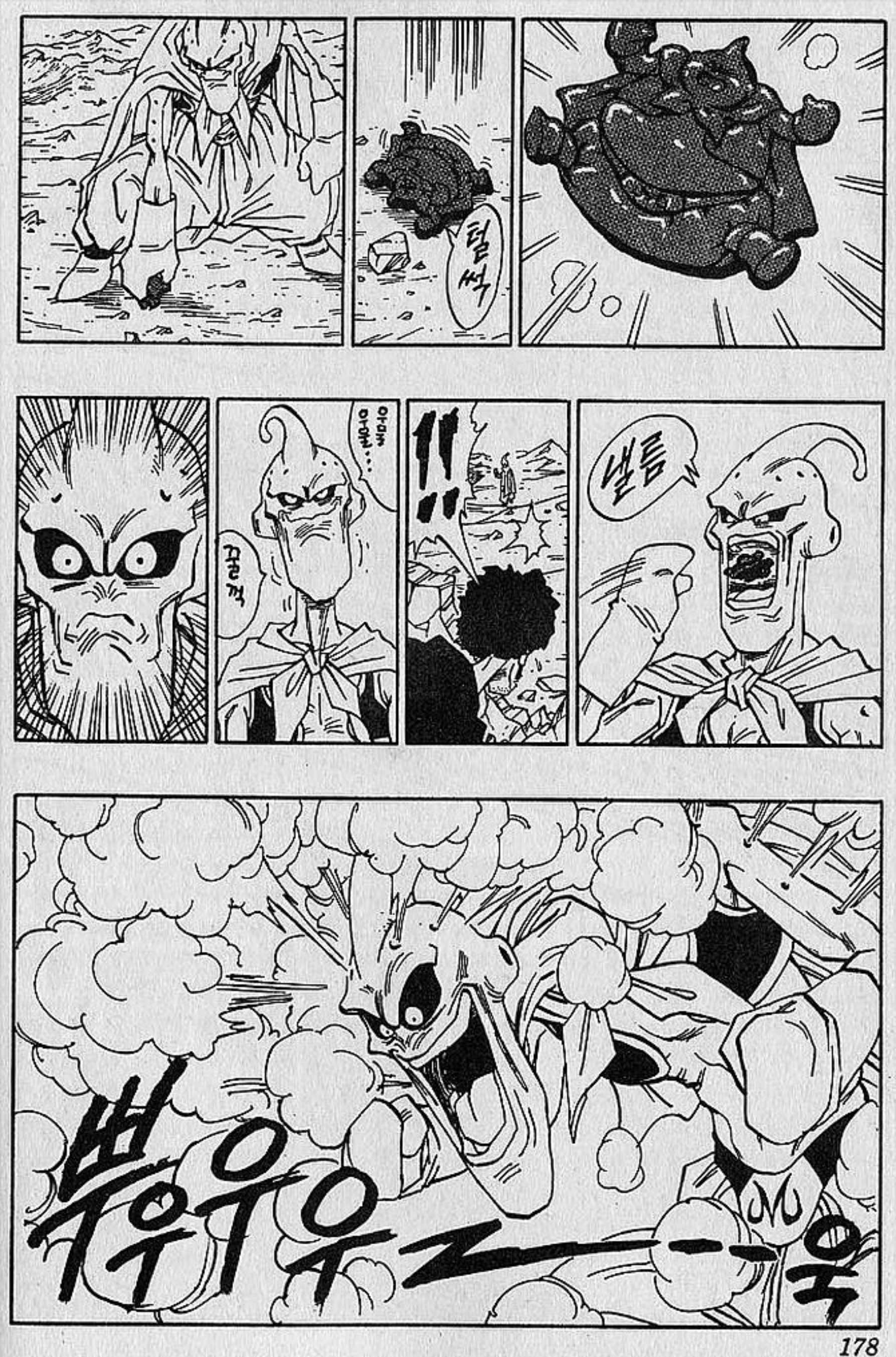

퍼억
파악
뻐어
빠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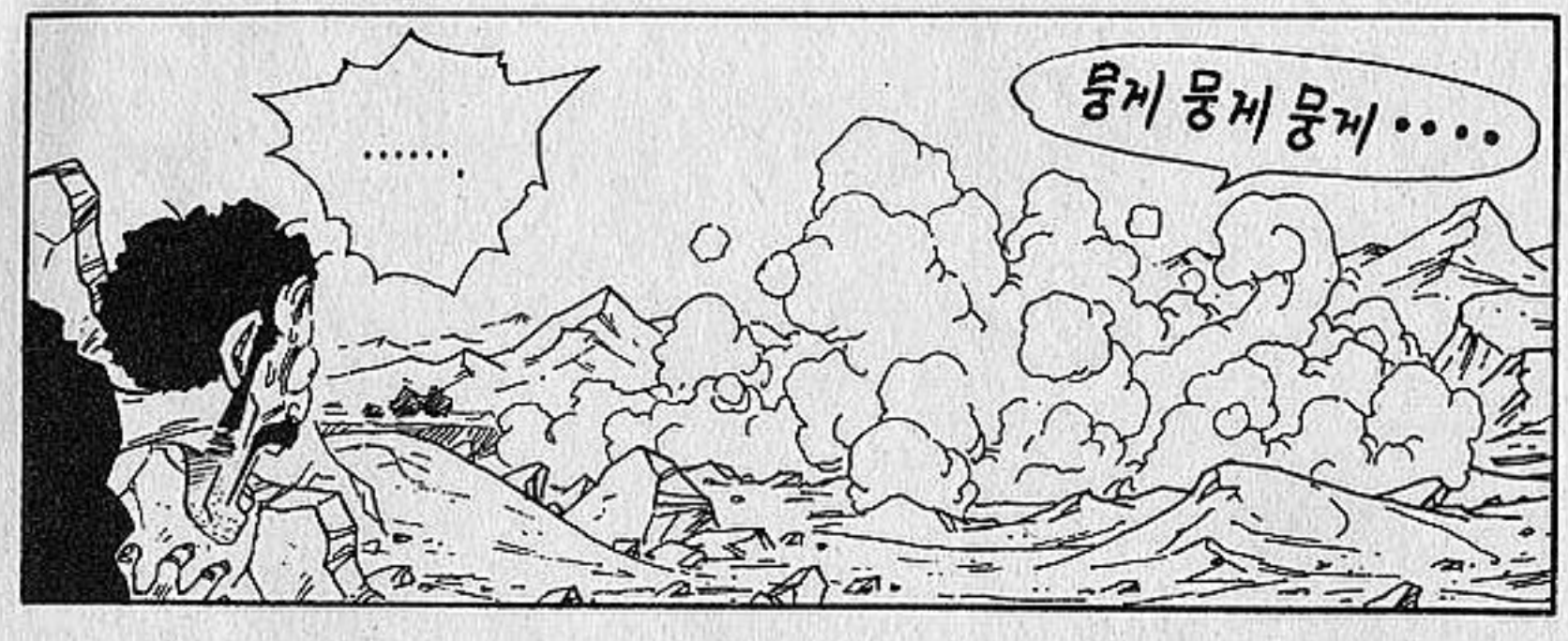

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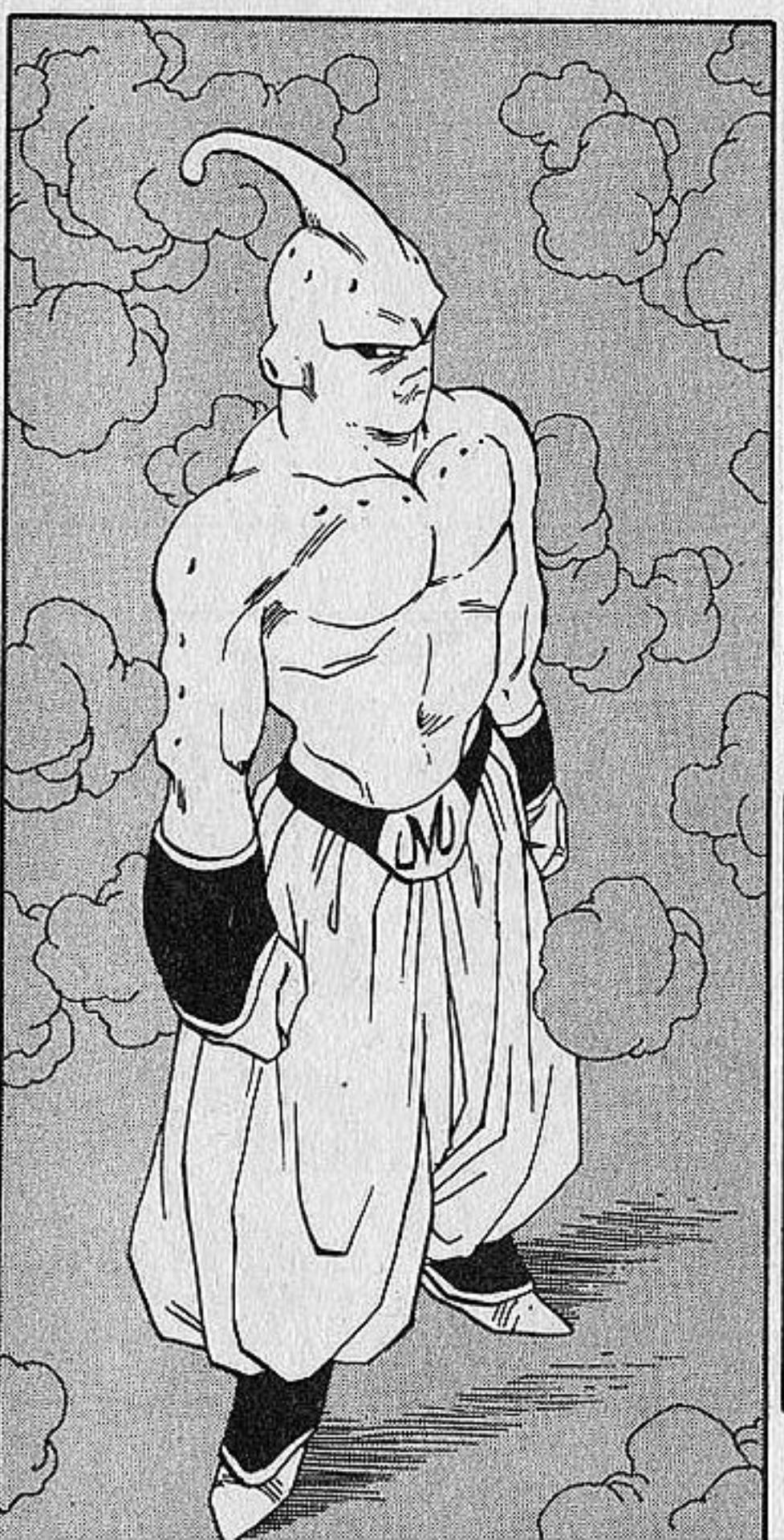

초콜릿이 돼라 -!!
초… 초콜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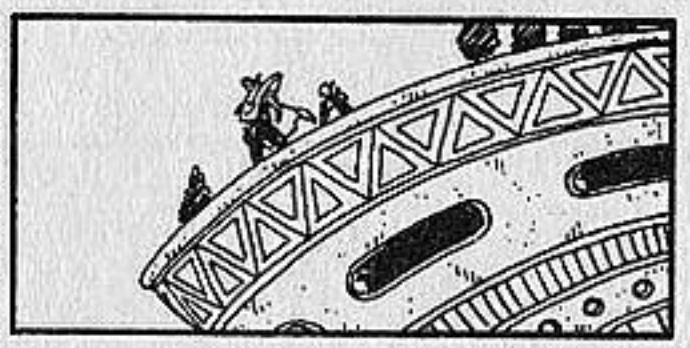

원조 마인 부우에게 승산은 없었다…. 분리됐을 때 파워의 대부분을 악의 덩어리쪽 마인 부우가 가져가버린 것이다….


빠작
휘--잉
!!
으악!!


털썩
낼름
!!
우우우우...
꿀꺽
쀼우우우ㅡㅡㅡ웃


.....
뭉게 뭉게 뭉게 • • •






윽…!!



뿌드득 뿌드득

또… 또 이상하게 변했다…!

이…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이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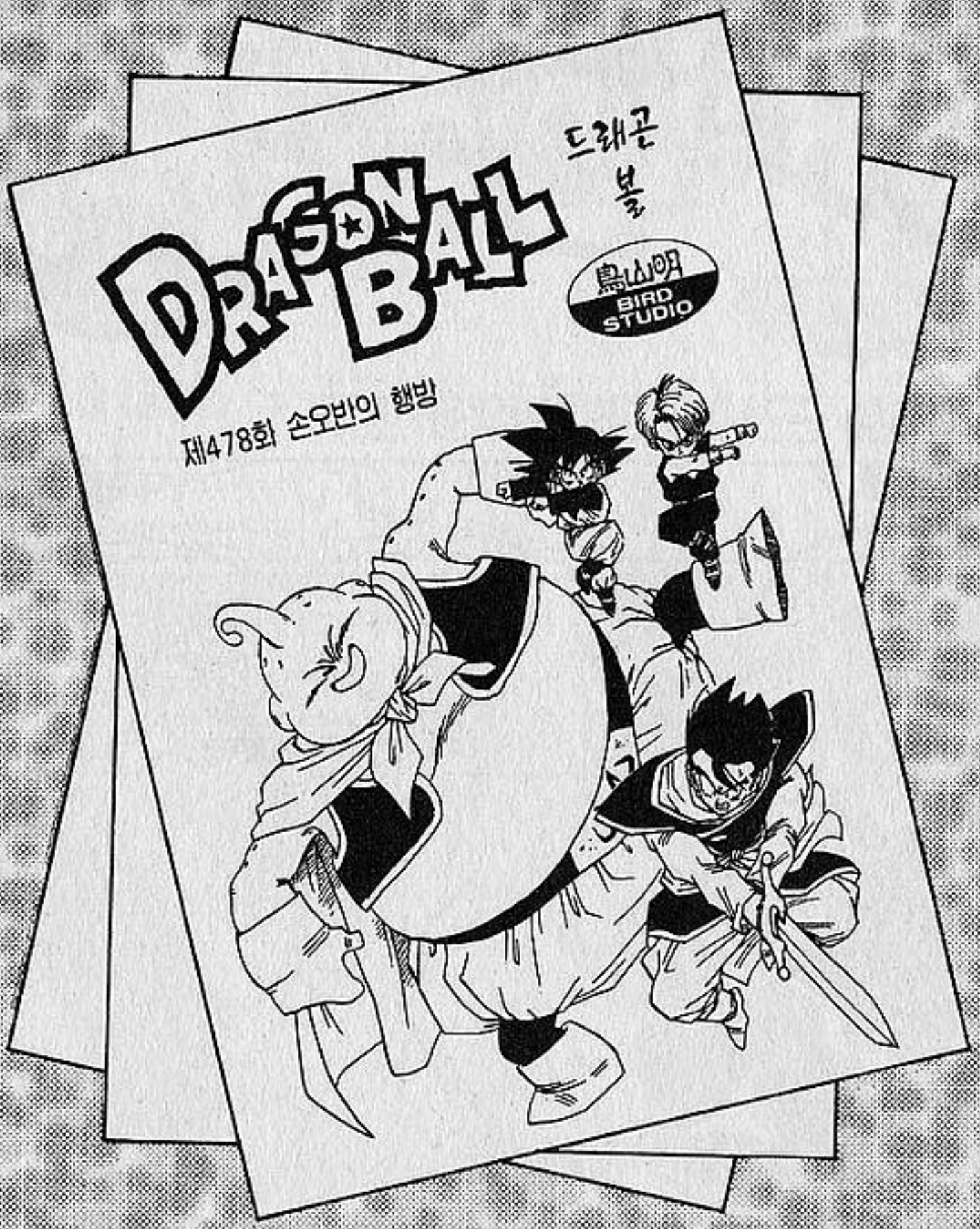
음냐음냐…

후아 아 아 암…

아아아


으아악!!
하아!
.....

표지페이지 대특집 XXX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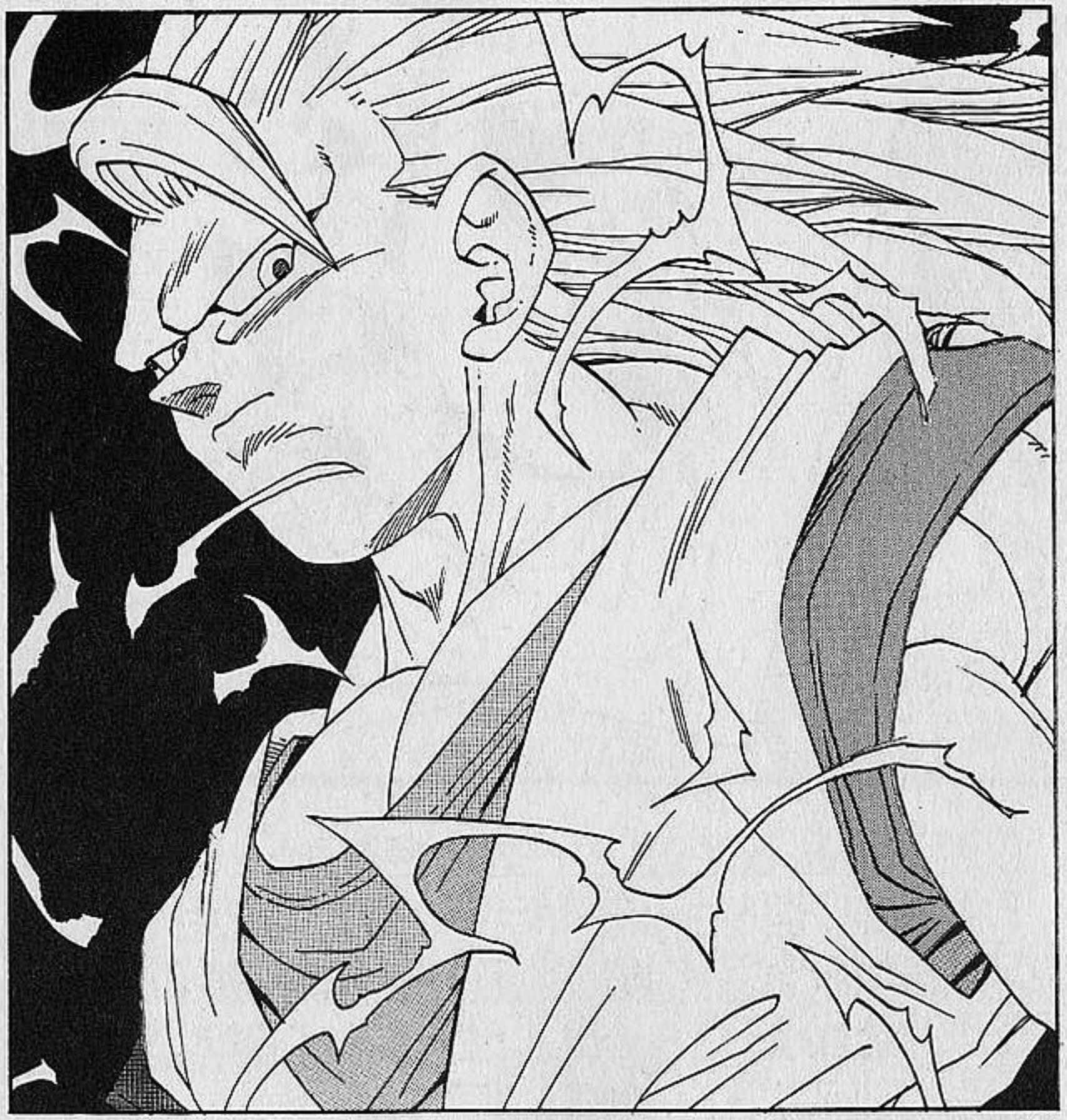


어쨌든 「퓨전」을 완성시킨 오천과 트랭크스.
악한 짓을 거듭하는 마인 부우와 대항할 수 있는 건
두 사람밖에 없다!! 하지만, 그 마인 부우에게 이상한
조짐이 발생했다!! —…라기 전에, 주간 아이큐 점프에
실린 그대로의 표지 페이지 대특집!!

DRAGON BALL 드래곤 볼

鳥山明
BIRD STUDIO

제475화 드러나는 마인 부우의 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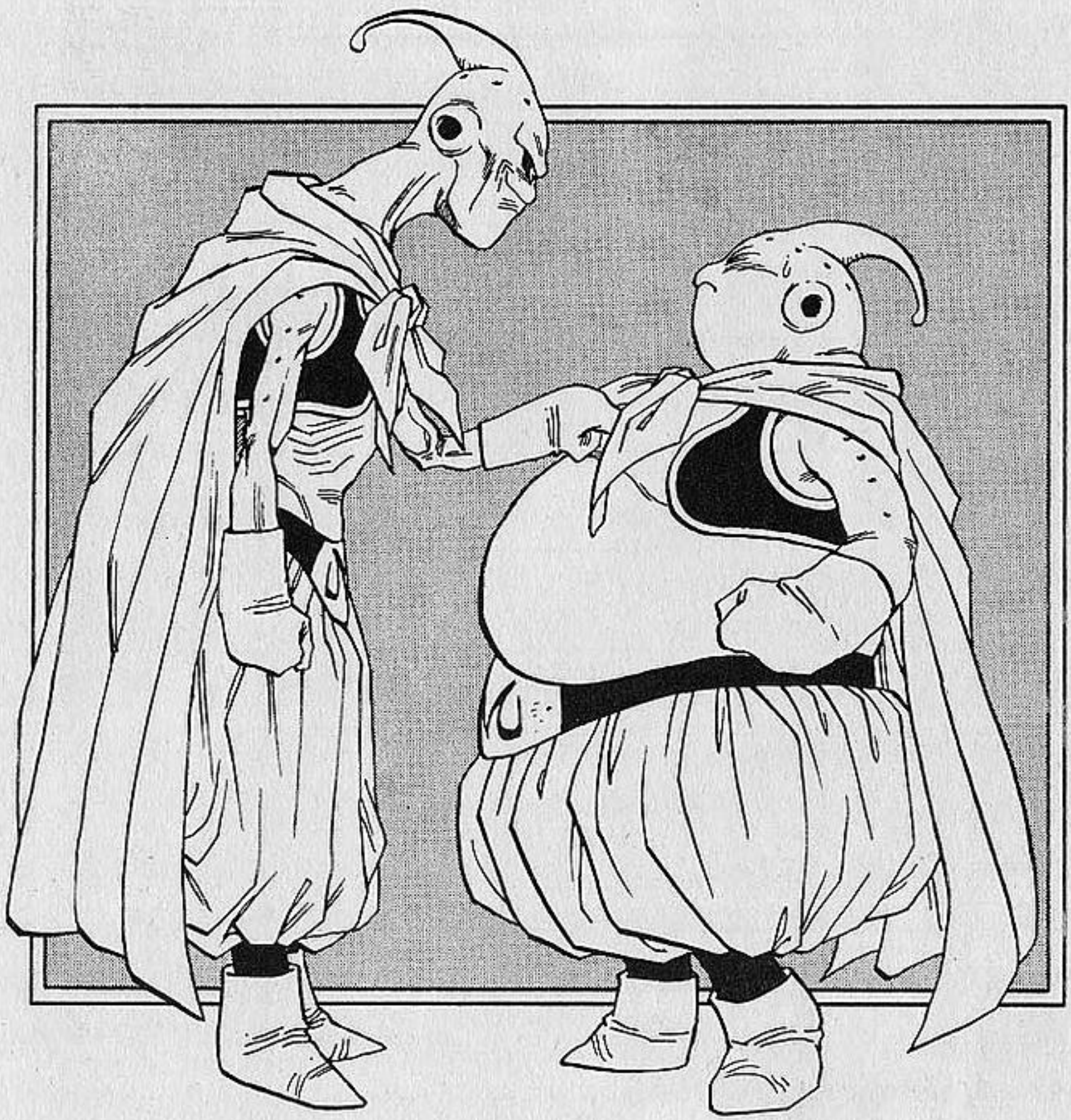


DRAGON BALL

드래곤 볼

鳥山明
BIRD STUDIO

제485화 두 명의 마인 부우… 그리고…



아이큐 점프 코믹스





저자 ● AKIRA TORIYAMA
번역 ● 아이큐 점프 편집부
발행인 ● 조대웅
발행처 ● (주)서울문화사
등록일 ● 1988년 2월 16일
등록번호 ● 2-484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5
전화 ● (02)7999-179~184(편집) / (02)7999-201~207(판매)
FAX ● (02)798-9991(편집) / (02)749-4079(판매)

인쇄처 ● 청송문화인쇄사

2002년 6월 20일 제1판 인쇄
2002년 6월 25일 제1판 발행

[DRAGON BALL]
© 1984 by BIRD STUDIO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Japan in 1984 by SHUEISHA Inc., Tokyo.
Korean translation rights in Republic of Korea arranged by SHUEISHA Inc.
through Shin Won Agency Co. and MSC Japan Inc.

Korean edition, for distribution and sale in Republic of Korea only.
한국 내에서만 배본과 판매가 가능한 한국어판

●인지는 작가와의 협의하에 생략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minyoung

상상초월 예측불허



칠성구!

오리지널판 〈드래곤 볼〉 전42권 완간 임박, 2,500분 애독자 깜짝 특별선물!!

〈드래곤 볼〉 매니아 여러분의 격찬 속에 완벽하게 부활한 〈드래곤 볼〉 오리지널판
완간을 카운트다운하면서, 아이큐점프 편집부에서는 그동안 보내주신 열혈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멋진 드래곤 볼 「칠성구」 세트를 애독자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에 오직 2,500세트뿐인 드래곤 볼 「칠성구」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세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꼭 잡으세요!

세계 최초, 유일한 오리지널판 드래곤 볼 「칠성구」!!



♣응모요령♣

오리지널판 〈드래곤 볼〉 제38권~제42권까지의 표지에
붙어있는 응모권을 잘 오려서 엽서에 부착하여 보내주세요.
한 권당 500분씩, 총2,500분에게
멋지게 포장된 드래곤 볼 「칠성구」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앞으로 〈주간 아이큐점프〉에 실릴 예정입니다!!

♣보낼 곳♣

140-737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35 (주) 서울문화사
편집3국 아이큐 점프 「칠성구」 선물 담당자 앞

♣응모마감♣

제40권은 7월 16일까지

♣당첨자 발표♣

〈주간 아이큐 점프〉 2002년 제 31호 (7월 23일 발매)

오리지널판 〈드래곤 볼〉
초인기 판매중!
제1권~제40권



(주)서울문화사

©1984 by BIRD STUDIO AKIRA TORIYAMA